

재가불자들의 나눔공동체
(사)자비신행회
도시락에서 수행까지
이웃과 나누며 행복 찾아요
12 · 13면


#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12월 8일) · 주간

제974호 2014년 1월 8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억울함을 당했다해서 밝히지 말라.
밝히고 나면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닦아라.

# 종교방송 뉴스가 不法방송이라고?

## 방통위, 유사보도 실태 발표… BBS 등 종교방송 포함

20여 년을 넘게 한국 사회 전반을 취재 보도했던 BBS 불교방송의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으로 규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구랍 30일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보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유사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해 송출한 방송사는 BBS 불교방송 등 지상파 종교방송 4곳과 케이블 경제 · 종교 방송사 13곳 등 총 17곳이다.

BBS 불교방송은 '박경수의 아침저널' 'BBS 뉴스' '뉴스 파노라마' '뉴스와 사람들' 이 불법 유사보도프로그램으로 지적됐다.

개신교 방송인 CBS는 '저녁 종합뉴스' '낮 종합뉴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CBS 뉴스' '하근찬의 아침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노컷뉴스' 등 이 불법으로 규정됐으며, 천주교 평화방송(PBC)의 '뉴스와 세상' 과 원음방송(WBS)의 'WBS 뉴스' 도 법망에 걸렸다.

방통위가 종교방송들의 보도프로그램에 문제를 삼은 법적 근거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이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에는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를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방송이나 교통방송 등으로 사업 허가를 받아 보도를 할 수 없는데도 '앵커 · 뉴스 · 기자' 등 명칭을 이용한 뉴스 형식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게 방통위의 주장이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20여 년 이상을 취재 일선에서 질곡의 현대사를 취재 보도한 종교방송들을 불법으로 규정한데 대해 해당 방송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오는 6월 선거를 앞두고 언론들에 대한 '재갈물리기' 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상당하다.

양봉모 BBS 불교방송 보도국장은 "25년 동안 공정하게 방송하며 국민 여론을 이끌어 왔는데 방통위의 이런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발표된 사안이라 더더욱 그 의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한다"며 당혹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유사보도 지적된 종교 방송 프로그램 목록**

| 구분 | 세부구분 | 유사보도 프로그램 |
|---|---|---|
| 지상파 방송 | 종교방송 | 〈박경수의 아침저널〉, 〈BBS 뉴스〉, 〈뉴스 파노라마〉, 〈뉴스와 사람들〉(이상 BBS), 〈CBS 저녁종합뉴스〉, 〈CBS 낮종합뉴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CBS 뉴스〉, 〈하근찬의 아침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노컷뉴스〉(이상 CBS), PBC의 〈뉴스와 세상〉, WBS의 〈WBS 뉴스〉 |
| 등록채널(PP) | | CBS TV의 〈CBS 교계뉴스〉, 복지TV의 〈WBC뉴스〉, CTS TV의 〈CTS 뉴스〉 |

**방송법 등 근거해 불법 규정**
**20년 보도관행… 법 개정해야**
**언론노조 · PD연합회 등 반발**
**BBS "유사보도 몰이 안될 일"**

불교방송은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 종교방송사들과 연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양 국장은 "방송의 역사성과 법제도의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해 제도개선방안 마련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라면 이를 계기로 종교방송 등이 뉴스채널의 뉴스채널 방송을 제도적으로 확고히 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언론노조와 방송인 단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방통위가 CBS, 뉴스타파 등에 대해 '유사보도' 운운하며 애써 불법 딱지를 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을 향해 대놓고 선전포고를 하는 격"이라며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세력에 어떻게든 '불법' 이라는 낙인을 찍어보려는 갈등과 대립의 리더십은 지난 1년으로 족하다. 방통위의 '유사보도' 운운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PD연합회는 1월 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는 '법과 현실의 불일치를 개선한다' 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속내가 언론의 비판적인 기능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 " '현재까지 사실상 보도를 허용해온 역사성과 법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면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미비한 법적 지위를 찾아주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언론의 비판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면서 "마치 정권에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하지 않으려면 방송을 그만두라는 식의 폭력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같은 지적과 반발에 대해 방통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종편과 보도채널들의 요구가 있어 실태분석을 한 것"이라면서 "현재 언론에서 말하는 규제 방침 등은 말이 안 된다. 아직까지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유사보도 문제는 사회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해당 방송사업자와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연구용역 등을고용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 정혜숙 기자

## 사찰 농지부담금 2년 한시 100% 감면

### 정부, 구랍 30일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전통사찰이 농지전용을 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됐다.

정부는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을 통과한데 이어 30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면 적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안(구 절대농지)은 농지보전을 위해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령의 적용기간은 정부의 방침을 적용해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현행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전통사찰이 과도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인해 사찰의 보존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농지전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령에 대해 조계종은 "감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통사찰의 농지전용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간 연장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향후 농지의 보존과 활용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삼광사 새해맞이 타종식**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는 1월 1일 범종각 앞에서 '2014 새해 마음살림불사 소원기원 신년맞이 타종식' 행사를 진행했다. 타종식 행사에서 무원 스님은 "어리석은 마음을 내면 나쁜 말과 행이 나오고, 지혜로운 마음을 내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보인다"며 "마음살림 불사를 통해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부지런히 갈고 닦아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2014 현대불교 말처럼 뛰니다

불기 2558(2014)년 갑오년은 한국사회에도 불교계에도 변화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도 창간 20주년을 맞아 '정론직필을 통한 불법홍포' 라는 교계 언론의 기치를 다시 한 번 되짚고 뛰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4 신년부터는 한층 보강된 신년 연재가 시작됩니다.

### 불교와 전문 식견이 조화된 기획 연재

**탑의 진화**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성스러운 불탑. 불자들에게 탑은 부처님과 같은 것이다. 과거불시대부터 있었던 탑의 유래와 변천을 오랫동안 불탑 연구에 진력해온 조계종 전국교법사단장을 맡고 있는 불탑사상연구회 우인보 회장이 풍부한 자료를 통해 전한다.

**불교건축기행**
현대 건축과 어우러진 불교 건축의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지면으로, 설계를 맡았던 건축가들이 직접 들려주는 설명을 통해 불교건축의 미를 심도있게 감상할 수 있다.

**한국의 구법승**
부처님 법을 좇아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걸어간 구법승의 삶을 조명한다. 온갖 위험이 기다리고 있던 미지의 세계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깨우쳐 간 그들의 모습에서 21세기 격변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다.

**만해의 길을 가다**
올해는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충남 홍성 생가부터 성북동 심우장까지 만해 스님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스님의 생애를 통해 사상과 삶을 조명한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비춰본다.

**불교로 읽는 古典**
현재 한국은 '인문학 전성시대' 다. 진정한 인문학 진흥은 전 방위에 걸친 고전에 대한 등 독서와 탐구가 대중 안에 폭 넓게 저변화 돼야 한다. 불교적 관점에서 동서양을 아우르는 고전 읽기로 새로운 안목을 열어보려 한다.

**붓다와 물리학**
위오기 공주대 교수는 윤회를 종식시키는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물질과 정신을 구별하는 '통찰지혜' 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붓다가 설한 물질의 성질에 관한 궁극적인 실재의 세계를 살펴본다.

### 佛法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연재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불교계의 원로이자 독립운동가이며 교육자인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를 통해 우리네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
수행단체 보림회를 만들어 수행지도를 했던 故김기추 거사의 법문록을 통해 허공과 불성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포교일기**
2014년 젊은 군법사들에게서 새롭게 변화하는 군포교 일화를 들어본다. MBC 예능 프로그램 진짜사나이에 버금가는 재미를 선사하는 군법사들의 최전방 포교 리얼 스토리를 전한다.

**산사에 깃든 선비의 시심**
유교의 유명 선비들이 산사를 소재로 쓴 시와 그에 얽힌 절과 시대와 사람의 이야기를 실어본다.

### 대중 문화의 숨결이 있는 연재

**갤러리 색즉시공**
희상 스님의 선화 에세이를 비롯해 불자들의 마음을 쉬게 해줄 불교적 예술작품들을 소개하는 지상 갤러리다. 부처님의 말씀을 꼭 경전을 통해 듣거나 전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양한 콘텐츠로 불법의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Buddha in Comic & Ani**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현대 문화사업의 중추로 그 안에는 불교적 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상당수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안에서 담긴 불교적 메시지를 읽어내 소개하고 이를 통해 불자들이 작품을 보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죄가 되지만,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출간즉시 베스트셀러

인생을 건너가는 지혜를 주는
마가 스님의 '마음 수업'
'자비로워지는 것'이 왜 궁극의 치유가
되는지를 전하는 성찰의 언어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 추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 집중 보도한 화제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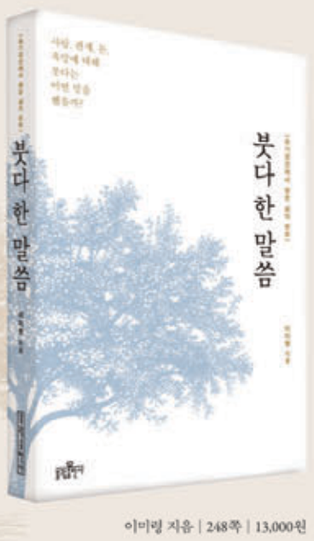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마가 글 | 256쪽 | 13,000원

사랑, 관계, 돈, 욕망에 대해 붓다는
어떤 말을 했을까?

초기경전에서
찾은
삶의 힌트

세속적인 시대에 더욱 빛나는
붓다의 카운슬링
7년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에 같이 읽고
함께 공감한 초기경전 속 생활의 지혜



그동안 니까야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 같은 재가자들도 편하게 경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경전 내용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물로 초기경전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경전 구절 몇 가지를 추리고 설명을 보태서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이 초기경전과 사람들을 잇는 다리 노릇이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엮었으며, 부디 많은 사람들이 초기경전 니까야와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_서문 중에서

이미령 지음 | 248쪽 | 13,000원

# “수행자 본분 지킴이 종단 위상 회복”

**태고청규**

- 분소의(糞掃衣) 정신에 입각해 전통의제에 맞는 복식을 착용하고 법계에 맞는 법복 착용을 의무화 한다.
- 수행가풍 진작을 위해 태고총림 안거에 동참하고 개사찰별 단기결제를 의무화 한다.
- 조석예불시 향수해례 봉행을 준수하여 전통종단의 면모를 일신하고 매월, 포살과 자자를 정례화 한다.
- 승가의 본분에 위배되는 오락성, 사행성, 호화성 행위를 금지하고 청빈한 수행풍토를 의무화 한다.
- 매월 1승려 1선행으로 대승교화정신에 입각한 대사회 복지에 기여한다.


태고종 구랍 27~28일 선암사에서 종단 사상 최초로 태고산림법회를 봉행했다.

## 태고종, 구랍 27~28일 ‘태고산림법회’ 철야정진

### 단기 결제 · 포살 자자
### 청빈 · 수행증작 의무화
### 자비행 등 ‘청규’ 발표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이 청규를 만들어 발표하는 등 종단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태고종은 구랍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간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서 종단 창종이래 최초로 5개조항의 청규를 마련하는 등 ‘태고산림 법회’를 성공리에 봉행했다. 특히 이 자리는 종정 혜초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도산 스님, 중앙종회의장 혜공 스님과 총무원의 각 부장, 중앙종회의원, 전국 시도교구종무원장, 전국비구니회, 전국전법사교임회 등 종단 간부스님들과 단체장 등 종단의 주요 요직 인사 1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참석한 대중들은 철야정진을 하고 5개 항의 ‘태고청규’를 한목소리로 낭독했다.

태고청규는 조석예불과 의제착용 및 개사찰별 단기결제, 청빈한 수행풍토를 의무화 하고, 자자와 포살을 정례화하며, 매월 1승려 1선행을 통해 봉사활동을 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태고종은 앞으로 종도들이 ‘태고청규’를 자발적으로 지켜나가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구랍 27일 오후 7시 입재식으로 문을 연 ‘태고산림법회’는 다음날인 28일 새벽 3시까지 천수다라니 108독과 108 참회, 이산혜연 선사 발원문 봉독 등으로 이어졌다.

회향식에서 종정 혜초 스님은 법문을 통해 “종단 집행부를 포함한 종단을 대표하는 스님들이 총림에 함께 모여 철야정진으로 새해를 맞는 것을 보니 그 공덕으로 종단이 새롭게 활성화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면서 “종도들은 계율을 잘 지켜 삼독을 끊고 삼학을 잘 닦아 승가 본분을 지키고 종단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태고청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태고산림 법회를 개최한 가장 큰 의미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수행자 본분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종단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보다 수행자가 수행자답게 생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실추된 승가의 위상을 높이고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한다면 한국불교계가 쇄신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청규는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자는 취지이다. 이번에 제정된 청규를 통해 승속의 경계를 엄중히 하고 삭발염의했던 초발심으로 돌아가 우리 종단의 새로운 미래상을 정립하는 발판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애국·생활·대중불교 지표를 실현하자”

### 천태종, 상월대조사 102주년 탄신법요 성료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원각대조사의 탄신 102주년 봉축법요식이 구랍 30일 오전 10시 30분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종정 도용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법요식은 종정 도용스님의 헌향헌다 헌화로 시작해 삼귀의례, 찬불가, 반야심경 독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상단권공 및 종사영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봉축사에서 “오늘 우리가 대조사님 탄신의 의미를 기리고 되새기는 것은 대조사님의 무진법문을 주경야선의 종풍으로 받들고 애국 · 생활 · 대중불교의 지표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서원”이라며 “천태종 250만 불자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대조사님의 길을 따라 갈 것이며, 대조사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이라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심장섭 종무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참되고 밝은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정화에 노력해온 천태종이 대조사님의 원융화합의 가르침을 더 크게 일궈 우리 사회의 소통과 화합의 길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보화스님(조계종 사회부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민족의 큰 혼란기를 거치면서 상월원각대조사께서는 구인사를 중심으로 헌신적인 불법홍포를 이어갔다”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화를 견인하며 종교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천태종의 주경야선 풍토가 앞으로도 단단한 정진력으로 승화되어 지혜와 자비가 원만한 세상을 구현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요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를 비롯한 불교계 종단 지도자와 이헌승 국회의원, 심장섭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신진선 충북도 행정부지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김동성 단양군수 등 정계 인사와 지역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상월원각대조사의 탄신 102주년 봉축법요식이 30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됐다.

## 경북 불교문화재 50% 도난 · 파괴

### 우리문화재찾기 조사 결과 발표

㈔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는 경북도내 석탑 136기와 석불 64체 등 200개에 대해 최근 2년여 동안 조사한 결과 46.5%인 93개가 도난당해 행방불명되거나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에 따르면 석탑은 도난당해 행방불명된 것이 32기, 파괴돼 일부 탑의 석재가 없는 것이 34기로 조사됐다. 석탑 중 온전히 원래 위치에 보존(복원 포함)돼 있는 것은 23기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그 자리 일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불은 도난당해 행방불명된 것이 13체, 일부 파손된 것이 14체이며, 원래 위치에 그대로 보존돼 있는 것은 7체뿐이었다.

우리문화재찾기는 “1916~1917년 일제가 학술조사 명목으로 작성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의 석탑 · 석불 183건과 지역 향토사료지의 내용을 대조해 추적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조계종 올해 본사 · 종회의원 선거 잇달아

### 용주사 · 불국사 등 5곳
### 주지 선출위한 산중총회
### 10월 종회의원 선거도

지난해 총무원장 선거에 이어 올해에도 조계종은 적지 않는 선거가 열린다. 주지스님이 교체되는 교구본사만 5곳이며, 중앙종회의원 선거도 보궐을 포함해 2차례 열릴 예정이다.

본사주지를 선출하는 산중총회는 2교구 용주사와 11교구 불국사, 16교구 고운사에서 각각 열린다. 9교구 동화사와 13교구 쌍계사도 총림 지정 이후 첫 주지 선출을 앞두고 있다.

가장 먼저 본사 주지 선출 산중총회가 열리는 곳은 제2교구본사 용주사다. 제2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호)는 오는 1월 27일 오후 1시 용주사에서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주지 후보 입후보자는 법계 종덕 이상, 연령 70세 미만의 비구로서 △2년 이상 재직한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 △8년 이상 재직한 말사 주지 △4년 이상 재직한 중앙종회의원 △4년 이상 재직한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10년 이상 재직한 강원 · 율원 교직자 중에서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조계종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스님이 투표를 하고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주지 후보 입후보자는 등록신청서와 이력서, 경력 또는 안거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월 15일부터 17일 오후5시까지 2교구 선거관리위원회(용주사 종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거주승 신고는 1일부터 7일까지며, 구성원 명부 열람은 18일부터 20일까지다.

팔공총림 동화사는 5월 주지 성문 스님의 임기가 만료되며, 총림법에 따라 팔공총림 방장 진제스님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쌍계총림 쌍계사는 12월 주지 성조스님의 임기를 앞두고 있다. 쌍계총림 방장 고산스님의 낙점에 따라 차기 주지가 결정된다.

이밖에도 고운사는 9월, 불국사는 10월에 현 주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를 선출하기 위한 산중총회가 열린다.

중앙종회의원 선거도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다. 15대 보궐선거가 2월 27일과 8월 28일 예정돼 있고, 10월 16일 16대 중앙종회의원 총선거가 전국 교구에서 일제히 열린다. 2월 열리는 보궐선거는 마곡사 1명, 직능대표 1명 등 2석의 중앙종회의원을 결정한다. 신중일 기자

## 청소년 · 임산부 인성 함양 사찰에서

### 목동 국제선센터, 1월 영어, 태교 템플스테이 연이어 개최

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영어가 가능한 중고생 20명을 대상으로 1월 11일(토)~12일(일) 1박 2일간 ‘청소년 영어 템플스테이(ISC Teen’s Templestay)’와 1월 8일, 15일, 22일 사흘간 ‘임산부를 위한 태교 데일리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청소년 영어 템플스테이’의 지도법사는 국제선센터 국제차장 천조스님이며, 김창민 서울시립대 전자공학과 교수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지낸 Ralph Baldassare 등이 강사를 맡아 청소년을 지도한다.

또한 브라질 국적의 서울대 교환학생 및 국제선센터 청년회원들이 간사로서 템플스테이 진행과 생활 지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소년 영어 템플스테이는 ‘자신감 및 성취감 고취’ ‘자아찾기’ ‘불교수행’ ‘조화롭게 살기’ 등 네 개의 테마로 구성돼 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법과 마음 나눔(Dharma Sharing)’ △나의 명함 만들기 △나에게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주제토론(인생그래프, 나쁨 비우고 소망 채우기) △발소리 느껴보기 △숨소리 느껴보기 △포기하고 싶을 때 마음을 다져주는 영문 108배 등이 있다.

또한 국제선센터에서는 집에서 멀리 떠나기 어려운 임산부를 위한 3주 코스의 태교 데일리 템플스테이를 기획했다. 태아와 산모를 위한 건강한 사찰음식을 먹으며 산모들이 수행을 통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배우고 체험하게 된다.

임산부를 위한 태교 템플스테이는 매월 진행되며, 2차는 3월에 할 예정이다. 2차는 산모의 건강관리법과 태아를 위한 불교적 교육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 대 한 불 교 원 효 종

갑오년 새해 종도 여러분 소원성취 기원합니다.

불기 2558년 시무식과 2557년 결산 심의, 2558년 예산편성 결정을 함에 종회회의를 개최하오니 중앙종회 의원님들의 참석 당부 드립니다.

**중앙종회의원**

종 회 의 장 원봉(이동림)
종회부의장 진혁(최광식). 명관(설희생)
법 규 원 장 지호(최병택)
종회사무총장 진산(박병철)
법규의원 지상(박정명). 운영(안영자). 상경(김종술)
종회의원 운하(이성식). 옥운(김옥자). 도명(김희곤). 운오(신찬오)

**중앙종회의원 종회회의**

● 일 시 : 불기 2558(2014)년 1월 9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총무원 울산주소 – 하단주소 참조
※ 각 교구장 스님은 도장 필 지참할 것.
● 신 년 법 어 : 벽송 큰스님. 정광 큰스님
● 집행위원장 : 혜담 큰스님. 운오 큰스님

불기 2558(2014)년 1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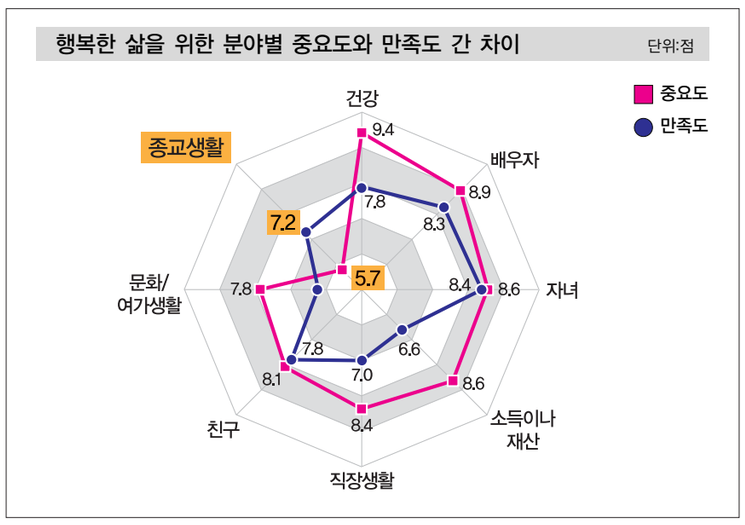
대한불교원효종 종회의장 원봉 합장

■ 총무원 : 서울 종로구 청진동 11-6번지 삼선빌딩 601호 / 전화 02)735-0501. 팩스 02)736-3509
■ 울산사무소 :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65-3번지 / 전화 052)262-6857. 팩스 052)263-0501

# 종교는 '행복하라' 가르치는데, 대중은 '글쎄'?

**문체부 한국인 의식 조사 결과**
**한국인, 종교 중요도 매우 저조**
**10점 중 5.7점… 만족도는 높아**

**물신화 · 종교 청렴성 실망 이유**
**종교 바른 믿기 방안 고민해야**




한국 사회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으로 종교가 가지는 중요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가 구랍 18일 발표한 '2013년 한국인의 의식 · 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2천 5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인들은 행복을 위한 기대 조건 가운데 종교를 가장 하위에 두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건강으로 10점 만점에 9.4점이었다. 다음은 배우자(8.9점), 자녀(8.6점), 소득이나 재산(8.6점), 직장생활(8.4점), 친구(8.1점), 문화생활(7.8점) 순이었다. 종교생활에 대한 중요도는 10점 만점에 5.7점에 불과했다.

한국인들은 이제 종교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같은 사실은 2012년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당시 '종교가 사회 치유 역할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42.7%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으며, 잘모르겠다는 답변도 10% 달했다. 종교 단체에 대한 신뢰도 5.4% 정도였으며, 종교 단체 재정 투명성에 대해서는 다수인 76.6%가 '투명하지 않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물신화로 가고 있는 사회에서 범계행위, 교회 세습 등 종교도 세속과 다르지 않음을 종교인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종교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치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종교가 가지는 본연의 역할에 대해 대중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종교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 종교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도덕성과 청렴성 등으로 조사된 만큼 종교 본연의 자세를 지켜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실제 만족 지수가 높다는 점이다. 문체부의 한국인 의식조사에서 분야별로 실제 얼마나 만족하는지 10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자녀(8.4점)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배우자(8.3점), 친구(7.8점), 건강(7.8점), 종교 생활(7.2점), 직장생활(7.0점) 등의 순이었다. 다른 조건들은 중요도와 만족도에 괴리가 있었지만, 종교생활은 시작했을 경우 만족도 높게 나온 것이다.

법안 스님은 "종교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대중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면서 "종교적 가치를 회복이 우선돼야 하며, 바른 믿음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가치로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말한 응답이 10점 만점에 평균 8.7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발전'(8.6점), '기회균등 및 공정성의 확보'(8.5점), '윗사람에 대한 존중'(8.5점), '사회집단 간 소통'(8.5점) 등도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통 가치로 제시됐다.

한국인의 의식 · 가치관 조사 결과 조사는 1996년, 2001년, 2006년, 2008년에 이어 이번에 5번째로 실시한 것으로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오차는 ±2.9%p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 轉迷開悟 미망에서 나와 깨달음을 얻다

## 2014 희망 사자성어로 대학교수들 '전미개오' 선정

2014년 새해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한국 대학 교수들은 '미망에서 돌아 나와 깨달음을 얻자'는 뜻의 '전미개오(轉迷開悟)'를 선택했다.

교수신문은 구랍 6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교수 617명을 대상으로 '2014년 희망의 사자성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7.5%(170명)가 '전미개오(轉迷開悟)'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전미개오는 번뇌로 인한 미혹(迷惑)에서 벗어나 열반을 깨닫는 마음에 이르는 것을 뜻하는 불교 용어로 '전미성오'(轉迷成悟)라고도 한다.

'전미개오'를 희망의 사자성어로 추천한 문성훈 서울여대 교수(사회철학)는 "전미개오의 의미는 속임과 거짓됨에서 벗어나 세상을 밝게 보자는 것이다"라며, "2013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속임과 거짓에서 벗어나 진실을 깨닫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자"는 의미에서 이 사자성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한 해 동안 소모적인 정쟁으로 일관했던 정치권에 대한 실망에서 이 사자성어를 선택한 박재우 한국외대 교수(중국학부)는 "정(政)은 정(正)이다. 정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원래대로 회복시킨다는 의미이다"라며 "가짜와 거짓이 횡행했던 2013년 미망에서 돌아 나와 깨달음을 얻어 진짜와 진실이 승리하는 한 해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미개오의 의미를 "국민들의 새로운 깨달음이 절실하다"고 읽어낸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의 의견에 공감을 표한 교수들도 많았다. 도상호 계명대 교수(회계학과)는 "우리나라와 사회가 이처럼 어지러운 것은 거짓된 세력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많은 국민들의 헛된 욕망을 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망에서 깨어나 현재를 바로 봐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영선 동아대 교수(국어국문학과) 역시 "삶의 본질과 국민 됨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고 올바른 것을 실천하려 노력한다면 평안과 부귀영화는 제 발로 찾아올 것"이라고 동의했다.

전미개오 다음으로 교수들이 선택한 2014년 희망의 사자성어는 한 표 차이로 순위를 다퉜다. 23.8%(147명)이 선택한 '격탁양청(激濁揚淸)'을 추천한 남송우 부경대 교수(국어국문학과)는 "우리 사회의 부패지수는 갈수록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격탁양청을 통해 선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로 빨리 전환돼야 국민 행복을 실현해갈 수 있다"고 밝혔다.

23.5%(146명)가 선택해 3위로 선정된 '여민동락(與民同樂)'을 추천한 이동철 용인대 교수(중국학과)는 "소수의 측근만이 아닌 대다수 백성과 고락을 함께 하는 정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민주와 복지 그리고 통일이 바로 여민동락이다"라고 추천이유를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 불교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총 12종으로 'UP'

## 〈동아시아불교문화〉 승격, 매년 1회씩 등재지 선정

불교계 대표적인 학술지인 〈동아시아불교문화〉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인터넷 공식홈페이지(www.nrf.go.kr)를 통해 2013년도 학술지 계속 평가 결과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의 〈동아시아불교문화〉를 비롯해 총 12종이 등재지에 이름을 올렸다.

불교학계 등재학술지로는 〈불교학보〉(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09년 등재), 〈한국불교학〉(한국불교학회, 2007년 등재), 〈불교학연구〉(불교학연구회, 2006년 등재), 〈강좌미술사〉(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5년 등재), 〈보조사상〉(보조사상연구원, 2006년 등재), 〈인도철학〉(인도철학회, 2008년 등재),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and Culture〉(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2010년 등재), 〈대각사상〉(대각사상연구원, 2011년 등재), 〈불교연구〉(한국불교연구원, 2011년 등재) 등 12종에 유관 등재지 포함 15종으로 늘어났다. 또 등재후보지로는 〈정토학연구〉(한국정토학회), 〈불교미술사학〉(불교미술사학회), 〈신라문화〉(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등 3곳이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05년 한국불교미술사학회의 〈강좌미술사〉 등재 이후 매년 1종 이상 등재되고 있다. 등재후보지가 등재지로 승격되려면 게재된 논문과 학술지

**불교계 유관 단체 포함 15종**
**게재논문 수 연구업적에 반영**
**"세계화로 질적 향상 노려야"**

의 내용성과 체계성을 평가하는 심사에서 2년 연속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등재지에 선정되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과 더불어 국내저명학술지로 분류돼 학술지의 위상이 높아진다. 특히 이곳에 게재된 논문은 업적 평가 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 발간되는 학술지는 '등재지, 등재후보지, 일반학술지'로 나뉜다. 논문이 실린 학술지의 등급에 따라 그 논문이 평가되고 이는 연구업적 점수로서 교수임용 또는 업적평가 때 기준점수로 활용된다. 때문에 어떠한 학술지가 어떤 등급에 속하는지는 연구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학술지의 등급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목록에 등재돼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학술지 등재제도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 기능해 왔다.

박문현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회장은 "오랜 기간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등재지 선정을 계기로 한국불교학의 발전과 소장학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학회활동을 보다 활발히 펼치겠다"며 기쁨을 표했다.

이와 함께 한국연구재단은 2013년 국내학술지 지원사업 선정과제 또한 발표했다. 지원사업은 2014년 1년 동안 학술지 편집 및 디자인비, 인쇄비 등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비를 제외한 경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곳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불교학보〉,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학〉, 불교학연구회 〈불교학연구〉,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and Culture〉 등 4종이다.

하지만 이러한 쾌거에서 등재지 제도 변화에 앞둔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1년 12월 정부는 기존 학술지 등재제도를 2014년부터 폐지하고 학계 자율평가체제로 전환할 것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기존 학술지 등재제도가 국내학술지의 과도한 양적팽창을 불러오고, 학술지 관리에서도 질보다는 양과 형식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기존 체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14년 말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등재제도를 다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김용표 한국불교학회 회장(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편집위원장)은 "학술지가 양적인 팽창 외에 수준높은 논문을 게재하고 학자들간 인용을 늘리는 등 질적 성장을 해야 할 때"라며 "불교학계도 세계기관과의 연계활동 등 다양한 질적 성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日 종교계, 아베 총리 신사 참배 강력 항의

## 이치노헤 스님, 자신 블로그에 소개



구랍 26일 강행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등이 유감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종교계에서도 비판과 항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조선침략 참회기〉의 저자인 조동종 운쇼지 주지 이치노헤 쇼코 스님〈사진〉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일본 종교계나 국내외 동향을 소개하고, 불교자의 눈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소속 종파 조동종에 참배 항의 성명을 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치노헤 스님의 블로그에 의하면 일본 진종교단연합은 보트기 도슈(佛木 道宗) 종무장 명의로 항의 성명을 발표됐다. 성명서에서 진종교단연합은 "이번 참배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참배에 대해서도 계속되어 중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일본 기독교 야스쿠니신사 국영화 저지 그리스도 그룹의 위원장 우라쎄(浦瀨)도 "일본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중국, 한국 등 아시아제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치노헤 스님도 신년사를 통해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 강행을 비판했다. 스님은 '2014년을 맞이하며'라는 글에서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무리수"라면서 "야스쿠니 숭배는 조상 에 대한 애착, 즉 가족주의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비정상적 가족주의는 매우 위험하다. 2014년 일본불교는 아베의 가족주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일본 사회에 진정한 불교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 전통과 새로운 문화가 살아 숨쉬는 원력의 수행도량!

운문사 승가대학에서는 2014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운문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

▣ **자 격** : 1. 2014년 봄 수계자까지 가능
2. 타 승가대학생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 **모집인원** : 사미니과 ○○명
▣ **시험과목** :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본인 법명 도장 및 증명사진(장삼 만의 착용) 2매
5.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및 최종학력 증명서
▣ **준 비 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 **모집기간** : 2014년 1월 4일(음력 12월 4일)~2013년 1월 19일(음력 12월 19일)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도착일시** : 2014년 1월 19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 **시험일시** : 2014년 1월 20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 **교 통 편** : 대구 남부 버스정류장에서 오전 7시 ~ 오후 7시까지
운문사행 시외버스 수시 운행(운행간격 1시간)

운문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 학장 홍륜 · 주지 일진

**운문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 **모집대상** :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3년도 봄 수계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 **모집인원** : ○○명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율원 ·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6.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7. 증명사진 2매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면접
▣ **준 비 물** : 가사, 장삼, 승려증
▣ **전형일시** : 2014년 1월 19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운문사 승가대학원장 명성 · 보현율원율주 홍륜 · 주지 일진

♣ 승가대학 신입생, 보현율원 및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 주 문



### 지구촌공생회, KBS에 성금 전달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구랍 30일 KBS '희망 2013 나눔이 행복입니다-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모금' 에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 제3회 청소년 소통명상캠프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1월 18~19일 용주사 효행문화원에서 제3회 청소년 소통명상캠프를 개최한다. (031)239-9391



### 보광선원 및 요양병원 신축불사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통도사 보광선원 신축불사 및 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한다. (055)382-7182



### 조계사 정월 생명살림기도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2월 16일 양산 통도사에서 동안거 회향 정월 생명살림기도를 진행한다.



### 생명의 강 내성천 살리기 운동

지율 스님은 1월 11~12일 생명의 강 내성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를 실시한다. (02) 720-1654



### 제12회 현대수필문학 대상

맹난자 씨는 구랍 20일 수필집 〈나이대로 좋다〉로 현대수필문학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 태고종 총무원 홍보부장 혜철 스님



한국불교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은 구랍 27일 종무회의를 열고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을 총무원 홍보부장에 임명했다. 혜철 스님은 청주 보현사 원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동방불교대학 범패과를 졸업했다. 옥천 대성사 주지, 불교공뉴스 대표를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 대불련 52대 중앙회장에 신경선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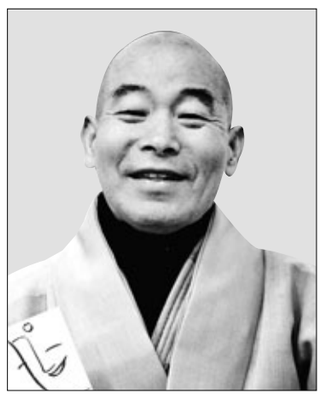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52대 중앙회장에 신경선 대불련 전북지부장이 선출됐다. 대불련은 구랍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신경선 제52대 중앙회장 취임법회를 개최했다.

신경선 신임 대불련 회장은 전북대 3학년생으로 전북지부장으로서 대불련 50주년기념사업회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신경선 신임회장의 임기는 1년간이다.

노덕현 기자

#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 도울터"

### 불교 호스피스 사례집 발간
### 늘기쁜마을 대표이사 지현 스님



2004년부터 1,300여 명 교육
부산 주요 의료시설 봉사 활동

"내일까지 살아있을까? 항상 오늘이 생에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숨 쉬는 순간까지 환자들을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출 뿐입니다. 내 정진과 공부하는 것, 복지하는 것을 함께 병행하면서 살 것입니다. 분명한 계획이 하나 있다면, 특별하게 변절하진 않을 것입니다. 자비와 지혜의 원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이 생각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것 하나가 분명한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대표이사 지현 스님(송광사 율주 · 부산 관음사 주지)이 '환희호스피스봉사단' 창립 15주년을 맞아 지난해 연말 〈정토의 하얀 연꽃〉을 출간했다. 이 책은 15년의 활동과 경험들을 글과 화보로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 불교호스피스의 이론적 정립에서부터 향후 방향까지, 봉사자들과 전문 의료인들의 현장 활동 속에 배어있는 경험들과 가족과 삶과 죽음에 대한 잔잔한 여운을 던지는 환자들과의 일상을 담은 수기들도 수록되어 있다.

국내 불교호스피스 인재 양성에 앞장서 온 지현 스님은 "15년간 30회에 걸쳐 1,300여명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고, 400여 명이 부산지역 의료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따뜻한 인간애를 실천하는 이들의 선행은 외롭고 병든 이들의 큰 힘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불교 발전의 큰 힘"이라며 출간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호스피스 사업의 인연을 묻자 스님은 "70년대 해인사 강원스님들과 인근마을에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에게 생활용품을 전달하러 갔다가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사는 외로운 노인들의 모습들을 봤다"며 "그때 '내가 진흙이 된다면 나와 인연 맺은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진흙에 뿌리를 내려서 연꽃이 되면 좋겠다' 는 한 생각이 익어서 환희호스피스봉사단 창립 15주년을 맞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불교가 정화와 깨달음에 치중해 있던 7~80년대에 지현 스님 역시 "대체, 깨달음이 무엇인가? 라는 해답을 찾기 위해 경전도 찾아보고 많은 선지식들에게 물음도 던져 봤으나 시원한 대답은 얻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스스로의 물음에 '뜨거운 가슴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삶' 이라는 원력으로 95년부터 한결같은 자비원력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환희복지불교대학과 환희호스피스봉사단은 1999년 불교보건복지대학으로 설립되어 2004년 개명한 이래 현재까지 30기 1,3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부산의 대표적인 불교호스피스 봉사자 양성기관이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동국대, 108주년 맞아 릴레이 108배

### 이사장 정련 스님 비롯 전 교직원 연말까지



동국대가 2014년 개교 108주년을 맞아 제2 건학의 원만한 성취와 구성원들의 화합 및 발전을 서원하는 365일 108배 운동을 시작했다. 동국대는 1월 2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개교 108돌 제2건학 성취를 위한 365일 108배 운동' 입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재식에는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과 김희옥 총장, 정각원장 법타 스님, 교무위원, 교직원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입재식에 앞서 1일에는 법타 스님과 사전 신청 교직원 등 10여명이 108배 운동을 시작했다.

동국대 정각원은 "전 동국인이 참여하는 108배 운동을 통해 개교 108주년을 맞은 동국대가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길 바라며, 동국인 모두가 건강하고 소원성취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매일 진행되는 건학 108돌 108배 기도는, 매일 1명 이상의 신청자가 정각원 법당 또는 팔정도에서 108배 기도를 봉행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교수, 직원, 학생, 동문, 학부모, 정각원 신도 등 전 동국인이 참여 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 성웅·수불·진화 스님 종정 표창

### 구랍 26일 불사 · 대사회활동 공로



성웅 스님



수불 스님



진화 스님

前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과 前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조계종 종정 표창을 받았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구랍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정 진제 스님을 대신해 수상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성웅 스님은 직지사 주지로 재직할 당시 불사와 대사회활동에 힘쓴 공로를 인정 받았으며 진화 스님은 봉은사 관리인으로 재직 시, 사찰 증 · 개축을 제약하는 관계국가법령이 제 · 개정 되도록 노력한 점과 전통문화재창조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찰중창 불사의 토대를 마련한 공로로 종정표창을 받았다. 범어사 수불 스님은 한반도 평화와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을 높인 한국정전 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중일 기자

## "철도 문제 해결에 최선 다할 것"

### 자승 스님, 구랍 30일 박태만 철도노조 부위원장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박태만 부위원장이 인사를 올리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조계사에 극락전에 피신 중인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 부위원장을 격려 방문했다. 구랍 30일 박 위원장이 피신한 조계사 극락전 2층을 찾은 자승 스님은 그간의 어려움을 묻고 격려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생이 많다. 하루속히 원만히 해결되어 가족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며 "오늘 3시경 종교계 대표자들이 모여 상의를 하려 했으나, 상황이 급변하면서 신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종교계 차원의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갑자기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송구하고 감사드린다. 조금전 김명환 前위원장도 통화했는데 꼭 감사하다는 말을 원장스님께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화답했다.

자승 스님은 "철도노조의 뜻이 잘 이뤄지기를 기도하겠다. 계시는 동안 건강 잘 챙기시고 기도 잘하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호법부장 원명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 사회국장 혜만 스님이 배석했다. 신중일 기자

## 추신수, 혜민 스님과 첫 만남



불자야구선수 추신수 선수〈사진〉가 평소 자신의 멘토이자 책을 통한 가르침을 통해 꼭 만나고 싶어 했던 혜민 스님을 만났다. 구랍 30일 귀국한 추신수 선수는 1월 1일 제주도에서 가족과 함께 혜민 스님과 저녁 식사를 했다.

추신수 선수는 이번 시즌 중 6,7월 극심한 슬럼프에 처했을 때 혜민 스님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털어 놓았고, 혜민 스님은 이런 추신수에게 삶의 지혜와 야구를 대하는 자세 등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 금강대,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금강대학교(총장 정병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실시한 2013년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결과는 정부 행 · 재정적 사업과 연계된다. 향후 한국대학평가원과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5년간 인증이 유지된다.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이번 인증 결과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위한 행정부서 신설, 평가영역별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는 대학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Chinese as Second Language

남경대학한국캠퍼스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중의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 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1월 28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약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 동체대비 발원 자비행… 4년만에 네팔학생 1백명 후원

## 향운사 한국자비공덕회, 본지 보도 이후 수혜자 크게 증가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모은 보시금으로 네팔 어린이들의 학자금을 후원하는 한국자비공덕회(회장 명조)의 학자금 수혜학생이 지난 해 말 100명을 넘어섰다. 4년 전 결성 당시 후원 학생 12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과다. 본지가 2012년 10월 한국자비공덕회 관련 기사(**910호 10월 17일자 A7면 보도**)를 소개한 것도 후원자 및 수혜자 증가에 한몫했다.

한국자비공덕회는 "이 모임은 명조 · 지상 두 비구니 스님과 10여 명의 신도들이 만든 단체로, 처음 모금을 시작할 때는 후원학생이 6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00명의 학생을 후원하고 있다"며 "현대불교신문을 보고 후원에 동참한 분들 덕분에 네팔 학생들을 도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자비공덕회는 향운사 주지 명조 스님과 지상 스님의 원력으로 설립된 작은 봉사단체다.

10여 년간 심장병으로 투병을 해온 명조 스님은 아직도 심장박동기를 달고 생활하고 있지만, 남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두 스님은 수유리에 있는 가정집을 개조해 법당 겸 숙소로 사용하면서 뜻있는 신도들과 함께 2009년 6월 '남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 인 한국자비공덕회를 창립했다.

한국자비공덕회는 매월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 향운사 법당에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법회를 열고 있다. 처음 법회를 열었을 때 모인 보시금은 20여만원. 회원들은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후원대상을 찾던 중 네팔 어린이를 위한 학자금을 후원하기로 결의했다.

한국자비공덕회는 "네팔의 어린이들은 학교에 다니고는 싶으나 한 달에 1000루피(15,000원 상당)의 생활비가 없어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너무나 많다. 가정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탓에 네팔 어린이들은 돌을 깨거나 아르바이트를 해 자신의 생활비를 벌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네팔 어린이들의 실정을 주한 네팔관광청한국사무소장 케이피 시토울나 씨로부터 전해들은 회원들은 2010년 새 학기부터 12명의 어린이를 선정해 12년간 매월 1000루피의 학자금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자비공덕회는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1회성으로 끝나는 후원보다는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본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사회에 진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모은 보시금으로 네팔 어린이들의 학자금을 후원하는 한국자비공덕회(회장 명조)의 학자금 수혜학생이 지난 해 말 100명을 넘어섰다. 사진은 한국자비공덕회 회원들이 후원하고 있는 버드러컬리학교 학생들.

자비공덕회 회원들은 각자 가정에 보시함을 비치, 매일 기도를 하며 그날 하루 부처님의 자비 행을 실천하기 위해 정성껏 후원금을 보시함에 넣는다. 그리고 모아진 성금을 매월 기도법회에 참석해 전달하거나, 사정상 법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다.

회원들의 정성어린 기도가 통했는지, 한국자비공덕회 회원 수도 한두 명씩 점차 늘게 됐고, 보시금도 더 모아졌다. 한국자비공덕회는 보시금이 늘어나는 대로 후원 학생 수를 매년 늘려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조금씩 늘어난 후원학생 수가 2013년 11월 말 100명을 넘어서게 됐다.

현재 후원을 받는 아이들은 네팔 동부 끝 칸첸중가 기슭 자바 코하바라(Jhpa Kohabara)오지에 위치한 버드러컬리학교 인근 마을에 있는 학생들로, 초 · 중고학생 70명, 전문대학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한국자비공덕회는 2010년 10월 회원 20여명이 불교성지순례를 하던 길에 컴퓨터 10대를 모금해 이 학교를 방문 기증하기도 했다. 컴퓨터가 단 한 대도 없던 학교 측에서는 허름한 창고를 개조하여 컴퓨터 교실을 열었다.

그러나 버들러컬리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전문대학을 포함해 1000여 명이 넘는다. 때문에 컴퓨터를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넘쳐나고 있다.

자비공덕회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네팔 오지 어린이들의 미래교육을 위해 컴퓨터 모금운동을 별도로 벌이고 있다. 30여 대의 컴퓨터를 목표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목표액이 달성되면 내년 말 경 네팔 현지 학교에 전달 할 계획이다.

명조 스님은 "여러분의 정성어린 기도와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비 실천 행으로 더 많은 네팔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자비공덕회 후원: 국민은행 354601-04-080007 (예금주: 자비공덕회) 홈페이지: www.kjb.or.kr (02)905-7175**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이주노동자들, 새해맞이 국기게양식 열어

## 꿈을이루는사람들, 1월 1일 국기게양식 행사 개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갑오년 새해맞이 국기게양식 행사가 열렸다.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1월 1일 구미마하이주민센터앞 잔디마당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이주노동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국기게양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4년 새해를 맞이해 각 국가별 국기를 게양함으로써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건강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외국인쉼터장인 간헬라 산뜨시리 스님은 "구미에는 공단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은데 특히 일할 때 안전에 유의하며 다치거나 재해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쉼터 내 입소자인 란윌러(스리랑카) 씨는 "올 한해에는 한국에 와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좀 더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요즘 한국의 경기가 좋지 않아 일자리가 별로 없는데 빨리 회복돼 모두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기 게양을 하고 있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한편 행사가 끝난 뒤에는 센터 내 법당에서 이주노동자들 법회와 국가별 공동체 모임을 여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꿈을이루는사람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2014년 한 해의 시작을 좀 더 의미 있고 활기차게 열었으며 이주노동자 간의 공동체를 좀 더 활성화하고, 사기증진을 높여 한국에서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비영리민간단체인 '꿈을이루는사람들'은 2000년부터 이주노동자를 위한 직장 내 폭력과 임금체불, 인권침해 예방과 이주민인식개선 캠페인, 한국문화체험, 따뜻한 겨울나기 등 이주민 상담과 통번역 서비스, 마하이주민쉼터를 경북 구미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 태고종, 장기기증 희망등록 동참

## 1월 2일 시무식에서 희망등록 신청서 104장 전달

한국불교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이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에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를 전달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1월 2일 태고종 총무원사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접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그 동안 모은 신청서까지 총 104장을 일면 스님에게 전했다.

도산 스님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기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생명나눔 실천에 함께 하자"고 밝혔다.

일면 스님은 "2014년 새해를 맞아 즐거운 전달식을 마련해 주신 태고종 모든 스님께 감사드린다"며 "사회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편견을 풀고 많은 분들이 인식전환에 함께 하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불기 2558년 신년하례와 시무식에는 태고종 원로회의장 덕화 스님과 부의장 지족 스님, 원로의원 삼학 스님, 중앙종회의장 혜공 스님(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 호법부원장 상묵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사진 왼쪽)이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에게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 104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태고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에는 태고종 중앙종회 의장이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인 혜공 스님의 공로가 컸다.

혜공 스님은 전국 승려연수교육에서 장기기증의 개념, 희망등록 방법, 실제 기증 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설명을 들은 스님들은 각 사찰에서 불자들에게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00명 이상 추천한 공로로 혜공 스님을 장기기증 명예의 전당에 헌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 전화 010-7415-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 “관찰과 사유 생활화… 망념 떨치는 약이죠”

## 승만경연구회 1400일 법회

혜거 스님(금강선원장)

여성이라는 편견을 뛰어넘고 끝없는 수행정진을 한 승만 부인을 닮고자 발족된 승만경연구회가 승만보살 10대원 수행 정진 1400일을 맞았다.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여성불자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 데 기여해 온 연구회의 공덕을 치하하며 혜거 스님은 회향법회에서 앞으로도 승만 부인의 원력을 닮아 보살도 정신이 깃든 이타행을 세상 속에서 실천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리=배현진 기자

### 여왕에 버금가는 승만 부인

승만 부인은 알수록 위대한 분입니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등 이들은 실제 인물이 아니지만, 승만 부인은 부처님 당시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승만 부인은 지상 보살로서 최초 보살입니다. 지상 보살은 용수보살, 마명보살, 무착보살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처님이 열반하신지 700~800년이 보살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새롭게 조명해야 할 분이죠.

3500년 전에 이미 이집트에서 여왕이 있었습니다. 하트셉수트, 이분은 세계 최초의 여왕인데 그 시대 제도상 여자가 왕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옷을 입고 수염을 붙이고 여왕이 되신 분입니다. 정통성없는 왕이라 생각해 왕이 죽은 후 후대인들은 이분의 업적을 없앴습니다.

두 번째왕은 클레오파트라에요. 미모로 남자들의 힘을 빌려 왕을 한 분이죠.

세 번째 왕은 일본의 스이코 여왕입니다. 선덕여왕보다 30년 앞에 있던 왕이었으나 정통성 없기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덕여왕은 세계 역사상 정통성을 부여받은 최초의 왕입니다. 30년 후 중국의 측천무후가 왕위에 올랐지만, 황제라고 칭하지는 않았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도 100여 년 전 합법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만 이분들 중 아무도 승만 부인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은 없습니다.

승만 부인은 파사닉왕의 딸입니다. 파사닉 왕은 불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왕입니다. 아들은 유리태자와 기타태자가 있었죠. 유리태자는 후에 왕이 돼서 인도를 멸망시키죠. 그러나 동생 기타태자는 세계문화유산에 오를 정도로 훌륭한 건축물인 기원정사를 만들었습니다.

딸인 승만 부인은 불교의 대승사상을 뛰어넘는 일승사상을 천명하는 〈승만경〉을 부처님께 서 설하시게 한 분입니다. 모든 경은 부처님이 설하셨지만 〈승만경〉만은 예외입니다. 〈승만경〉은 부처님이 한 말씀이 아닙니다. 승만부인이 한말을 부처님이 인가해 주신 경전입니다. 그렇기에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 경은 〈유마경〉과 같이 출가중심주의, 형식주의 불교에 반대하고, 재가의 수행을 강조합니다.

승만 부인이 이유사국왕에게 시집간 후 그녀의 부모는 편지를 통해 그녀에게 불교에 귀의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승만 부인이 부처님을 찬양하자 곧 부처님이 나타나서 그녀가 미래에 보광여래(普光如來)가 되리라는 수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만 부인은 10대 발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승만 부인의 10대원

첫째,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계율을 범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둘째, 오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셋째, 모든 중생에 대하여 화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가진 것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인색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여섯째, 고통받는 중생들을 성숙시키는데 재물을 쓰겠습니다. 일곱째, 애착하지 않고 싫증내지 않고 걸림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덟째, 고독한사람, 갇힌사람, 병든사람 등 괴로움에 처한 중생들을 잠시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아홉째, 생명경시, 계를 어기는 등의 옳지 못한 일은 막고 받아들일 일은 받아들여, 부처님의 법륜이 잘 굴러가게 하겠습니다. 열번째, 정법을 항상 몸에 지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수행에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오만심입니다. 오만심에는 7가지 만심이 있습니다. 그 중 증상만(增上慢)이라는 마음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안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깨달음 근처에 간 것 같다고 정진을 제대로 안 합니다. 갖지 못한 사람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 역시 탐진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업처발견해 번뇌 끊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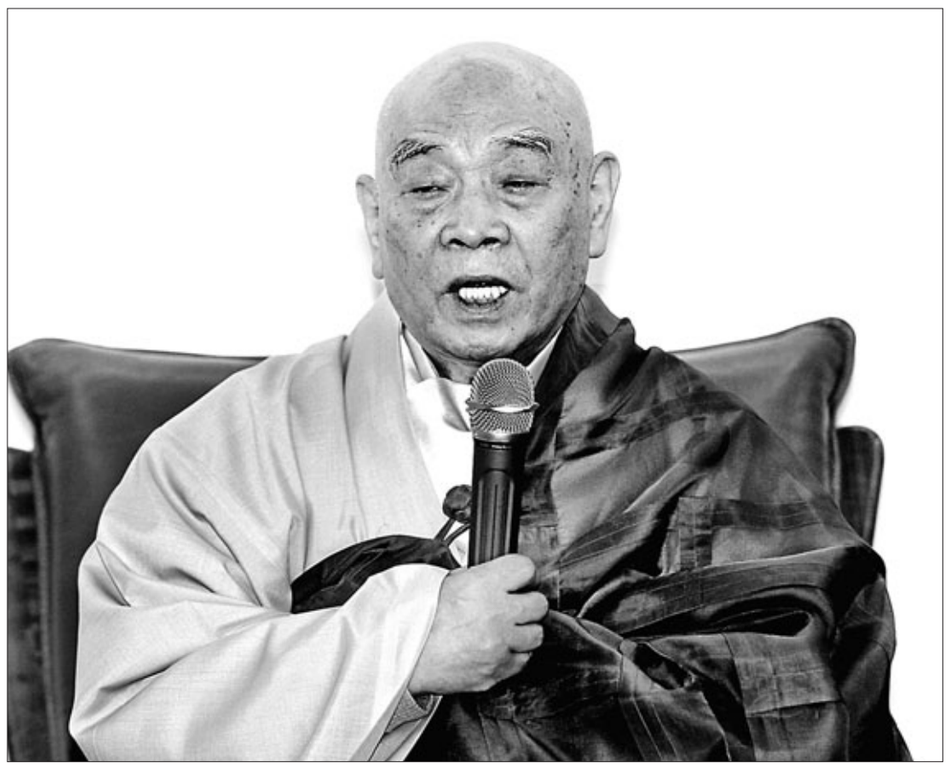
인간이 가진 잘못된 번뇌를 끊어버리는 것에 대해 〈승만경〉은 그 방법을 다양한 방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청정무구한 심성, 근본지는 진여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지닌 채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숨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번뇌때문입니다.

번뇌란 '번요뇌란' 의 줄임말로 무명한 중생의 몸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미혹한 망념을 일컫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망념을 탐 진 치 만 의 악견의 6가지 번뇌로 설명합니다.

금 덩어리가 광산 속에 묻혀있는데 층층이 쌓인 암석안에 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금이 언제 밖으로 나올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근본지가 바로 암석이 둘러싼 금과 같습니다. 수행자가 일승으로 가지 못하는 번뇌죠.

6가지 번뇌 중 탐(貪)이란 모든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남은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 인색하게 구는 것이죠. 그리고 진(瞋)이란 자기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눈을 부릅뜨며 화를 내는, 자기 중심적 마음입니다. 그리고 치(痴)는 어리석음입니다. 눈앞의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볼 줄 모릅니다. 다음으로 만(慢)이란 자신을 높여서 남에게 드러냄으로써 남을 능멸하는 마음입니다. 의(疑)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의심하는 것을 뜻합니다. 악견은 잘못된 견해죠. 이 번뇌를 벗어나야 일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혜거 스님은 … 1959년 삼척 영은사에서 탄허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월정사에서 범룡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받았다. 1988년 금강선원을 개원한 이후 한암대종사문집 편찬위원장,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문화센터 상임법사,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한국전통불교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저서로 '좌선의' '참나' '15분 집중 공부법' '가시가 꽃이 되다' '명상으로 10대의 뇌를 깨워라' 가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 “업을 끊는 방법은 번뇌를 원력으로 바꾸는데 있어 수보리존자는 오만심 해결키위해 자비 수행으로 업 극복해”

연말이 되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삶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되돌아보고 되돌아보면 자기 업처가 발견됩니다.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은 자신에게서 가장 좋지 않은 점,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점, 이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업처를 발견한다는 것도 같은 의미구요. 돌아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만 한다면 쉽게 업처가 발견이 됩니다.

업처를 발견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면 질투란 감정이 솟아나고 화가 나는지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업처입니다. 탐 진 치 만 의 악견 중에 자신의 업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면 되는거죠. 어떤 사람은 화내고 고집부리는 것이 자신의 업일 것입니다. 업은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만개의 마음을 써도 탐,진,치,만,의 다섯가지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얼굴에 묻은 것보다 훨씬 더 더러운 것이 업처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처럼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 내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버려집니다. 깨달으면 즉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없어지는거죠.

마음속의 번뇌를 없애려는 사람은 절대 번뇌를 끊지 못합니다. 절망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번뇌를 원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수보리존자는 오만심을 해결하기 위해 자비관음 수행을 합니다. 그 후 탁발에 나서기만 하면 여러 가지를 쉽게 모으게 되었습니다. 품격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감화받고 친절해졌던거죠. 다른 것은 다 필요없습니다. 자비심이 꽉 차있으면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업처를 해결하기 위한 수보리존자의 방법입니다.

### 현실을 제대로 본다면 악견도 없어

6번뇌 중에 유념해야 할 것은 악견입니다. 악할 악(惡)에 볼 견(見)자를 쓰죠. 잘못된 소견이란 말입니다. 간단한 단어지만 이 속에는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잘못된 종교를 택하면 억겁을 살아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탐 진 치 만 의 5가지보다 악견을 훨씬 더 무겁게 두는 이유입니다. 악견은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망칩니다. 위대한 여성 사상가 승만 보살은 악견을 없애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데 앞장섰던 분이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갈등과 반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연구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좋은 마음을 갖자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한국은 자살률 1위입니다. 2위 나라보다 세배나 높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표류하는데 지치고 더 이상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가 곧 자살입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은 큰 바다에서 표류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디에 닿아야 할지 모르는 거죠. 이를 막으려면 발디딜 자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희망이고 꿈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불구자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길을 제시해주고 꿈을 자꾸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자살하는 이들에게 여기와서 상담하라고 하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 뜻입니다.

악견을 피하는 방법은 지금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경전 구절 하나하나를 지금처럼 세밀하게 보기 시작한 것이 송나라 때 부터입니다. 이전에는 경전을 지금처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글자한자에 천착해 해석이 자유스럽지 못했죠. 경전은 올바르게 이해하면 바로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결코 삶과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누군가 도둑한테 두드려 맞는 것을 보고 설법하셨고 불난 것을 보고 설법하셨습니다. 현장 그대로를 살려 설명하셨습니다. 결코 과거나 예전을 언급하면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경전에만 천착해 지금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본다면 부처님이 답답해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경전을 통해서 원력이 생기게 때문에 경전 공부는 게을리 하면 안됩니다. 불교를 알고자 하는 도반들에게 불교를 온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경전뿐입니다. 자기 말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관찰과 사유

번뇌를 다스리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화를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이, 화가, 얼마만큼 안 일어나는가를 봐야 합니다. 번뇌를 안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관찰이죠.

이 세상의 문화는 관찰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새 발자국을 보고 문자가 발달했으며 거미줄을 본떠 고기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거미줄에 무엇이든 걸리는 것을 보고요. 또한 빈 나무가 물에 뜨는 걸 보고 배를 만들었듯, 문화는 관찰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아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실천력이 있어야 수행입니다. 수행에 있어서의 필수는 관찰이죠. 관찰하면 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관찰이 정밀하면 과학자가 되고 사유가 강해지면 사상가가 됩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사유를 깊게 한 사람들입니다. 사유는 계속 돌이켜볼 줄 아는 것입니다.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도 엄마가 사유하면 답이 나옵니다. 사유란 말에 겁부터 먹고 근사하게 종교적으로 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유는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관찰한다는 것의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관찰의 생활화, 사유의 생활화를 하면 참선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대원불교문화대학 2014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

**대 학** 2년 4학기

■ 모집학과

◐ 불교심리상담학과 (주간 • 야간 / 수 • 금요일)
불교심리학 / 상담심리학 / 발달심리학 / 동 · 서양 철학의 행복론 / 긍정심리학 / 심리치료와 몸 / 실습상담면접기술 등

◐ 명상학과 (주간 • 야간 / 수 • 목요일)
명상과 치유 / 불교명상학 / 불교심리학 / 동 · 서양 철학의 행복론 / 불교와 마음치료 /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 실습 등

■ 입학자격 : 정규 고등학교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 이상을 이수한 분

■ 강의시간 :
· 주간 : 제1교시 14:00 ~ 15:30 / 제 2교시 15:40 ~ 17:10
· 야간 : 제1교시 19:00 ~ 20:30 / 제 2교시 20:40 ~ 22:10

■ 수업료 : 300,000원(학기당)

**대 학 원** 2년 4학기

■ 모집학과

◐ 불교심리상담학과(야간 / 수 • 목요일)
상담심리치료 / 정신병리학 / 불교심리학 / 동·서양 철학의 행복론 / 자아초월과 심리치료 / MBSR·수용전념치료(ACT) 등

■ 입학자격 :
· 본 대학 또는 불교교양대학 관련 과정을 이수한 분
· 정규대학에서 관련 전공으로 졸업(예정)한 분

■ 강의시간 :
· 야간 : 제1교시 19:00 ~ 20:30
제2교시 20:40 ~ 22:10

■ 수업료 : 400,000원(학기당)

▶ 특 전
◐ 장학혜택 : 성적 우수자, 근로장학생 외
◐ 수업료 할인혜택 : 스님, 가족동반 등록(부부,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1인에 한하여) 수업료의 50% 할인혜택

원서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 홈페이지 : www.kbpf.org
◐ 전 화 : (02)707-1072
◐ 팩 스 : (02)3273-1618
◐ 우 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BBS불교방송) 3층 대원불교문화대학

■ 접수 및 전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www.kbpf.org에서 양식다운)
◐ 전형방법 : 서류전형(심사 후 개별통보)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4년 2월 28일까지
◐ 개 강 : 2014년 3월 5일(수)
주간 : 오후 2시, 야간 : 오후 7시

■ 오시는 길 및 문의
◐ 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 문의 :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 (02)707-1072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송정 약사선원 앞에서 달마도 퍼포먼스가 펼쳐져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5000여 부산 불자들은 함께 축제를 진행하며 즐겁게 새해를 맞았다.


범어사 타종식에 앞선 법요식.


부처님 전에 등공양을 올리는 부산시민들

# 부산불교계 시민과 함께하는 해맞이 행사

### 달마퍼포먼스 · 연등공양 등 진행

갑오년 새해를 맞아 부산불교계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나누는 '갑오년 새해맞이 만사형통 나눔 축제'를 개최해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송정 새해맞이 축제조직위는 1월 1일 송정 약사선원 일주문 앞에서 '갑오년 새해맞이 만사형통 나눔 축제'를 개최했다.

기장 동림사(주지 성타), 송정 약사선원(주지 법생), 동명대 불교문화학과(학과장 박재현 교수),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박경수 지사장)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일출 명소 부산 송정 해안로에 해마중을 나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불교문화를 알리고 향유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타 스님, 법생 스님을 비롯해 해마중을 나온 5,000여 명의 시민 불자들이 신명나는 불교전통 문화와 함께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며 환호했다.

해맞이 명소 송정 등대에 위치한 보리선수 약사선원 일주문 앞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는 해맞이 대북공연, 새해 축하폭죽과 해마중 함성,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초대형 달마도 퍼포먼스, 성공과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길상가피와 연등공양, 소원나무걸기, 행운의 복주머니, 떡국 나눔 행사 등 다채로운 새해맞이 행사가 펼쳐졌다.

동림사 주지 성타 스님은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소망하는 이들의 마음속 깊이 자비와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법고소리를 담아주고, 행운과 길상한 한 해를 보내라는 의미에서 초대형 달마도 퍼포먼스를 준비했다"며 "산문에서 안주하는 불교가 아니라, 대중들을 찾아가는 불교, 즐겁고 신명나는 불교문화를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에 대해 말했다.

송정 보리선수 약사선원 주지 법생 스님은 "일출을 보는 모든 시민들이 불법의 문을 들어서는 인연을 통해 자비롭고 행복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일주문 앞에서 축제를 개최하게 됐다"며 "진심어린 불교, 힘들고 아픈 대중들을 찾아가는 불교, 자재롭고 즐거운 불교를 통해 만중생들이 해탈과 지혜를 얻게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역 사찰에서 일제히 새해맞이 타종식 및 해맞이 행사가 진행됐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수불)도 지역 주민과 불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어사 경내에서 새해108타종식 행사와 떡국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는 경내 범종각에서 '2014년 새해 마음살림불사 소원기원 제야의 종 타종식' 행사를 개최하고 갑오년 새해에는 내적 수행을 강조하는 마음살림불사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타종식 행사에서 무원 스님은 "어리석은 마음을 내면 나쁜 말과 행이 나오고, 지혜로운 마음을 내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보인다. 부처님께서 마음불사로 지혜를 구했듯이 마음살림 불사를 통해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세상 이치를 스스로 깨달아서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원만 성취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 경북지역 불교계도 제야의 종 타종과 해맞이 행사를 곳곳에서 개최했다. 대구 동화사(주지 성문)는 구랍 31일 9시부터 경내 대웅전 앞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가진 뒤 자정에 범종을 타종했으며 경주 불국사는 석굴암 광장에 설치된 '통일대종'을 타종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영천 은해사는 제야의종 타종과 탑돌이, 해맞이 산행을 진행했다. 선무도로 유명한 경주 골굴사는 선무도 수련과 동해 해맞이 기도 등으로 꾸며지는 해맞이 템플스테이를 각각 구랍 31일과 1월 1일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노덕현 기자

# 호남불교계, 새해 맞아 생명평화 기원


선운사 사부대중과 불자 등 333명은 선운사에서 도솔암까지 약 3km를 약 4시간에 걸쳐 삼보일배로 정진한 후 도솔암에서 새해 일출을 맞았다.

### 고창 선운사, 도솔암까지 삼보일배
### 금산사, 군산 은적사는 해넘이법회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가 삼계의 모든 생명평화를 기원하는 참회와 정진의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선운사 대중스님들과 불자, 일반 참가자로 구성된 333명의 삼보일배 정진단은 선운사 지장보궁에서의 참회기도를 시작으로 참당암에서의 생명 평화를 기원하는 화합과 소통, 도솔천 내원궁에서는 고통을 여의고 진정한 평화에 이르기를 발원하며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삼보일배 정진단은 범종각에서 각자의 소망을 기원하는 범종 타종 후 선운사에서 도솔암까지 약 3km의 거리를 삼보일배로 전진하며 천, 지, 인의 모든 생명의 평화를 기원했다. 천장, 지지, 인장 지장보살이 상주하는 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선운사는 지장보궁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는 사바의 참회기도를 시작으로 참당암에서는 모든 생명의 평화를 기원하고 화합과 소통의 정진을, 도솔암 내원궁에서는 모든 생명이 고통을 여의고 평화의 세상에 이르도록 기원하는 발원의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회향 후에는 갑오년 새해 해맞이 행사도 진행됐다.

법만 스님은 "나와 이웃,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지금 이 순간이 과거의 업장을 녹이고 미래와 다른 생명의 평화를 기원하는 현재의 마음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동력이 될것이다"며 "새해에는 모든 생명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희망의 삼보일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는 12월 31일 군산 은적사에서 사중 대중이 모두 함께하는 해넘이 법회를 봉행했다.

금산사 대중스님들과 전주, 익산, 김제의 불자 500여명은 탑돌이를 하며 다사다난했던 계사년의 신행활동을 마감하고 갑오년 새해 전북불교 발전과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성우 스님은 계사년 한해동안 불자들의 전법활동과 신행활동의 노고를 치하하고 "행복은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신심과 열정으로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사에서는 일감 스님의 진행으로 내비둬 콘서트가 진행됐으며 갑오년 새해 아침 모악산정상에서 새해맞이 산행도 개최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문빈정사 불교서적' 광주시 유형문화재 지정

'광주 문빈정사 소장 전적'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로 지정고시됐다. 구랍 24일 열린 문화재위원회는 문빈정사가 소장하고 있는 전적(典籍) 11종 12책 대부분 임진왜란 이전에 간인된 판본으로 간행지와 간행시기에 대한 기록이 정확해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밝혔다.

특히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초간에 가깝고,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는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판본이다. 광주 동구는 이번 지정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오층석탑 등 6점의 국가지정 문화재 및 증심사 삼층석탑 등 17점의 시 지정 문화재와 전라남도 도청 구본관 등 3점의 등록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제주불자들, 불교문예지 〈혜향〉 창간




제주불교문인협회(회장 조명철)가 최근 협회지 〈혜향(慧香)〉 창간호를 출간하고 구랍 27일 제주시 하니크라운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제주불교문인협회는 불교 문학과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창립됐다.

〈혜향〉 창간호에는 도법 스님의 '21세기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 법문과 오영호 시인(봉려관선양회장)의 고승열전 '봉려관 스님의 행적기' 등이 실렸다. 이밖에도 회원들의 작품이 풍성하게 수록됐다. 제주불교문화협회는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문예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회향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중법회인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가 한달 간의 일정을 회향했다. 영축총림 양산 통도사(주지 원산)는 구랍 31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사부대중 1만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의 회향법문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세계와 우주가 하나이니,이러한 근본 이치가 세계화될 때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토사 화엄산림법회는 지난 1971년 극락암에서 경봉 스님이 마련한 화엄법석을 시초로 해마다 열리고 있다. 연인원 20만 명 이상이 동참하는 우리나라 최대 대중법회로 꼽힌다. 통도사는 구랍 3일 설법전에서 방장 원명 스님의 입재법문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지식들의 릴레이 법문을 진행해왔다.

노덕현 기자

# 화성 용주사 8일 효 · 예 지도사 졸업식

수원 용주사(주지 정호)는 1월 8일 오후 2시 용주사 효행문화원에서 제1회 효 · 예 지도사 졸업식을 진행한다.

용주사는 조선 정조 대왕의 효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사회의 효행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6월 효행과 예절 전문교육 지도사 양성 과정을 개설했다. 용주사는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동국대 평생교육원과 협약을 체결한 뒤 교육과정을 개설한 바 있다. 효 · 예 교육지도사 양성교육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효와 예절,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과정으로 제1기생 50여 명은 6개월간 총 12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노덕현 기자

# 고판화박물관, 1월 30일까지 목판달력전

국내 유일의 판화박물관인 원주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관장 한선학)은 1월 31일까지 목판화 달력 전시회를 연다.

목판화 달력 전시회는 박물관의 문화형 템플스테이인 '숲 속 판화학교' 참가자들의 작품들을 모은 것으로, 숲 속 판화학교에는 지난 1년 동안 지역민들을 비롯한 4500여 명의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해왔다.

고판화박물관은 한선학 관장이 동양 각국의 고판화 자료들을 수집해 전시하는 곳으로 목판 원본 2000여 점을 비롯해 고판화 작품 300여 점과 목판 서책 700여 점 등 모두 4000여 점이 소장돼 있다.

노덕현 기자







탑의 진화
① 불탑의 기원

# 범마나 비바시불탑 횃불로 비춰 광명 얻어

**불탑의 기원 석가모니불 이전일 수도**
**과거불 불탑조성 기록 경전에**
**불자외 제석천도 불탑 건립 주체**

**불탑의 의미 '종교적 의미' 커**
**부처님 머리카락, 손톱 봉안한 발탑·조탑**
**부처님 돌발우 불탑으로 생각하기도**

### 석가모니불 열반 이전의 탑

일반적으로 불탑이란 석가모니부처님의 유골인 사리가 봉안된 성스러운 건조물을 말한다.

그러나 반드시 석가모니부처님의 사리탑을 불탑의 기원이라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실존 여부를 밝힐 수는 없지만, 경전에는 수없이 많은 과거불의 열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과거불의 불탑을 조성하였다는 기록이 경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석가모니불 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리불과 목련존자에 대하여도 사리탑을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석가모니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봉안한 발탑과 손톱을 봉안한 조탑 등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경전에 전해진다.

더불어 석가모니불이 출가하기 전 태자로 지내던 시절에 기적 같은 놀라운 행동을 보이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러 장자 등이 불탑을 조성하였다는 경전의 기록이 있다. 이런 내용들은 불탑이 인도 전래의 장례법을 수용한 것으로 석가모니부처님의 열반 직후 조성된 사리탑을 불탑의 기원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이다.

#### 1) 과거 부처님의 탑

과거불이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과거세에 출현하였던 모든 부처님을 말하는데, 경전에 따라 과거7불, 과거35불, 과거53불, 과거천불 등 다양한 경설이 있다. 이러한 과거불이 입멸하면 당연히 불탑이 건립되었는데, 〈장아함경〉 중 '유행경'에는 석가모니불의 제자 아난이 범마나 비구가 큰 광명을 지니게 된 이유를 물으니, 석가모니불은 범마나 비구가 과거 비바시불의 탑을 횃불로 비추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대정신수대장경 1권 21쪽 중단〉

또, 〈육도집경〉 '보시도무극장'에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전생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여기에서도 불탑을 조성한 공덕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 불심이 깊고 덕을 많이 쌓은 사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100명이나 되었다. 백명의 아들 중 99명은 모두가 한 결 같이 출가하여 연각의 경지에 올랐으며, 한 명은 왕이 되었다. 이 왕이 백성들을 위하여 '탑을 세우고 절을 짓고 스님들에게 공양하며 경을 외우고 불법을 논하였더니, 입에는 4악(망어, 기어, 악구, 양설)이 없어지며 수명이 길어졌다.(〈대정신수대장경〉 3권 14쪽 하단)라는 내용이 전하며, 〈보살본연경〉의 '토품'에는 석가모니불이 전생에 토끼의 몸으로 태어나 죽게 되었다. 이 때 한 바라문이 다음 생에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며, 토끼의 몸을 땅 위에 놓고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아기를 안고 곧바로 죽은 토끼와 함께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때 제석천이 이 일을 알고는 크게 공양을 베풀고 뼈를 거두어서 탑을 세웠다. (〈대정신수대장경〉 3권 66쪽 중단)

이 경설에서 주목할 내용은 과거세 불탑의 건립 주체는 불자들만이 아니라 제석천도 조탑 주체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제석천이 바라문의 보시행에 감복하여 그를 위하여 탑을 건립하였다는 것은 불탑의 종교적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설월광보살경〉에 의하면, 석가모니부처님은 전생에 월광왕이었다. 그에게는 대월과 지지라는 신하가 있었다. 어느 날 악안이라는 심술궂은 바라문이 찾아와 월광왕의 목숨을 요구하자 왕은 자기의 머리를 보시하고자 하였다. 이때 대월과 지지는 왕이 신하들 앞에서 스스로 죽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왕 앞에서 먼저 목숨을 끊었다. 이에 왕은 애통해 하는 다른 신하들에게 "나는 죽어서 부처가 되어 중생을 구제하고 싶으니 죽으면 탑을 세워 공양하라"고 하였다. 왕이 스스로 죽자 신하들은 전단향나무로 그의 시신을 태워서 사리를 거두어 마니동산 및 네거리 길마다 탑을 세워 항상 공양하였다. 많은 중생이 이 동산의 탑 앞에 이르면 예경하고, 목숨을 마친 뒤에는 6욕천 및 범천에 태어났다고 설한다. 이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월과 지지는 사리불과 목건련이고, 악안 바라문은 제바다타의 전생이라고 말한다. (〈대정신수대장경〉 13권 8쪽 상단)

이 경설에서 알 수 있듯이 석가모니부처님은 전생에 왕이었을 때 신하들에게 불탑을 조성하여 예경하라고 설함으로써 불탑 조성이 과거불로부터 계승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 2) 석가모니부처님 재세 당시의 탑

경전에 의하면, 과거불의 탑 이외에도 석가모니부처님 재세 시에 여러 가지 인연으로 탑이 조성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불본행집경〉 '관제이도품'에는 '싯다르타 태자가 출가할 때 상투를 자르던 곳, 몸에 가사를 걸치던 곳과, 차익과 건척이 되돌아간 곳에 탑을 세웠다.(〈대정신수대장경〉 3권 745쪽 상단)' 라는 내용이 전한다.

이 경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탑이 반드시 사리를 보관하는 용도로만 건립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즉, 할계탑, 가사탑, 차익건척회환지탑처럼 출가를 기념하는 장소에도 탑을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싯다르타 태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고행정진 하다가 고행만이 답이 아니다! 현악기의 줄이 너무 강하게 당겨지거나 너무 느슨하면 좋은 소리가 날 수 없다며, 수자타 여인의 유미죽 공양을 받을 때, 함께 수행하던 다섯명의 수행자들이 더 이상 태자를 믿지 않고 그 곁을 떠나게 된다. 그 후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녹야원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다. 이때 그를 떠났던 다섯 수행자들은 태자를 길거리에서 만나게 된다. 이미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된 태자를 만나 뵙고 그들은 크게 환영하였다. 이 장소에 부처님을 환영한다는 의미의 영불탑을 조성하였다. **〈사진1 참조〉**


〈사진1〉
부처님이 된 싯다르타 태자를 길에서 처음 만난 오비구는 부처님을 환영한다는 의미의 영불탑을 조성했다. 차우칸디스투파라고 불리는 이 탑은 인도 사라나트 고고학 박물관 앞에서 약6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사진2〉
인도 비하르에서 동쪽으로 약 11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케사리야 발우탑은 부처님의 발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탑이다.

차우칸디스투파라고 불리는 이 영불탑은 인도 사라나트 고고학 박물관 앞에서 약 600미터 떨어진 지역에 있다. 이 탑은 원래 굽타왕조(4-6세기)시기에는 벽돌을 주재료로 하여 여러 층을 이룬 사각형의 사원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1567년 무굴제국의 황제 아크바르가 1532년에 그의 아버지 후마윤이 이 탑을 방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탑 정상에 이슬람 건축양식으로 8각형의 구조물을 추가로 조성한 것이다. 그 이후 폐허로 된 것을 1934년경 영국의 유명한 고고학자인 알렉산더 커닝햄 등에 의해 발굴되어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다.

석가모니부처님 재세 시에 부처님이 직접 탑을 조성한 예도 경전에는 기록되어 있다.

〈불본행집경〉 '보시죽원품'에는 부처님이 5백 나한들에게 설법하자 모두가 열반에 들고 스스로 다비하였다. 그러자 허공에서 사리가 떨어지고, 부처님은 사리를 수습하여 탑을 조성하려고 하였다, 이 때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을 도와 진흙과 돌로 탑을 만들었다. 이때 부처님은 신비한 손과 그물 무늬의 손가락으로 친히 돌을 쌓아 탑을 완성하였다.(〈대정신수대장경〉 3권 857쪽 상단)라는 내용이다.

이 경설의 특징은 석가모니부처님이 탑을 조성하려고 하자 모든 비구들이 부처님을 도와 탑을 함께 건립하였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대승열반경〉의 '비구는 탑 조성에 관여하지 말라!' 라는 경설과 상반되는 것으로 주목이 된다.

한편, 석가모니부처님이 여러 지방을 순회하는 사이에 부처님 대신에 공양해야 할 대상에 대하여 부처님은 자신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주어 발탑· 조탑을 조성하는 방법과 공양법을 설한 내용이 〈십송률〉 제48권에 전한다.

급고독 장자는 부처님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받고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 탑을 조성할 것을 요청한다. 이에 부처님은 발탑과 조탑의 건립을 허락한다. 또한, 탑을 조성하는 원칙 몇 가지를 설하시는데, 남녀의 교합상을 제외하고 벽을 적색·흑색·백색으로 칠하고, 말뚝을 박아 일산을 고정시키며, 소·사슴·원숭이·개 등이 탑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대정신수대장경〉 23권 415쪽 중단)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조성된 발탑과 조탑의 조성 의미에 대하여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원시종교에서는 숭배대상으로 죽은 사람의 유골 외에 모발이나 손톱을 특히 중요시하는 풍속이 있었다. 또 생시에도 모발이나 손톱에는 갖가지 터부(taboo)가 있고, 그것들을 잘라 내버리는 것은 어떤 종교적 의례와 연결되기도 한다. 즉 잘린 모발이나 손톱은 그대로 버려서는 안 되고, 사당이나 묘지, 또는 나무 아래 등에 숨겨 묻기도 하였다. 이처럼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 시에 건립된 발탑과 조탑의 탄생 배경에는 종교적 의미가 내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 시에는 다양한 불탑이 건립되었는데 그 중에는 부처님의 발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발우탑의 경우도 있다.

현재 인도 비하르에서 동쪽으로 약 11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케사리야 발우탑**〈사진2참조〉**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 직전 발우를 신도들에게 전해주자 주민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리고자 벽돌을 주재료로 발우탑을 조성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 탑은 둘레가 약 430미터 높이는 약 46미터에 달하였으나, 1934년 지진으로 인하여 지반이 가라 앉아 현재는 약 32미터의 높이를 보이고 있는 거대한 탑이다. 1998년 내부 발굴 당시 많은 유물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발우탑은 우리나라에서도 불보 사찰인 양산 통도사 경내의 봉발탑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방광대장엄경〉제24품인 '상인몽기품'에 의하면, 싯다르타 태자는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여 7일이 지난 후 목욕하고 42일 동안 바라나시를 향하여 걸었다. 이때 지나던 상인들이 부처님에게 금발우나 칠보발우에 음식을 담아 공양을 올리자 부처님은 공양받기를 모두 거부하고 오직 사천왕만이 올린 돌발우에 공양을 받는다. 그 이유를 묻자 부처님께서는 이 돌발우는 일찍이 하늘의 청신천이 사천왕에게 준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더불어, 변광천신은 사천왕에게 이 발우는 미래 부처님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불탑으로 생각하고 공양하라고 하였다.(〈대정신수대장경〉 3권 692쪽 상단)

이 경설의 내용에 따라 돌발우를 불탑으로 생각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인 신앙으로 표현한 것이 통도사 봉발탑인 것이다. 즉 가섭 존자가 석가모니부처님의 가사와 발우를 가지고 계족산에서 미륵불을 기다린다는 미륵신앙에 의하여, 용화전 앞에 조성된 것은 당연한 신앙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필자 우인보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불교학과와 교육대학원(종교교육)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불교미술(석사)을 수학했다.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사학과(박사)를 수료하고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화예술학(박사)과를 졸업했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법사단장, (사)불교사상연구회 이사, 불탑사상연구회 회장, 동국대부속여고 교학실장, 조계사 불교대학 강사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탑과 신앙〉, 〈불교네비게이션(공저)〉, 〈청소년 불교입문(공저)〉, 〈대자유인선사(공저)〉 등이 있다.

KS정품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연등전선 전문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와 계약 체결로
KS정품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Ø



방수전선-22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8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1.5m / 6cm연등

방수전선-25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8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2.5m / 8cm연등

방수전선-30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8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5m / 8cm연등



방수전선-50cm
할인가 70,000원 (5줄이상)
정 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25m / 13cm연등



방수전선-1m
할인가 90,000원 (5줄이상)
정 가 10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50m / 야외용



방수전선-2m
할인가 90,000원 (5줄이상)
정 가 100,000원
• 방수전선 1줄 : 25구
• 길이 : 50m / 야외용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100개 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금강경탑다라니
할인가 160원(600개 이상)
정 가 2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한지입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cm / 9×14cm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 밀 대 (70개입) @90,000원 (2BOX이상)
• 돈타레 (40개입) @90,000원 (2BOX이상)
• 원기둥 (20개입) @90,000원 (2BOX이상)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등 할인가

• 바림등(6cm) @2,700원 (50개이상)
• 바림등(8cm) @3,200원 (50개이상)
• 바림등(10.5cm) @6,000원 (24개이상)
• 바림등(13cm) @13,000원 (12개이상)
• 바림등(20cm) @35,000원 (4개이상)
• 바림등(30cm) @80,000원

• 공단등(6cm) @2,700원 (50개이상)
• 공단등(8cm) @3,200원 (50개이상)
• 공단등(10.5cm) @6,000원 (24개이상)
• 공단등(13cm) @13,000원 (12개이상)

• 비닐만월등(중국100개) 150,000원
• 비닐만월등(국산100개) 170,000원
• 영가만월등(100개) 200,000원
• 장 만 월 등(100개) 200,000원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
• 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등철사(100개)
6cm 75,000원 / 8cm 80,000원
10.5cm 85,000원 / 12cm 90,000원



국산 LED전구
100,000원
1BOX : 5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안전 인증 제품

전구(10W/5W)
@250원/@350원
1BOX: 100개
제조원: 베트남



연잎(일반)/바림엽잎
6,000원/ 8,0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집게부착 / PVC등표(100개)
20,000원 / 12,000원
크기: 8.5×21cm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515-8888-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한국의 구법승
1. 혜초 스님

# 부처님 가르침 쫓아 전인미답의 길을 걷다

**연재에 들어가며**

부처님 법을 쫓아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걸어간 스님들의 전통이 있다. 한국 역사에 있어 이런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경지를 개척한 이들을 우리는 구법승(求法僧)이라 부른다. 온갖 위험이 기다리고 있던 미지의 세계에 그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깨우쳐갔다. 21세기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새롭게 접하고 있다. 옛 구법승들의 치열한 인간 극복의 현장에서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①사막을 횡단하는 실크로드 상인들의 모습. 혜초 스님의 구법행은 이같은 험난한 길을 통해서였다. ②디지털로 복원한 혜초 스님의 인도 마하보다 대탑 순례 상상도. ③2011년 1월 왕오천축국전을 친견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스님들 ④중국 서안에 있는 혜초 스님 기념비 ⑤평택에 있는 혜초 스님 기념비 ⑥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된 돈황 석굴

## 15세 소년 혜초의 세계사 유례없는 도전정신

구법승 중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는 바로 〈왕오천축국전〉의 저자 혜초 스님(704~787년)일 것이다.

당시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불국토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불국토를 꿈꾸었던 15세의 혜초 스님은 719년 구법행을 결심한다. 그가 먼저 선택한 곳은 중국 당나라였다. 혜초 스님은 해로를 이용해 광저우(廣州)에 도착했다.

중국은 불교 선진국이었을 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아시아 전반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선진문물, 특히 불교문화를 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당나라로 가는 길은 험했다. 교통로는 육로와 해로로 나뉘는데 해로가 더욱 선호됐다. 육로의 경우 고구려 고토(故土)를 지나 만주 · 요동성 등을 경유하는 길이었다. 8세기 고구려 멸망 이후 발해가 있었지만 이 지역은 숱한 이민족들의 각축장이었다. 따라서 육로 여행은 상당히 위험하였고, 신라와 당나라의 교역은 주로 해로가 이용됐다.

당나라에서 혜초 스님은 천축(인도의 옛 이름) 나란다사 출신 밀교승 금강지(金剛智)를 만난다. 금강지는 중국 밀교의 초조(初祖)가 된 스님이다. 약관의 나이에 밀교를 접한 혜초 스님은 천축 본토로의 구법행을 결심한다.

밀교는 깨달음을 위해 그 자체의 진언과 주술을 강조하는 후기 대승불교의 흐름으로 당시 중국은 밀교에 심취돼 있었다. 19세이던 723년 경 혜초 스님은 '떠날 때는 100명이나 돌아온 자는 한 명도 없다' 는 그 길을 통해 인도로 갔다.

〈왕오천축국전〉 내용을 보면 혜초 스님은 해로를 통해 갔다가 육로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왕오천축국전〉은 앞과 뒤 일부분이 결손된 상태인데 남은 부분의 시작은 오천축(五天竺) 중 중천축(中天竺)에서부터 시작한다. 당시 인도는 굽타왕조의 붕괴 이후 여러 제국들로 갈라져 있었다. 혜초 스님은 특정나라에 대한 묘사보다는 인도를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누고, 거기에 가운데를 첨가해 다섯으로 구분했다.

〈왕오천축국전〉에서 북천축에 이어서는 인도 외 지역으로 이어져 중국 쿠챠까지 진행되기에 육로로 귀환한 것은 확실하다. 없는 앞부분은 동천축으로 추정되는데 혜초 스님은 동천축까지 해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혜초 스님이 당시 해운의 중심지인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한 것과 〈왕오천축국전〉에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용어가 인용되기도 하는 점이 그 근거로 꼽힌다. 혜초 스님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도착해 1년 동안 기후에 적응하며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고 난 뒤 동천축에 도착했다는 설도 있다.

여하튼 혜초 스님의 인도로의 구법행은 당시 항해술로는 목숨을 건 대장정이었다. 725년 초 동천축에 도착한 혜초 스님은 그때부터 4년 동안 인도 전역을 돌며 붓다의 탄생지, 득도처, 최초의 설법지, 최초의 절, 열반지 등을 돌아보았다. 특히 스님은 마하보리사 대탑을 비롯한 8대 영탑을 참배하고 기록으로 남겼는데 8세기 당나라 불교계에서는 밀교승들을 중심으로 이 순례가 수행 일환으로 강조된다. 혜초 스님은 이러한 수행풍을 선도했다.

마하보리사 대탑을 보고자한 원을 이룬 혜초 스님의 기쁨은 〈왕오천축국전〉에 오언시로 남아있다.

**不慮菩提遠 보리사를 멀다고 걱정치 않았는데,**
**焉將鹿苑遙 어찌 녹야원을 멀다고 걱정하리오.**
**只愁懸路險 단지 두려운 건 낭떠러지 험한 길뿐,**
**非意業風飄 거센 바람 불어와도 개의치 않노라.**

스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스님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옛 소련의 국경 지대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와 파미르 고원 등 총 8년에 걸친 만행을 이어간다. 혜초 스님이 중국으로 돌아온 길은 바로 실크로드였다. 육로로 실크로드는 해로에 버금갈 만큼 험했다. 편도에 약 2년이 걸리는 악조건이었다. 그 당시의 교통수단과 환경 등을 짐작해 볼 때 한마디로 스님의 구법순례는 죽음을 담보한 것이었다.

## 혜초 스님의 역작, 〈왕오천축국전〉

혜초 스님은 사막과 설산의 산맥을 건너 중국 장안으로 돌아오며 중요한 불교성지를 정확히 기록했다.

**15세 당 · 19세 인도로 떠난 청년정신**
**8대 영탑순례 등 당대 문화 선도**
**신라서 태어났지만 '세계인' 으로 활동**

당나라 장안에 이르는 쉬지 않고 지속된 수만리 여정에서 혜초 스님은 인간의 삶 속에 다양한 모습을 기록했다. 하지만 혜초 스님의 여행기 〈왕오천축국전〉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불과 96년 전의 일이다. 1908년 둔황에서 프랑스 학자 펠리오가 찾아낸 〈왕오천축국전〉은 제목과 앞부분이 떨어져나간 길이 358.6㎝의 잔편 두루마리였다. 혜초 스님은 인도의 불교성지에 대해 〈왕오천축국전〉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그러나 불교의 대승이나 소승이 각각 어느 정도 행하여지고 있는지를 비롯해 전쟁에 관한 기록, 또 방문한 나라의 지리, 정치, 사회계급, 재판 등의 모습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또 인도뿐 아니라 티베트 · 페르시아 · 아프가니스탄 등에까지 서술해 중요한 사료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 오언시가 다섯 편이나 실려 있어 다른 여행기들과는 달리 '서정적 여행기'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만km 여정의 초인적 발걸음과 조용한 회향

혜초 스님은 왜 그 험난한 구도의 여정을 떠났을까? 혜초 스님의 구도행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째는 스님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다. 수년 동안 스님이 초인적인 발걸음을 지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전심전력의 서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탐구열이었다. 특히 인도의 대승문헌들을 구해서 한문으로 옮기는 일은 당시 학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은사인 금강지가 있었던 인도 중부 나란다사는 6 · 7세기 세계 최대 불교대학으로 5만 명의 승려가 수학할 정도였다고 한다. 혜초 스님으로서는 그 학풍을 견학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소득이 있었다.

혜초 스님은 727년 서안에 도착해 총 2만 km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여전히 30세 전후의 젊은 나이였다. 귀국 직후 스님은 경전번역에 매진한다. 서안 천복사(薦福寺)에서 스승 금강지와 함께 필수(筆受)의 역할을 맡아 밀교경전 〈대승유가금강성해만수실리천비천발대교왕경〉(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의 번역에 들어갔다.

혜초 스님은 천축 구법행을 통해 얻은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지식과 문화적 배경을 통해 이 일을 담당했다. 그러나 그 이듬해 가을에 금강지가 입적하며 번역 사업은 중단된다.

금강지 입적 후 혜초 스님은 그의 제자였던 불공에게 다시 밀교 경전을 배운다. 혜초 스님과 불공은 동문수학의 처지지만 불공이 인도사람이고 또 연령차이가 상당했기 때문에 스스럼없이 법제자로 다시 입문하게 된 것이다. 혜초 스님이 불공으로부터 배우며 다시 역경을 시작한 것은 774년 가을 대흥선사(大興善寺)에서라고 기록돼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이미 불공은 대흥선사(大興禪寺)에서 입적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연대의 혼란이 보인다.

불공은 입적하며 유지를 통해 밀교를 널리 펼 6대 제자 중 두 번째 제자로 혜초 스님을 거명했다. 불공은 혜초 스님에게 자신의 법을 이으라는 유촉을 남겼고, 또 혜초 스님에 대해서는 '신라인' 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중국 밀교의 법맥은 금강지-불공-혜초로 이어진 것이다.

불공이 입적한 직후, 혜초는 자신의 동문, 제자들과 함께 황제에게 표문을 올렸다. 스승의 장례에 대한 감사였고, 또 불공이 세운 이 사찰을 존속시켜 달라는 청원이었다.

혜초 스님의 표문은 받아들여졌고, 그 후 스님은 몇 년을 장안에서 보냈다. 780년 경 혜초 스님은 오대산으로 거처를 옮겼다. 오대산은 불공이 오래 머물던 곳으로 불공의 수제자 함광(含光) 스님, 즉 혜초 스님의 사형이 머무는 곳이었다. 혜초 스님은 그의 만년을 오대산에 있는 건원보리사(乾元菩提寺)에서 보냈다. 여기서 그는 오래 전 필수를 맡았던 〈천비천발대교왕경〉 한역을 다시 시도해 한역본을 다시 채록했다.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없으며 787년에 이곳에서 입적하였다.

## 한국을 넘어선 '세계인 혜초', 재조명 시작

한편, 불공의 유촉에도 '신라인' 으로 명시된 혜초 스님은 80여 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결국 신라로는 돌아가지 않았다. 중국에서 밀교 경전 연구에 전념했을 뿐이었다. 고국 신라 땅이 그리웠으나 그는 이미 세계인이었기에 국경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러한 세계인으로서의 혜초 스님의 가치는 최근에서야 한국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신라에서 기록이 미미했기에 혜초 스님이 신라인이란 사실이 알려진 것도 최근이다. 국내에서는 1943년 최남선이 원문에 우리말 해제를 붙이면서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게 됐다.

2001년 6월에는 이를 기리기 위해 서안 주지현에 '신라국혜초기념비' 가 세워졌으며 조계종에서 보수를 지원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실크로드의 기점으로서 경주를 주장하며 혜초 스님을 선양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실크로드 프로젝트' 일환으로 경주와 이스탄불을 연결하는 5개국 6개소에 혜초 스님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설치하고 있다. 2013년 2월과 11월 경주시는 혜초 스님의 루트를 따라 중국 시안을 거쳐 터키 이스탄불까지 육로 탐사대와 중국 광저우를 거쳐 인도 콜카타와 이란 반다르아바스에 이르는 해양 탐사대를 파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해양 물류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평택시는 2009년 5월 'UN 실크로드 메이어스 포럼' 을 개최하며 혜초 스님이 광저우로 출발한 옛 나루터 자리에 '혜초 기념비' 를 세우기도 했다. 종립대학인 동국대도 2011년 교수와 학생 20명으로 구성된 동국혜초원정대를 구성하고 실크로드 탐방을 진행했다.

최근 학계에서는 혜초 스님의 해로와 육로를 통한 여정에 대한 새로운 학설이 활발히 이뤄지며 다시금 혜초 스님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세계적인 불교학자인 루이스 랭카스터 美버클리대 명예교수는 2013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국제인문 · 문화축제에서 '혜초의 구법여행과 대순환로' 발표를 통해 "혜초 스님이 신라에서 인도로 해상으로 간 뒤 내륙을 거쳐 중국으로 돌아온 것을 보면 육로와 해로가 함께 묶인 대순환로로서 실크로드가 있었다"며 육로에 한정된 실크로드에 대한 관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혜초 스님은 1300여 년 전 16세의 나이로 당나라로 또 19세에 인도로 30세까지 불굴의 의지와 거칠 것 없는 도전정신으로 당대의 역사문화를 탐구했다. 이러한 스님의 끝없는 도전정신은 현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고 있다.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 우리가 지금 허공중에 있어요

## 허공법문 ②

이제부터 허공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허공 속에서 살면서 허공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 불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육신이 허공 속에 살고 있어요. 허공을 여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허공 그만 무시하고 있거든. 또 허공 뿐 아니라 이 땅덩어리도 무시하고 있어요. 이 지구덩어리가 허공에 둥둥 떠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느냐 말이야. 이거 하나도 생각 안 해. 왜 그러냐. 바로 내가 허공에 있거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색신으로서인 여러분이 아니고 허공으로서인 여러분이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참 중요한 일인데, 허공을 그만 무시해 버려. 우리가 허공으로 더불어서 같이 나가는데 허공을 무시하니 도대체 이건 상식 밖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참말로 인간 이상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왜 어리석냐. 허공 속에 있으면서 허공을 무시해 버려. 땅에 발을 거닐고 있으면서 집도 짓고 하면서 무시해 버리거든. 우리가 직접 관계가 있는, 절대 관계가 있는 엄연한 사실. 이 허공, 이거 엄연한 사실이거든. 엄연한 사실을 갖다가 무시해 버리고 어찌 우리의 생사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말이여.

따라서 허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안 해 볼 도리가 없거든요. 하니까 허공부터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허공 속에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허공이에요. 알고 보면. 이 집은 허공성 아닌가? 이 지구, 이거는 허공성 아닌가? 또 우리 몸뚱이도 이건 허공성 아닌가? 우리 몸뚱이도 허공성이기 때문에 자꾸 변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져서 나중에 한 살 두 살 세 살 열 살 스무 살, 이래서 국민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사업도 하다가 흰 머리털도 나고 쭈글쭈글 해서 나중에 흙구덩이로 가고 불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허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허공성이 아니고 그대로 있다면 어린애는 영원히 어린애, 늙은 사람은 영원히 늙은 사람, 변하는 것이 없어요. 눈도 뜬 대로 가만히 바람도 불다가 가만히 구름도 가다가 가만히 손도 이래 든 채로 가만히. 손 이래 이래 하는 것도 전부 변하는 도리 아니에요? 눈 깜빡깜빡하는 것. 내가 성품이 없는 이 입을 통해서 허공성이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입이 얘기한다 이리 하고 있어요. 입이 얘기하는 걸 여의지 않기는 했어. 허나 입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혓바닥이 무슨 성품이 있던가요? 이 입이 성품이 있던가요? 이거는 무형무색인 진짜 나. 진짜 나는 법신자리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놈이 들어서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뭘 보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뭘 듣고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허공이 생각한 것을 의사발표할 뿐이지. 이거 내가 말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허공이 도대체 얼마나 크냐 적냐 이것부터 생각합시다. 모습 있는 거. 지구도 모습이 있는 것 내 몸도 모습이 있는 것 태양도 모습이 있는 것. 이런 모습이 있는 걸로 비한다면 허공 제일 큰 거예요. 여기 크다고 써 놨어요. 다른 말

> **몸뚱이도 허공성 때문에**
> **자꾸 변하는 거예요.**
> **생사 문제를 풀려면**
> **허공 문제 해결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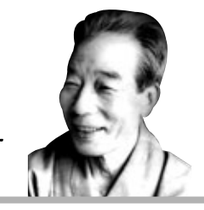
을 하기 위해서 써놨는데, 실은 허공 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큰 거예요. 만약 크다는 말마디에 우리가 달려들면 얼만큼 크다는 말이 딱 나와야 됩니다. 크다 적다 하면 얼만큼 크다. 얼만큼이란 이것이 있어야 크다는 말이 딱 적합해요. 적다 하면 얼만큼 적다는 것이 있어야 딱 적다는 말이 되는데. 실은 허공이란 것은 얼만큼이란 것을 지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도 가도 끝없는 것이 제일 크다 이렇게 하겠는데, 실에 있어서는 크다는 말을 떠난 자립니다. 크다 적다 하는 걸 떠나서 큰 거예요. 크다 하면 얼만큼 크다 하는 것이 딱 그대로 수치가 나옵니다. 요새말로 서양말 많이 쓰대. 어느 미리쯤 적다는 말이 딱 나와요. 그러나 이 허공은 크다 적다는 말이 이미 떨어졌어. 그것도 붙지 안 해. 크다는 말도 붙지 않고 적다는 말도 붙질 안 해. 한정이 없이 큰 거예요. 이 허공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허공중에 있어요. 솔직한 말로 색신 이거 성품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집, 나무, 전부 허공성이에요. 그래서 이리 부서지고 갈라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없어지고. 이 지구 허공성, 우리가 지금 허공에 앉아 있거든요. 진짜 주인공. 이건 가짜예요. 이거 하나의 똥주머니에요. 가는 곳이 흙구덩이 불구덩이 뿐이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거 내라 하고 있거든. 물론 내가 쓰고 있어. 내가 쓰고 있긴 있지만 이건 내가 아니고 이건 가짜여. 내가 쓰고 있어도 이건 앞으로 오십 년이나 백년이면 우리가 흙구덩이 불구덩이 집어넣는 그거에요.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태우면 한 줌 흙밖에 안 돼. 흙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썩히면 한 삼태기 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거예요.

하기 때문에 보고 듣고 말하는 이놈, 지금 우리가 허공중에 있거든. 우리가 늘 그릇된 생각으로 이거 내다 할 때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자, 뇌에 있다든지 눈에 있다든지 코에 있다든지 가슴에 있다든지 어디에 있나요. 없어요. 없어. 없으면서 이걸 여의지 않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허공이 어느 정도 크냐. 간단하게 말하겠어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가도 가도 끝없는 거예요. 위로 가도 가도 끝없는 거예요. 밑으로 가도 가도 끝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공부를 하는데, 이 허공문제를 해결 안 하면 생사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기 때문에 허공 말을 하는 거여. 이리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이리 가도 가도 끝없는데,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말이여. 여러분들이 허공을 처리할 권리가 있어. 색신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색신은 성품이 없는데 처리고 뭣이고 할 거 뭐 있어요? 보고 듣고 말하는 진짜 여러분,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의 여러분, 태양계가 부서지고 욕계 색계가 막 부서져서 다 날아가 버려. 날아간 후에도 뚜렷하게 있는 여러분. 이 여러분이 허공을 처리할 문제거든. 이러한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백봉김기추거사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 우리의 몸은 인간의 집과 같다



죽로지실 앞마루에서 서도(書道) 중인 생전의 효당 스님.

2.정삼업진언(淨三業眞言)

'정삼업' 은 삼업을 맑힌다는 것.

옴, 사바빠바, 슈따살빠 딸마, 사바빠바 슈또함.

삼업(三業)이란 신(身), 구(口), 의(意)의 세 가지다. 즉, 우리의 몸과 입과 뜻을 밝혀주는 참된 말이라는 것이다. 진언(眞言)은 인도말로 다라니라고 한다. 참된 말, 진정한 말, 진정코 그렇다 하는 말이다.

우리가 가설해서 하는 가언이란 우리 한국어, 영어, 인도어, 중국어, 일어, 산스크리트어 따위, 이른바 민족어는 그 민족 그 사회가 오랜 역사를 거쳐 은연중 가계약(假契約)으로 이루어 놓은 통용어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언에 대해서 진언이란 참말이오 한 인간의 참된 소리이기 때문에 구태어 상대자를 설정하지 않고 누구에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연에게 스스로의 감동을 표출한 것이며 그 소리가 자연스레 한 운율이나 음율을 띄고 있다. 가령 지금을 겨울밤이라고 하자. 우리가 밤새 자는 동안 눈이 수북이 내렸다.

지리산 상상봉에도, 우리들이 있는 이 봉명산 다솔사에도, 이 도량에도 눈이 왔다. 아침에 방문을 열고 내다보며 한 사람이 부지중 '아이 눈 봐! 깨끗도 하지' 한다. 그럴 때 이 말이 진언이다. 누구에게 들으라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자연에게 천지(天地)에게 대하여 불쑥 느낀 바 감동을 그대로 읊어서 한 말이며 그러기에 진언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그 유니트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 모든 경전을 공부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간에 그 가운데 목적하는 바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단위가 놓여진다. 자기 자신이 늘 가장 중대한 것이다. 이 점은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이 중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대한 것을 따지고 보면 그것은 역시 신, 구, 의, 삼업에 크게 관계되어 있다. 몸으로 하는 노릇, 입으로 하는 말, 뜻으로 생각하는 것 — 의지력과 정신 작용이 세 가지가 혼탁해지면 그 사람은 잡된 사람인 것이고, 반대로 이 삼업이 맑고 청청하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업을 맑힌다. 몸짓을, 입으로 하는 말씨를, 정신 작용을 맑혀 나간다.

그런데 아주 멜리키트한 것은 몸이란 형식적인 것인데 이 몸의 일부분인 성대 기관에 정신이 작용하여 형식 속에 정신적인 것이 내포되어 표출되는 것이 인간의 말이다. 하여튼 삼업을 맑히는 것은 불교의 근본 문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

> **몸의 가짐새 맑히고**
> **말은 자비를 갖춰서**
> **삼업 맑히면 청정해져**
> **정신 작용 맑혀 나가야**

한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몸의 가짐새를 맑히고, 다시 말하여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의복은 어떤 천으로 마련되어 몸을 가리고, 그런 다음 입은 양치질을 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게 하여 자비스럽고 사랑에 가득찬 음성을 낼 것인가. 또 이 말은 자기의 의식작용, 자기의 정신 작용으로서 어떻게 흘러나오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근본 문제가 된다. 어떤 학문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불교에서 목표하는 바는 몸과 말과 정신작용으로서의 뜻, 이 세 가지가 근본이 되는 것이다. 첫째는 이를 깨끗이 해야 된다. 이를 청정히 클리어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 맨 먼저 문제 되는 바다. 정삼업 진언은 다음과 같은 주문(呪文)이다.

'옴 사바빠바 슈따살빠달마 사빠바바 슈또함' 이를 세 번 외운다. 이 범어(梵語)의 주문은 물론 말인 이상 뜻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일정한 격식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밝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행원례(行願禮)를 꾸미는데 있어 내가 지금으로부터 35, 6년 전에 그 조직체계(組織體系)의 목표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인생이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함을 이름이다.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반드시 사람의 왕래가 있는 법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왕래에다 표준을 삼아 행원례의 수차 그대로 자기 근행(勤行)의 스케줄을 짜 본 것이었다.

정삼업(淨三業)이란 이를테면 사람의 왕래를 위해 집을 깨끗이 소제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집은 두 말 할 것도 없거니와 실상은 우리의 몸이 인간의 집이다. 국가도 넓은 의미로는 우리의 집이다. 그래서 첫째로 이 우리 인간의 집을 깨끗이 해 두어야겠다 하는 것이다.

집을 깨끗이 소제한 다음에는 이로써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여기 향내가 어리도록 향(香)을 피워 놓는다. 부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우리 집에도 향을 피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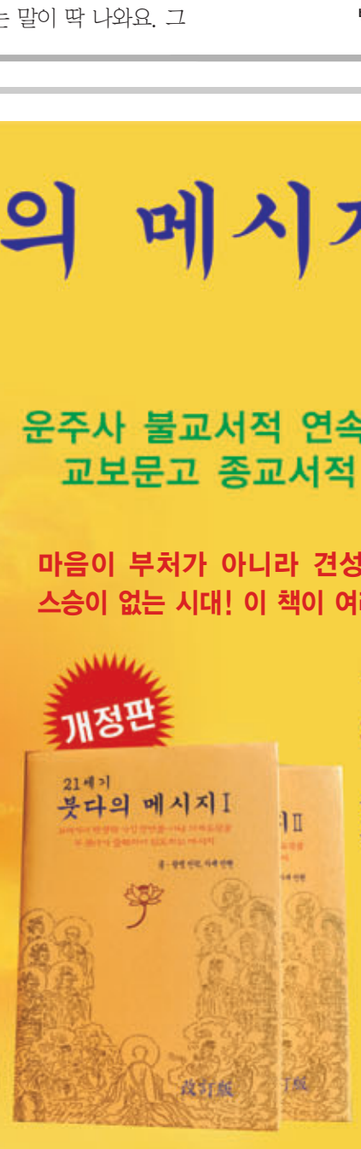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 Ⅱ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7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 견성은 머나먼 수행의 시작입니다
스승이 없는 시대! 이 책이 여러분을 정법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개정판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도서



영산불교 지장보살본원경(근간)

서연 이대성 저 (철학박사, 대학교수)

'철위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그곳은 부처님의 위신력과 업력(業力), 이 두 가지 인연으로만 갈 수 있을 뿐입니다.'
(도리천궁신통품 중에서)

지장보살본원경은 지옥중생을 제도하시는 지장보살님의 인행(因行)과 서원을 밝히고 있고, 우리가 저지르는 악업의 과보를 밝혀서 그 과보로 가게 되는 지옥의 실재를 설하고 있는 중요한 대승경전이다. 이 책은 이전 어떤 해설서와도 차원이 다른 영산불교만의 깊이 있는 지장보살본원경 해설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장보살님의 실체를 처음으로 밝히고 있다. 지장보살본원경 13품을 각 품별로 자세한 해설을 달았고, 지장경을 봉독함으로써 10선을 행하여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따라 배우고 실행하여 훌륭한 불자로 거듭나서 윤회생사에서 벗어나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왜 불교인가(근간)

대현 김주영 저 (인력개발학 박사, 대학원 초빙교수, 장영실상 수상)

저자는 '왜 불교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우주적 진리인 영산불교의 관점을 분명히 견지하면서 기존의 모든 철학 과학 종교를 긍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비판한다. 인간의 역사속에서 철학과 과학, 종교가 태동하고 다양하게 발전해왔지만 오직 불교만이 인생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저자는 기존불교를 불완전한 반자(半字)불교로 규정하고, 기존불교를 포함해서 이때까지의 어떤 철학 과학 종교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류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한 영산불교를 만자(滿字)불교로 보고 불신론 영혼체론 생사관 수행관 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써 신불교 영산불교의 가르침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저자가 한평생을 살면서 모색해왔던 구도의 역정이 고스란히 배여있는 역작이다.

# 담마난다, 태국 불교계 여성불자 위상 높여

태국의 비구니 스님들이 교단 내에서 비구 스님과의 '평등한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주목된다.

〈DW AKADEMIE〉 지는 지난 2일 "비구니 담마난다(Dhammananda) 스님을 중심으로 6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송담마카야니(Songdhammakalyani) 사원에서 비구니 스님을 향한 교단과 사회의 편견을 개선하고, 여성의 종교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DW AKADEMIE〉지에 따르면, 방콕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나콘 파톰(Nakhon Pathom)의 송담마카야니 사원에서는 태국의 여느 사원과는 달리 비구가 아닌 6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붉은 가사를 입고 새벽 예불을 올리며, 주변 마을을 돌며 자선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태국을 통틀어 유일한 진풍경'인 셈이다.

"태국에서 유일한 이 모습은 어머니께서 서원했던 모습"이라고 기억을 더듬은 담마난다 스님은 "어머니께서는 독실한 우바새로서의 여정을 걷다가, 출가를 결심했다"며 "그로부터 10년 후 어머니는 구족계를 수지하지는 못했지만, 태국 불교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비구니 스님'의 모습으로 제게 돌아오셨다"고 회고했다.

담마난다 스님의 어머니는 보라마이(Voramai) 스님으로, 1950년대 여성 출가가 허용되지 않았던 태국 불교계의 '금기'를 깨고, 출가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송담마카야니 사원도 '여성을 위한 사원'을 서원했던 보라마이 스님의 원력으로 출발해, 지금의 사격을 갖출 수 있었다.

담마난다 스님은 출가 전 방콕의 타마사(Thammasat) 대학의 종교철학 교수로 활동하며, '여성과 불교'를 주제로 한 저술에 몰두했다. 또 태국 정부가 수여하는 여러 상을 받았고, 매스 미디어의 단골 게스트로도 활동했다.

"사회적인 성공도 어머니의 삶에 비춰보면,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 담마난다 스님은 "이를 계기로 출가를 결심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하기 위해 스리랑카 불교계로 인생의 향로를 돌렸다"고 말했다.



태국에서 여성의 종교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담마난다 스님



지역 주민들은 송담마카야니 사원의 대중들에게 매일 아침 공양을 올리며, 태국불교계의 변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종교철학 교수, 모친영향으로 출가**
**비구니 스님 6명, 예불과 자선활동**
**비구 중심인 태국서는 유일한 광경**
**승단에서는 아직도 적의 드러내**

태국에서 여성의 종교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담마난다 스님의 노력은 스리랑카에서 비구니계를 수지한 이후부터다.

"2000년 전 태국에도 비구니 교단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게 애석하다"고 말한 담마난다 스님은 "이제부터라도 그 교단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여성 불자들과의 교류를 증대하고, 보수적인 태국 불교계를 설득하다보면 언젠가는 이뤄지지 않겠냐"고 희망을 굽히지 않았다.

현재 태국의 헌법에는 '비구니 스님'을 인정하고 있지만, 승단에서는 여전히 '비구니 스님'에 대해 적의를 보이고 있다. 사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직 비구 스님만이 대중이 될 수 있다'는 편견 때문이다. 태국 불교계에서 여성의 출가는 물론 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까지는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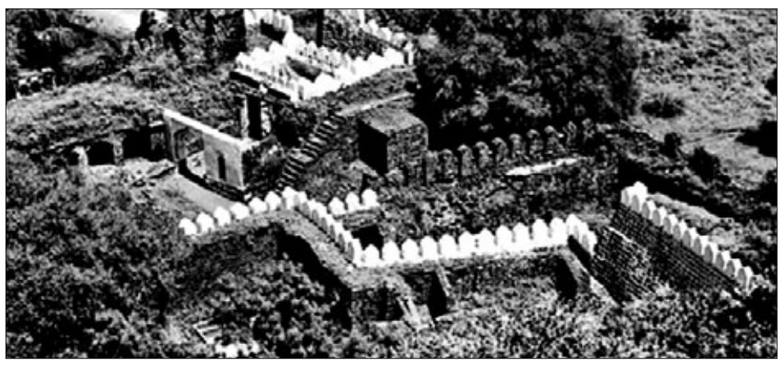
"현재 태국에는 30여 명 안팎의 비구니 스님만이 있을 뿐"이라는 수타다(Sutada) 박사(국가대학 재직)는 "태국의 헌법에서는 비구니 스님을 인정하고 있지만, 비구 스님과 같은 권리와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며 "비구 스님은 매월 정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비구니 스님은 그렇지 못한 게 태국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불교와 여성문제를 연구해온 하트포트 대학교(University of Hartford) 낸시 번스(Nancy J.Barnes) 교수는 "동남아 국가에서의 비구니 교단의 복원은 여성불자들이 종교라는 공통된 우산 아래에서 보다 많은 활동을 벌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담마난다 스님의 노력은 태국 불교계에서의 여성 재가자와 출가자의 위상을 한 단계 도약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인도서 2천년전 불교사원지 발견

**나가라주나콘다, 아마라바티 일대서 불교사원 구조물 발견돼**



인도 나가라주나콘다, 아마라바티 일대에서 발견된 2000년전 불교사원

인도 나가라주나콘다(Nagarjunakonda)와 아마라바티(Amaravathi) 일대에서 2000년 전 불교사원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발견되어, 인도 관련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ndian Express〉지는 1월 1일(현지시각) "나가라주나콘다와 아마라바티 지역의 미개척지에서 2000년 전 고대 불교사원으로 보이는 유적이 새롭게 발견됐다"고 전하고, "두 지역에서 많은 불교유적이 발견됐지만,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사원유적의 경우 그 규모 면에서 발굴된 유적보다 앞선다"며 "따라서 오는 2월부터 시작될 두 지역의 고대 불교유적에 쏟아지는 관심이 대단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인도 국무부 고고학 부서는 두 지역에 대한 발굴을 신청, 승인 받았고, 조만간 뉴델리 대학과 공동으로 세밀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무부 고고학부서는 지난해 1년간 메닥(Medak), 쿰마리로바(Kummarilova), 야야파라주(Ayyaparaju) 등 5개 불교 유적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Indian Express〉 지는 "이번 발굴 승인은 이례적인 일로 보여진다"며 "관련 학계의 주목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고학 부서에 따르면 두 지역에서 원형 및 사각형 모양의 사리탑, 64기의 돌기둥, 불보살이 조각된 돌 벽, 비문 등 사타바하나(Satavahana) 왕조와 익사바쿠(Ikshvaku) 왕조에 속하는 유물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로마시대의 동전, 페르시아 도자기 등도 발견되어, 고대 무역의 경로를 추정할 수 있다.

고고학부 라마크리시나 라오(Ramakrishna Rao) 국장은 "두 지역에서 새롭게 확인한 유적은 규모도 대단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로마의 동전과 페르시아 도자기 등이 발견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인도 문화서적인 가치가 크다"며, 이번 발굴에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오종욱 편집위원

# 부다넷(Buddhanet), 불교전자도서관 오픈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접속 가능…영어, 중국어 등 5개 국어로 운영**

불교전자도서관(Buddhist eLibrary)이 오픈됐다.

〈patheos〉 지는 "부다넷(Buddhanet)이 구랍 27일 와이파이로 접속 가능한 '모바일 불교전자도서관'을 오픈했다"고 보도하고, "이번 불교전자도서관은 컴퓨터는 물론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모바일 기기(휴대폰 등)이나, 아이폰 등에서도 접속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부다넷 측에 따르면 불교전자도서관은 현재 영어, 중국어, 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등 5개 국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자들의 요구가 확대되면, 해당 언어에 대한 서비스도 준비、시행할 방침이다.

불교전자도서관에서 내놓은 불교 자료는 불법교육연합회(Buddha Dharma Education Association)와 보리나무 숲 사원(Bodhi Tree Forest Monastery), 국제불교대학(International Buddhist College), 불교 마하 비하라(Buddhist Maha Vihara), 마하추라롱콘 대학(Mahachulalongkorn University) 등에서 제공된 것이다.




부다넷이 오픈한 모바일 불교전자도서관

부다넷 측은 "불교전자도서관은 불교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이를 위해 세계 유수 불교 관련 연구 및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아 운영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곳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각양 각색의 종파로 나뉜 불교를 하나의 가르침, 법으로 엮어 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 티베트 라사, 28일 '버터 램프 축제'

**15세기 시작된 불교 축제 … 약 3천여 명 다녀가**

버터 램프의 불빛이 구랍 28일 티베트 라사의 밤하늘을 수놓았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일명 '버터 램프 축제'로 알려진 이번 축제는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밝히듯 투명한 유리 볼에 야크 버터를 담아 밝을 밝히는 것으로, 이때 티베트인들은 자신의 서원을 세운다.

이날 축제에 참여한 트송카파(Tsongkhapa · 52) 씨는 "가족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피를 바라는 마음에서 200㎞ 떨어진 곳에서 한걸음에 왔다"며 "버터 램프 축제는 티베트 곳곳에서 열리지만, 이곳 라사의 축제는 티베트 자치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티베트학 연구소(Tibetology Researcher Center)'의 루얍(Lukyab) 박사의 말을 인용, "버터 램프 축제는 티베트불교의 거대 종파인 겔룩파 초기 고승들의 열반을 기리기 위해 15세기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하며, "겔룩파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궁이 있는 '라사'에 유독 많은 티베트인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라사 축제의 진행위원으로 활동한 담쵸스 욘탄(Damchos Yontan) 스님은 "축제는 램프 밝히기, 향나무 가지 태우기, 사원 참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올해 '버터 램프 축제'에는 약 3천여 명의 티베트인들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투명한 유리볼에 야크 버터를 담아 불을 밝히는 '버터 램프 축제'





佛紀 2558年 甲午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괴로움이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행복과 보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천년고찰 팔공산 불 굴 사
주지 덕 조
신 도 일 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5
TEL 053)854-0440
http://cafe.daum.net/bulgulsa.ok

지산치과의원
원 장 송준기
가족같은 병원, 환자 중심의 병원
• 지산치과의원 원장
• 치의학 박사
(임프란트, 보철학 전공)
• 단국치대 임상교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 2동 1188-2
TEL 053)782-0022 FAX 053)782-2875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신도회
신도회장 여공 한삼화
(주) 삼한C1 (대표이사 회장)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
사무국연락처 : 사무국장(이달용)
010-3510-9985

한국불교태고종
마안산 자 비 암
주지 자 관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로5번가길 46(명륜동)
TEL 051)552-3320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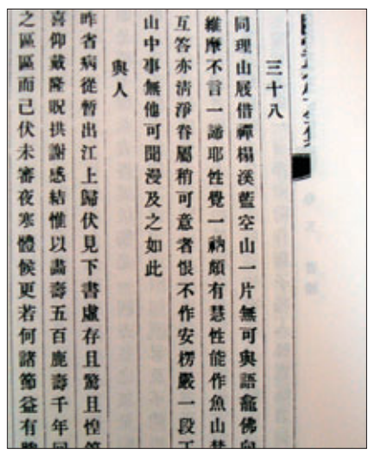
# 자신을 은근히 유마힐에 비유

〈완당전집〉에 수록된 〈여초의〉38신은 어느 시기에 쓴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편지에 드러난 추사의 행적은 구도적이고도 불교적인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그가 과천에 머물며, 봉은사를 내왕하던 시기에 보낸 편지일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과천 시절 추사는 불교와 차에 심취했고, 초의에게 경전의 참증(參證)을 요구하는 편지를 여러 번 보낸 적이 있다. 따라서 "나막신을 함께 챙겨 산 속 절에서 선탑을 빌렸다"는 내용은 그가 봉은사에서 머문 것을 이리 표현한 것이라 짐작되는데, 수행에 몰두한 그의 일상이 잘 드러난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막신을 함께 챙겨 산 속 절에서 선탑을 빌렸지만 한 조각 텅 빈산엔 더불어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감불의 부처님이 사람에게 말하려다 말하지 않으니 이는 유마힐의 불언의 진리인가요. 성문영각의 승려는 자못 지혜로운 본성을 지녀서 어산의 범패와 솔바람, 골 물소리와 서로 화답하시니 또한 청정한 권속이라 조금 마음이 갈만합니다.

〈〈안분수경〉〉과 〈〈능엄경〉〉의 일단을 공부하지 못하여 마침내 문사수(聞思修)로 들어갈 뿐인 것이 한스럽습니다. 산중의 일은 들려줄 만한 다른 일이 없어서 부질없이 이와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同理山 衲禪榻溪藍 空山一片 無可與語 龕佛向人欲語而不語 是維摩不言一諦耶 性覺一衲 頗有慧性 能作魚山梵唱與松風澗水聲互答 亦淸淨眷屬 稍可意者 恨不作安楞嚴一段工究 竟聞思修入耳 山中事無他可聞 漫及之如此)

선탑(禪榻)은 좌선할 때 앉는 의자이다. 절에서 선탑을 빌렸단 말은 유학자인 그가 승려들의 참선


三十八
同理山展借禪榻溪藍空山一片無可與語龕佛向人欲語而不語是維摩不言一諦耶性覺一衲頗有慧性能作魚山梵唱與松風澗水聲互答亦淸淨眷屬稍可意者恨不作安楞嚴一段工究竟聞思修入耳山中事無他可聞漫及之如此
與人
昨省病從暫出江上歸伏見下書慮存且驚且惶第之區區而已伏未審夜寒體候更若何諸節益有喜仰戴隆祝供謝感結惟以壽壽五百鹿壽千年

〈완당전집〉에 수록된 〈여초의〉 38신.

## 산속 절 선탑에 앉아 좌선하며 유아독존의 실체 · 공의 도리 깨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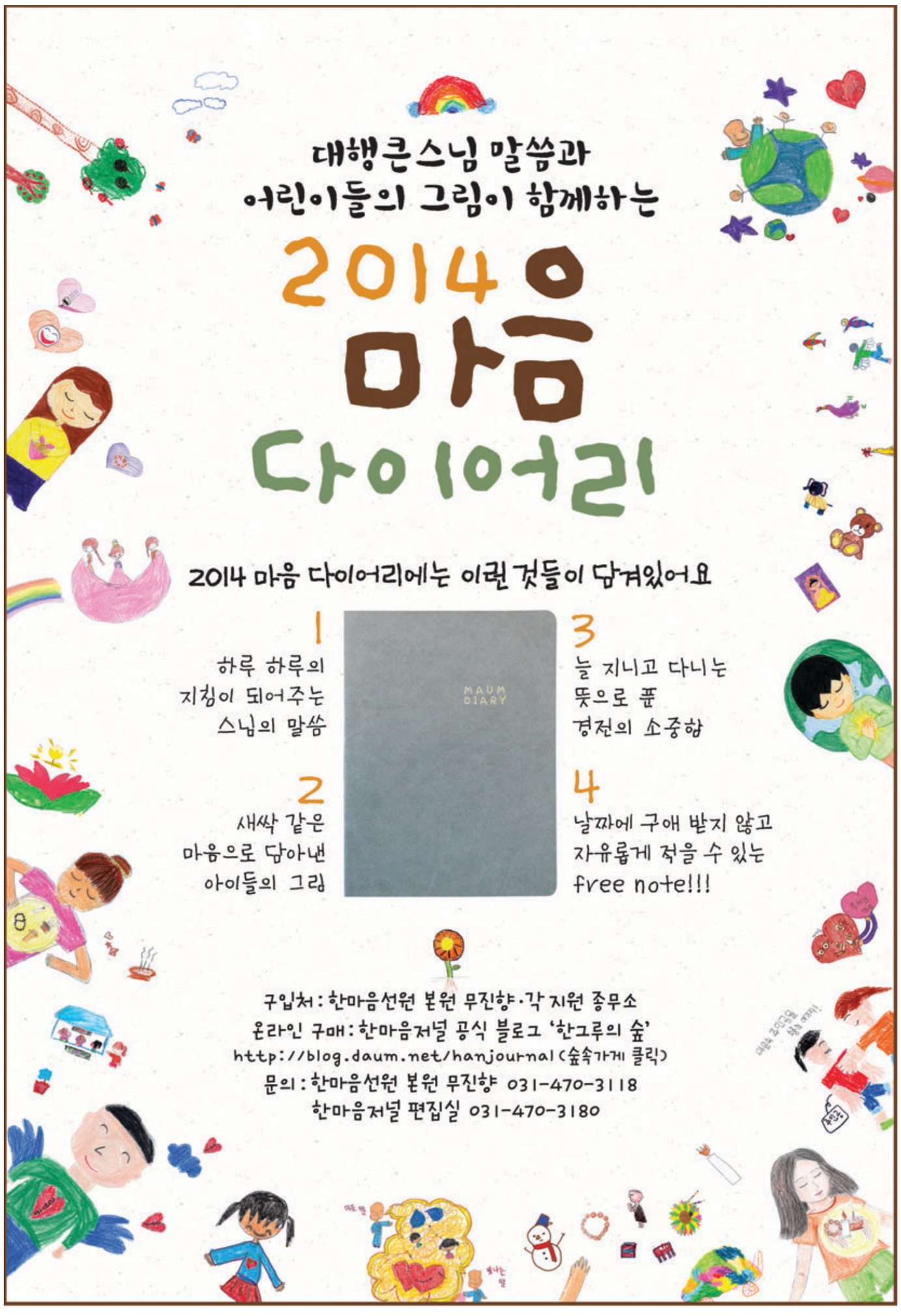
방법을 차용하여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니 참선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리 표현한 것이리라. 또 "텅 빈 산엔 더불어 말한 사람이 없다"한 것은 유아독존(唯我獨存) 의 실체인 자신이 공(空)의 도리를 알았다는 의미이다. "유마힐(維摩詰)의 불언의 진리가 아닌가"라고 초의에게 되물음은 초의의 공감을 유도한 것이라 짐작된다. 유마힐은 추사가 이상형으로 삼았던 재가불자이다. 부처님의 속제자로, 인도 비야리국의 장자이다. 보살행업을 잘 닦은 인물로, 수행이 높았다고 전해진다. 대승보살의 실천도를 강조, 세속에서도 불도의 실천과 완성을 이룩할 수 있다는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었던 인물로, 재가신자의 이상형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유마힐이 병중에 있을 때, 문수보살이 여러 성문과 보살을 데리고 문병을 왔다. 이 때 유마힐은 불가사의한 해탈상과 무주(無住)의 근본으로부터 일체법이 성립되는 것과 삼라만상이 불이(不二)의 일법(一法)임을 드러내 보였고, 불가언불가설(不可言不可說)의 뜻을 나타내 문수보살을 감탄케 했다고 한다.

추사가 말한 유마힐의 불언(不言)은 바로 불가언불가설(不可言不可說)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자신은 비록 속세에 살지만 유마힐처럼 살아가는 사람임을 은근히 드러낸 듯하다. 이어 지혜로운 본성을 지닌 승려들이 "어산의 범패와 솔바람, 골 물소리와 서로 화답하시니 또한 청정한 권속이라 조금 마음이 갈만"라고 한 것은 노년기 그의 삶의 흔적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한편 〈안분수경〉과 〈능엄경〉의 일단을 다 터득하지 못했던 그는 "마침내 문사수(聞思修)로 들어갈 뿐인 것이 한스럽다"는 대목에서 자신의 분발심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사수는 삼혜(三慧)로, 개혜(開慧)와 사혜(思慧), 수혜(修慧)의 단계로 수행하여 지혜를 얻는 것이다. 경전을 견문하여 생긴 지혜와 도리를 생각하고 생각하여 얻은 지혜, 선정을 닦아 얻은 지혜를 말한다. 속세에 살던 그가 이룩하고자 했던 불도의 실천과 완성의 꿈은 이미 추운 겨울, 학림암 선방에서 해붕선사와 나눈 공각소생(空覺所生)의 담론에서 싹튼 것인지도 모른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사)자비신행회**는 … 불교의 자비사상을 근본으로 1999년 재가불자들의 교육과 자비실천을 목표로 창립했다. 부설기관 운영하며 광주지역 대표 순수불교사회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동안 노인복지사업을 통해 2만여개 자비의 도시락과 담프로그램을 7년째 운영중이다.

# 도시락에서 수행까지

재가불자들의 나눔공동체 (사)자비신행회

독서모임에서 봉사단체로 거듭나
도시락 배달 · 무료식당 운영까지
소외 이웃 위한 밥차도 호응 커
전남대 병원서 호스피스 봉사도

재가자 위한 불교 교육 매진
화엄학림으로 교양강좌도 진행
간화선 위빠사나 수행 지도

"나와 남이 결코 둘이 아닌 하나임을 아는 연기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내가 있어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엮어내는 감동과 희망의 이야기를 만들자. 서있는 분에게는 서서, 설 수 없는 분에게는 앉아서, 가슴에서 가슴으로 봉사한다. 두 손으로 공손하게 봉사하는 과정도 수행의 일부다. 이 모두를 자기를 낮추고 돌아보는 계기로 삼자."

이웃과 함께 보현행을 실천해오고 있는 자비신행회의 모토다. 이곳의 회원들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봉사를 한다. 내가 먹는 것 이상으로 부족함 없이, 정결하게 음식을 차린다.

자비신행회는 재가신자들의 책읽기 모임에서 시작됐다. 하나둘 회원이 늘어 봉사활동의 뜻이 모아졌고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자비실천으로 뜻이 모아졌다. '우리는 한꽃' 이라는 불교의 자비사상을 근본으로 불자들의 교육과 자비실천을 목표로 1999년 (사)자비신행회를 창립됐다. 호남지역 대표 불교단체로 불법의 진리를 실천하고 세상에 펼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자비신행회를 만나봤다.

### 이웃들을 위한 열린 나눔의 공간

광주 동구 장동에 위치한 자비신행회 행복한쉼터는 매일 아침 11시면 지역 어르신들의 만남의 장소가 된다. 지난 2012년 9월 10일 지역의 소외계층(독거노인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작한 '행복한 쉼터' 는 매일 주 5회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급식, 미용, 공연, 생활필수품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증심사, 문빈정사, 영광사 등 지역의 사찰 신도들의 열성적인 자원봉사가 더해져 지금까지 120여회 걸쳐 8,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이 진행됐다.

워낙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늘 사람들로 붐비지만, 많은 인원에게 음식을 제공할 재원과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인원은 회원제로 한정했다. 그래서 그 중 개별 면담을 통해 장애인, 독거노인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매일 이곳에서 점심을 먹는 김순희(72) 할머니는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점심을 먹었지만 이곳만큼 맛있는 곳이 없었다"며 "늘 다양한 반찬과 봉사자들의 정성이 음식에 담겨있어 편안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행복한 쉼터' 의 모든 복지서비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 없이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순수자립형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의 시작은 1999년 '어르신세대 밑반찬 지원사업' 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5년째 매주 4회씩(월요일~목요일) 지원되는 밑반찬은 월 106명의 봉사자들이 참여 반찬을 만들어 전체 2287세대에 배달하는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불교계에서 가장 오래된 밑반찬 지원사업이다. 특히 대상 어르신들은 일 년에 봄 가을 두 번의 나들이 행사와 소원기금, 생활지원사업 등의 주 대상인원이 되어 반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비신행회의 대표 사업 중 하나는 밥차 서비스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광주공원을 비롯해 대인시장, 말바우시장, 송정시장 등 광주지역 100곳에서 '십시일반 밥차' 를 만날 수 있다. 2008년 4월 트럭을 개조해 주방이 갖춰진 차량으로 시작된 밥차는 2013년까지 180여회 어르신 무료급식을 제공해왔다. 한 번에 급식인원이 300~500여명에 이르니 혜택을 보는 이도 수만명에 이르고 있다. 각 기업과 기관 등에서 자원봉사를 함께하게 되면서 차이나궁, 한화생명, 국세청, 스포츠토토, 원효사, 금선사 등에서 밥차를 지원하고 있다.

'따뜻한 밥상', '情 도시락' 다양한 이름으로 제공되는 밥차는 추운 시장 안 찬 바닥에서 자식들을 위해 행상을 하는 우리네 어머니들 같은 분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는 소중한 행사다.

자원봉사자 신재효(원효사 청년회)씨는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린 것은 단순한 먹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정(情)과 정성,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구현되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 의료봉사와 교육사업도

자비신행회의 봉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의료봉사까지 그 손길이 미치고 있다. 두손모아 호스피스팀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화순전남대병원 호스피스 병



어르신식당 행복한쉼터에서는 매주 5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부설기관인 한꽃차문화아카데미에서는 전문다도인 양성을 하고 있다.




으로 한꽃 노인복지센터 • 외국인노동자센터 • 茶문화아카데미, 재가 화엄학림, 자비나눔 봉사단, 두손모아호스피스 등을
l만 2천여개의 밑반찬을 독거노인을 위해 지원해왔고, 청소년 장학기금마련과 불교상담활동가 양성을 통해 청소년집단상

# 나누며 행복 찾아요

동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이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어려운 환우가족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활동을 한다. 그야말로 환우들에게는 '관세음보살' 같은 존재들이다.

10년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명옥 씨는 환우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한다. "호스피스 봉사활동이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환우들에게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안겨주는 것을 느껴요. 작은 도움이지만, 기뻐하는 환우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비록 환우들에게 삶을 연장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1~2달 남은 짧은 삶에서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비신행회에는 어르신 소원기금이 있다. 후원자나 사찰에서기금을 전달하면 후원자명의 기금을 만들어 지원하는 활동이다. 대표적 기금인 '진여성 기금' 은 어르신들 세대에 가전제품 등 소원하는 물품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꼭 필요한 물건과 평생 소원하던 바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풍경을 만들고 있다. 또 뮤지컬기금이 있다.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영화나 연주회, 뮤지컬 등에 초청을 하여 공연 나눔을 실천한다.

여기에 연화사 봉사팀에서 소년소녀 가장세대, 조손가정, 한부모세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매월 1회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을 한다. 보따리에는 쌀, 라면을 비롯한 생필품이 들어있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세대 나눔보따리지원을 위한 나눔바자회를 열고 있다.

자비신행회는 복지사업 못지 않게 교육사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재가 화엄학림은 부처님의 다양한 가르침을 일반인들에게 전달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그중 재가 화엄학림을 통한 불교강좌와 간화선과 위빠사나를 나눠어 진행하는 수행프로그램 등이 운영중에 있다. 여기 빛고을MY리더스클럽과 불교힐링아카데미, 빛고을 자연사찰요리강좌 등도 수강생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부설기관인 불교전문교육과정으로 2005년부터 재가불자들을 위해 운영되는 재가 화엄학림은 1년 과정의 평생교육원 시스템이다. 재가불자들의 전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리더스클럽은 서울의 재가연대의 전문가 강사들을 초빙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멘토들과 함께 떠나는 힐링아카데미' 는 현장스님(대원사 회주), 목우 스님(선암사 강주), 혜도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각묵 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법인 스님(중앙종회 의원), 금강 스님(미황사 주지), 붓다락키따스님(보리수선원장) 등이 초청돼 100회의 강좌를 이어갔다.

수행을 통해 배움을 깨치는 것도 공부의 일환이다. '빛고을 위빠사나 수행' 과 한꽃시민선방은 대표적 수행프로그램이다. 그중 붓다락키따 스님과 함께 진행되는 자비명상 프로그램은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전문 다도(茶道)사범 양성과정인 '한꽃차문화아카데미' 는 초급반 고급반 운영을 비롯해 시민들을 위한 차문화체험학습장을 마련하고, 차문화예절교육과 다양한 불교계 행사에 차문화 보급에 나선다. 특히 상일중학교, 살레시오여중, 일동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차문화교육은 학생들에게 다도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김장김치 나누기, 어버이날 기념선물, 명절 선물, 영양제 지원, 빵과 우유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스스로 만들어가는 나눔 공동체

그렇다면 자비신행회의 봉사활동이 이렇게 다각화된 이유는 뭘까. 사무처장 김영섭 씨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영역들이 생기고, 자신의 재능나눔, 지식나눔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봉사활동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말한다.

자비신행회는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12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다. 실제 봉사활동 시간 1천 시간을 돌파한 회원들이 다수며 봉사시간 2천 시간을 넘긴 회원들도 많다. 매년 1년을 결산하는 행사에서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인증된 자원봉사자 인증표시가 회원들의 가슴에 걸린다. 봉사자는 이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거리에서 연탄을 나르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웃을 생각하는 봉사의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모든 것이 기쁨이 된다.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내게 필요한 것은 내 이웃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어가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자비신행회는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나눔공동체다. 우리의 이웃과 사회를 위해 솔선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땀 흘려 번 돈, 가진 것을 귀하게 나누어 쓰는 것도 지혜다. 한 순간의 연민과 동정으로 이루어진 일시적인 기부가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속의 자원봉사가 필요하다. 모두가 한 가지씩 나눔을 실천하며 아름답게 사는 자비로운 세상을 꿈꾼다.

자비신행회는 새해 오랫동안 추진해오던 사업인 '임종의 집' (가칭) 사업에 매진하고자 한다. 김 사무처장은 "생애 마지막 순간에 잡아드리는 '따뜻한 손길' 이라는 타이틀로 무연고 어르신들의 생의 마지막을 함께 해드리려고 한다. 더불어 진행중인 십시일반 밥차 프로그램을 가족단위 봉사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사업은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의 질적인 성장의 해로 잡아갈 계획"이라고 전한다.

어느 사회에나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비선행회의 가까운 미래는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고마운 분들을 위해 열려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실천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후원하는 사람도, 봉사를 하는 사람도, 후원을 받는 사람도 모두 주인이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모두의 마음이 처음같이 아름답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a@hanmail.net



교육프로그램도 활발하다. 위빠사나와 간화선 등으로 불자들의 수행을 돕고 있다.

전법일기

# '세계를 향한 전법도량' 발원

## 일요참선법회

비로자나 국제선원 일요 영어참선 법회에도 누구나 영어로만 말해야 한다. 그것은 외국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우리 선원을 찾는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인도, 스위스,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독일, 네덜란드 등등…. 이들 중에는 발심 출가하여 스님이 된 사람이 2명이나 된다. 이들이 찾아오는 루트도 다양하다. 인터넷으로 알고 온 사람이 가장 많고 다음은 안내지이다. 대부분은 참선을 하고 싶어서 찾아온다.

한, 두 번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매주 온다. 2회의 20분 참선과 20분 법문, 30분의 토론으로 이어진다. 참선을 20분하는 것은 처음 참선에 입문한 사람들이 20분이상 좌선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고통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부좌가 익숙하지 않는 외국인들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제법 걸린다.

한국불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외국인들이 불교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리고 아직 '어떻게 한국불교를 전할것인가' 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국제포교에 원력을 가지고 실지로 외국인들을 가르쳐 보고, 그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 만든 곳이 비로자나 국제선원이다. 처음에는 외국인을 위한 참선과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을 위한 영어 포교를 중점적으로 시도하였으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쳤다.

대부분 외국인들의 한국체류 기간은 1년에서 길어야 2년이다. 어느 정도 수행이 익숙해지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또한 운영상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전통방식으로 사찰을 운영하면서 국제포교를 겸하고 있다. 일요 영어참선법회에 오는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매년 열리는 어린이 영어담마캠프의 교사가 된다. 그중 인상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조셉이다. 그가 처음 선원에 왔을 때 그는 끊임없는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불교에 대해, 삶에 대해, 수행에 대해 궁금증으로 가득했다.



그림 · 박구원

그는 2년 동안 참선법회에 함께 했다. 그가 떠나는 날 나에게 한말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이 제 인생을 얼마나 바꿔 놓았는지 모르실거예요." 그냥 아는 만큼 나누었다고 생각했기에 그의 지극한 감사표현이 부담되기까지 했다.

"제가 처음 스님을 만났을 때 저는 아주 불안한 상태였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면접을 가면 불안함에 손발이 떨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스님과 수행을 하다 보니 그런 증상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마음도 편해졌고요."

7년이란 시간동안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꾸준히 진행해온 결실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뿌뜻하다. 그는 미국에 돌아가 한국 절을 찾았다고 한다. 또 어느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국스님을 만나서 한국말로 "성불하세요" 했더니 스님들이 너무 놀라워했다고 한다. 이것이 국제포교가 아닐까?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부터 제대로 포교하는 것이야 말로 중요한 일이다. 그들은 벌써 마음이 열린 상태로 오기 때문이다.

우리 선원은 법당이 하나이다. 이곳에서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어린이 영어담마스쿨, 외국인 영어참선법회, 청소년법회, 성인법회가 모두 이루어진다. 요즘은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거기에다 곧 재건축이 시작되기에 옮겨야 한다. 이곳 저곳을 알아보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걱정이 태산이다. 이러다 서울 시내에 세계를 향한 전법도량을 만들고자 한 나의 꿈이 좌절되는 것이 아닐까? 요즘 열심히 나오는 스위스 사람으로 심리학 박사이며, 영어참선법회에서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베로닉의 말이 떠오른다. "지금이야말로 한국불교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고요해지도록 도와야 할 때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날을 꿈꾸어 본다.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WWW.WDU.AC.KR

참인재를 키웁니다

실력이 참 좋은 大

원광디지털대학교의 교수님은 이론적인 토대 위에
경험의 지혜와 노하우를 더해 참인재를 키우는 참스승입니다

특성화교육의 참된 리더 –
원광디지털대학교




201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입학상담
1588-2854

▶모집기간 : 2013년 12월 2일(월)~2014년 1월 3일(금)

▶모집학과 : **웰빙건강학부** – 한방건강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한국문화학부** –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실용복지학부** – 사회복지학과, 중독재활복지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

2014학년도 1학기 **웰빙문화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기간 : 2013년 12월 30일(월) ~ 2014년 1월 13일(월) ▶모집학과 : 자연건강학과

자세한 사항은 원광디지털대학교 입학홈페이지(ENTER.WDU.AC.KR)를 참조하세요

특성화교육의 참된 리더 –
원광디지털대학교



# 2014

## 2014(불기 2558)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 신 입 생 모 집 안 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 교과과정안내

| 과정 | | 기간 | 교과목 | 요일 | 자격 | 시간 | 서류 및 전형방법 | 인원 | 수강료 |
|---|---|---|---|---|---|---|---|---|---|
| 불교학과 | 초급과정 | 1년 | 불교학개론, 불교입문<br>대승불교, 관음경 | 월 |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br>누구나 응시 가능 | · 1교시 : 18:30 ~ 19:50<br>· 2교시 : 20:10 ~ 21:30 | · 입학원서1부 (5,000원)<br>· 반명함판사진 2매<br>· 1차 서류, 2차 면접 | 약 200명 | 1년<br>10만원 |
| | 중급과정 | 1년 | 천태불교학, 밀교개론<br>법화경 Ⅰ · Ⅱ | 화 |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br>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 | | |
| 법사과 | | 1년 | 유식사상, 유마경<br>금강경 . 포교방법론<br>천태종사, 천태사교의 | 수 |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br>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 1교시 : 18:00 ~ 19:20<br>· 2교시 : 19:30 ~ 20:50<br>· 3교시 : 21:00 ~ 22:20 | · 지원서 1부<br>· 반명함판사진 2매<br>· 서류전형 | 약 100명 | 학기당<br>25만원 |

### 원서접수

| 원서교부 | | | |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 위치 및 교통 |
|---|---|---|---|---|---|
|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 | 평 택 법장사 : 031.655.9090 | | · 접수 : 2013년 11월 19일(화 ~ 2014년 2월 17일(월) 18시까지 |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br>· 서울 금강불교대학 → 문의) 02.576.6401 |
| 신 촌 성룡사 : 02.336.2052 | | 수 원 용광사 : 031.255.4105 | | · 면접 : 2014년 2월 23일(일) 오전10시 |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
|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 | 구 리 금성사 : 031.563.9364 | | · 장소 : 관문사 2층 면접실 |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 우면APT, 관문사에서 하차) |
| 구 로 명화사 : 02.854.0196 | | 안 양 대안사 : 031.459.3666 | |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 |
|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 | 안 산 월강사 : 031.419.5048 | | | |
| 성 남 화성사 : 031.745.1482 | | 부 천 천화사 : 032.671.5353 | | | |
| 일 산 화성사 : 031.905.2912 | | 군 포 상락사 : 031.392.0924 | | | |

서 울 金 剛 佛 敎 大 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

출강 및 통신 2014학년도 제23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 23년의 법사양성 연륜은 대학의 위상과 교육의 신뢰에 자부와 긍지를 갖습니다.

◆ 법사자격을 갖추고 불교 지도자로서의 신행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함께하여 보십시요.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을 발급 받습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 |
|---|---|
| 모집과정 |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br>· 불학연구원과정 · 불교석학과정 |
| 모집학반 | · 출강반 · 통신반 |
|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br>·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br>·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br>·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br>·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 교육기간 |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br>·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 · 범패)<br>·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br>· 불 교 석 학 과 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
| 교육장소 |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4년 2월 21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부산교육원(☎ 051-466-1959) ·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85기 佛敎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 |
|---|---|
| 기본과정(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 **작법반(1년)**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
| 신행과정(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특수작법(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1월 모집중
◆ 개강일시 : 2014년 1월 개강
매주 (화 ·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 (사)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제12기생 학인모집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연구보존회에서는 신라의소리 영남범패의식을 6개월과정으로 탁마할 학인스님을 모집하여 개강하고져 합니다.

– 아 래 –

■ 자 격 : 삭발염의한 스님 (일반불자 제외)
■ 개강일 : **2014년 2월 19일(음력 1월 20일 수요일) 오후 3시**
■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부터 강의합니다. (주 2회)
■ 장 소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86번지 화장사 (진영포교당)
■ 과 목 : 초급반 – 예경의식(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등)
중급반 – 사시불공, 49재및 천도재의식. 관음시식, 사물다루는법
상급반 – 바라 및 착복무(오공양 작법). 사물다루는 법
■ 강 사 : 묘산, 수암, 일산, 귀암, 경암, 덕우 (011-488-7060)
(내전강의는 본회의 학장이신 한파스님께서 직접 강의를 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055) 343-2267~8700



(사단법인) 영 남 범 음 범 패 연 구 보 존 회

---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 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 교 육 과 정 | 교 육 기 간 |
|---|---|
|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br>●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br>●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br>●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br>※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 8주 과정<br>토요일반 |

▶ 특별강사 : 병 · 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 ~ 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 지 사 명 | 지사장명 | 연 락 처 |
|---|---|---|
| 부 산 지 사 | 박 경 수 | 010-9819-8345 |
| 대 구 지 사 | 손 문 철 | 053)768-8008 / 010-2813-8008 |
| 광주전남지사 | 양 행 선 | 062)384-3009 / 010-2629-1508 |
| 전 북 지 사 | 조 동 제 | 063)910-8977 / 011-9642-7733 |
| 영 주 지 국 | 박 영 애 | 054)634-3429 / 010-9373-3778 |
| 경남 남부지사 | 청운스님 | 055)746-9778 / 011-870-0021 |

# 소나무 조각으로 태어난 '33 비천'

### 목조각장 허길량 개인전
### 1월 8일~16일 예술의 전당서


소나무를 통으로 조각한 허길량 씨의 바라주비천. 천상과 불국토의 세계에 주악을 울리는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바라주비천, 다공양비천, 소과공양비천 등 33비천상이 소나무 조각으로 탄생했다. 목조각장 허길량 씨의 두 번째 전시 '소나무 비천이 되어' 展이 1월 8일~16일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10년만에 전시회를 여는 작가는 한 점 한 점 하나의 소나무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작품을 완성했다. 수명이 천년 이상 간다는 국산 소나무를 이용해 도리천 중 33천을 의미하는 목조각 기법으로 작품을 탄생시킨 것이다.

"지름 80cm 가량의 소나무를 통째로 깎았어요. 비천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너무나 정교하게 작업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따로 따로 조각해 이어 붙이고 싶은 유혹도 있었지만 통나무 원형 하나로 작품 하나를 만들어내겠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특히 작가는 소나무의 질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일절 사포 사용을 배제하고 예리한 조각도의 칼날만을 이용해 질감 처리를 했다. 또한 완성후에도 생 옻칠을 수회 반복해 도장작업을 하여 소나무와 옻칠의 환상적인 만남을 통해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끌어 냈다.

비천은 천상과 불국토의 세계에서 주악을 울리고 춤추며 불보살님과 선지식인들에게 공경과 찬탄하는 마음을 일깨운다. 미묘한 소리와 진귀한 맛, 향기로운 향, 형형색색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만들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이 모두의 모습들이 허 씨의 손기을 타고 살아 숨쉬는 듯한 목조각으로 탄생한 것이다. "33 비천상은 그 자체가 워낙 오묘한 형상이기 때문에 작업 과정이 난해했죠. 생명력과 자비로움을 불어 넣어 품격 있는 형상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과의 싸움에 몰두해야 하는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작가는 목조각을 하는 장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요즘 조각하는 분들이 청동을 많이 해요. 목조각보다는 훨씬 쉬우니까요. 점점 목조각을 배우겠다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몇 배의 정성을 불어넣어 목조각을 완성하고 나면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불교 교리에 맞게끔 작품을 완성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다보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허 씨는 15세의 나이에 목공예에 입문 서수연 이인호 선생으로부터 불화와 단청 작업을 사사받았다. 1980년 우일 스님 문하생으로 입문하 도상 의식기법을 전수받았으며 200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으로 지정받았기도 했었다. 2002년 '33 관음 속으로 개인전' 을 개최했다.

앞으로 작가는 뉴욕 일본 등 순회 전시를 통해 33 비천상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려나갈 계획이다. (031)945-0013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넓고 고요한 진리의 바다여!

###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 ② 최치원과 해인사 ㊦





최치원은 해인사 홍류동 계곡에서 시를 읊었다. 사진 왼쪽은 최치원 영정 경북유형문화제166호 (청도경주최씨종중 소장) 사진 오른쪽은 해인사목조희랑대사상 보물제999호.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으리

결핍과 갈망이 시를 낳는다고 했던가? 최치원은 철저히 세속을 버리고 싶었기에 홍류동 깊은 계곡에 묻혀 살면서도 물소리로 온 산을 에워싸 세속의 시비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으려 했다. 그 적극적인 표현은 둔세의 극치를 보여준다.

승호막도청산호(僧乎莫道靑山好)
산호하사갱출산(山好何事更出山)
시간타일오종적(試看他日吾踪跡)
일입청산갱불환(一入靑山更不還)

**스님, 청산이 좋다 말하지 마오**
**산이 좋으면 무엇 하러 나오겠소.**
**두고 보라, 훗날 나의 자취를**
**한번 청산에 들면 다시는 나오지 않으리.**

이 시는 '산승에게(贈山僧)' 혹은 '입산시(入山詩)' 로 구전되어 오던 것인데, 지금은 부산 해운대 '고운선생동상시문' 에 함께 새겨져 있다. 입산수도를 서원한 승려들이 가끔 산문 밖으로 일을 보러 나다니는 것을 두고 '산이 좋으면 왜 나다니느냐' 고 물으며 자신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다지고 있다. 그러한 둔세의 의지는 물소리로 온 산을 에워싸서 세속의 시비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마음과 그대로 이어진다.

최치원은 가야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많은 곳을 유람했다. 경주 남산과 부산 해운대, 지리산의 피아골과 쌍계사 등지에 발길 닿은 흔적이 전한다. 명승지를 찾아다니며 울적한 심사를 달랬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최치원은 엄청난 양의 글을 지었고, 그가 관심 보인 분야도 유학은 물론 불교, 역사, 풍수지리 등으로 광활했다. 특히 부친이 창건에 관여한 것으로 전하는 숭복사의 사적기인 대숭복사비문과 쌍계사 진감국사비문, 봉암사 지증국사비문, 성주사 낭혜화상비문 등의 비문은 '사산비명' 이라 하는데, 그 문장과 학식이 돋보이는 불세출의 명문이다. '사산비명' 이 없었다면 9세기 신라 불교의 진면목을 살필 수 있는 기록도 없을 것이다.

해인사가 화엄종 사찰이기도 하지만 최치원은 화엄종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 지금은 전하지 않지만 '부석존자전' '석순응전' '석이정전' 등의 전기 작품을 썼다. 부석존자는 의상 대사의 별칭이고 순응과 이정은 해인사를 창건하고 발전시킨 주역들이다. 이들 전기가 오늘까지 전한다면 해인사의 창건 초기 역사는 한층 명백해질 것이다.

### 희랑의 화엄강론 찬탄

최치원이 홍류동으로 들어와 해인사 스님들과 교유할 때, 해인사에는 화엄종장으로 일컬어지는 희랑(希朗)과 관혜(觀惠) 스님이 있었다. 당시는 신라의 국운이 쇄약해지면서 견훤과 왕건이 세력을 키워나가는 때였는데, 희랑은 왕건을 관혜는 견훤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최치원은 희랑과 더 깊게 교분을 가졌는지 〈화엄경〉을 강의하는 희랑을 위해 지은 시 6수가 전한다.

마갈제성광편조(磨竭提城光遍照)
차구반국법증요(遮拘盤國法增耀)
금조혜일출부상(今朝慧日出扶桑)
인득문수강동묘(認得文殊降東廟)

**마갈타성에 광명이 두루 비추었고**
**차구반국에 불법이 더욱 빛났네.**
**오늘 아침 지혜의 해가 부상에 떴으니**
**문수보살 동묘에 강림했음을 알겠네.**
– '희랑화상에게' 제3수 〈가야산해인사고적〉

6수의 시 가운데 세 번째 시다. 최치원은 인도의 불법이 신라의 희랑에게로 전해져 그 법이 빛나고 있음을 찬탄하고 있다. 앞의 두 구는 인도에서 불법이 흥하는 모습이고 뒤의 두 구는 해인사에서 희랑이 화엄학을 일으켜 문수보살에 비견됨을 강조하고 있다. '마갈제성' 은 마갈타국이니 부처님이 정각을 얻은 곳이다. 차구반국도 차구가국(遮拘迦國)이라고도 하는 나라 이름인데 〈개원석교록〉7권에 따르면, 그곳의 국왕이 대승불교를 좋아하여 반야(般若) 대집(大集) 화엄(華嚴) 등의 경전을 봉안하고 전독(轉讀) 법회를 열었다고 한다.

제3구의 '부상' 은 동해 바다에 떠 있다는 전설의 나무[神木]다. 그러므로 '지혜의 해가 부상에 떴다' 는 표현은 동쪽 나라인 신라에 지혜의 해가 떴다는 표현이다. 이는 제4구에 나오는 '동묘' 와 호응하는데, 동묘는 동쪽의 사원 즉 해인사를 의미한다. 이 두 구절을 정리하면 희랑의 화엄학 강론이 문수보살이 강림해 불법을 설하는 것과 같다는 극찬인 것이다. 찬탄은 다음 수에서도 이어진다.

천언비교종천수(天言秘敎從天授)
해인진전출해래(海印眞詮出海來)
호시해우홍해의(好是海隅興海義)
지응천의위천재(只應天意委天才)

**진실한 말과 비밀한 가르침을 하늘에서 주었고**
**해인의 진리가 바다에서 나왔네.**
**훌륭하여라, 바다 구석에서 깊은 뜻 일으켰으니**
**그야말로 하늘의 뜻을 천재에게 맡겼네.**
– '희랑화상에게' 제4수 〈가야산해인사고적〉

세 번째 수에 이어 네 번째 수에서 최치원은 희랑과 그가 강론하는 화엄경의 진수를 보다 확연하게 설명하며 찬탄한다. '해인' 이란 '해인삼매' 이니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할 때 들었던 선정이다. 풍랑이 멈춘 바다에 만물이 비춰지듯, 일체의 번뇌가 소멸한 선정 속에서는 일체의 법이 밝게 드러나는 것이다. '진전' 이라는 말 역시 진리를 뜻하니, 화엄경과 해인삼매 그리고 해인사라는 절의 이름이 모두 한 통속이다. 진리의 바다는 넓고 고요함을 최치원은 매우 포괄적으로 내비치는 것이다. 이렇게 화엄의 법을 찬탄하고 뒤에 이어 그 법을 강론하는 희랑의 덕화를 '하늘이 뜻을 맡긴 천재' 로 승화하고 있다.

세상을 피해 가야산 홍류동 계곡으로 들어 간 최치원. 정말 그는 신선이 되었을까? 농산정 앞 계곡물은 오늘도 온 산을 에워쌀 기세로 힘차게 흐르고 있다.

## 마가 스님 BTN 치유콘서트 진행
### '마음 꽃이 피었습니다' 1월 13일 첫 방송



이 시대의 힐링 멘토 마가 스님이 BTN 치유콘서트 '마음 꽃이 피었습니다' 로 대중들을 찾아간다. 1월 13일 첫방송을 앞두고 있는 '마음 꽃이 피었습니다' 는 참 행복의 시작을 이끌어주는 힐링 프로그램이다.

마가 스님은 쉽고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식의 15분 미니강연을 시작으로 출연자들과 본격적인 마음치유 시간을 갖는다. 여기에 마인드 힐링 전문가 '윤재진' 선생이 함께 해 좀 더 진솔하고 깊이 있는 치유를 진행한다.

방송은 △내 마음 바로보기-나 자비명상 △가족의 의미 깨닫기-가족 자비명상 △소통과 공감 배우기-동료, 인간관계 자비명상 △자비와 사랑으로 채우기-용서 자비명상 등으로 꾸며지며 6개월 동안 총 24회 방송된다. 방송은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 수요일 오전 4시 · 목요일 오후 8시 · 일요일 오후 2시다.

내 마음을 바로 보고 원망과 미움을 지우며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자 한다면 마음공부의 문을 두드려 보자.

정혜숙 기자

##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를 만난 클래식'
### JK챔버오케스트라 권혁주 협연… 1월 19일



방학을 맞아 가족콘서트 '영화를 만난 클래식' 의 무대가 펼쳐진다. 지휘자 김의명이 이끄는 JK챔버 오케스트라와 권혁주가 협연하는 이 공연은 1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아카사엔터테인먼트(대표 강형진)가 기획한 이 공연은 파가니니 무반주 카프리스 24개 전 곡을 전국 순회 연주했던 권혁주가 무대에 올라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JK 챔버 오케스트라는 영화 속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 가족 콘서트 '영화를 만난 클래식' 을 연다. 연주자 중 바이올리니스트인 유지연이 직접 영화와 클래식을 이야기하는 무대도 마련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영화 '엘비라 마디간' '파리넬리' '시네마 천국' 과 '미션'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과 우리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 등의 음악도 연주된다.

지휘 김의명,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피아니스트 김성연, 소프라노 임세라, 카운터테너 이재희 등이 무대에 선다. 티켓은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이다. (02)2157-0778

정혜숙 기자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연꽃 받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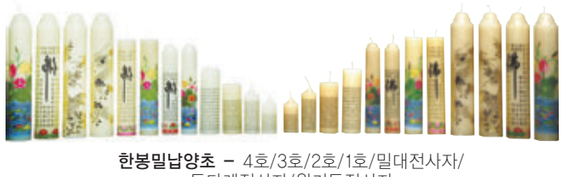
밀납양초 교체형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핑크/옐로우/살구/그린/개나리 (7.4ϕ×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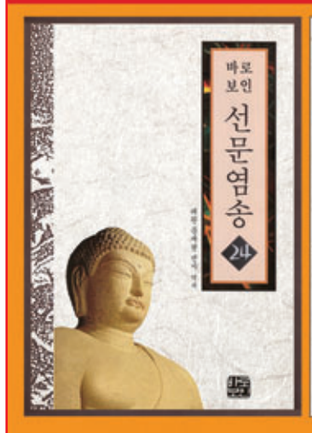


한봉밀납양초 – 4호/3호/2호/1호/밀대전사자/돈타레전사자/원기둥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약쑥1호예술연꽃양초/야광 연꽃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3, 64번째 저서 출간!








바로보인 천부경

1986년 5월 15일, 당시 단군선양회를 이끄시던 안호상 박사님과 김경수 참의원님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즉석에서 현토하고 설했던 것을 1997년이 되어서야 출간하였다.

이 책에는 삼부경인 천부경, 교화경, 치화경이 함께 실려 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혜안의 통찰력으로 밝힌 우리 조상만의 사상, 인류를 선구적으로 이끈 자랑스러운 봉화적 역서, 삼부경!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4권 출간! 운문 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신간! 바로보인 간당론(看堂論)

이와 같은 도리에서 적시적소에 맞게 주장자를 쓴다면 반드시 어떤 경우와 어떤 말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한 번을 쳐야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와 어떤 말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두 번을 쳐야 할 때가 있으며, 또 어떤 경우와 어떤 말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세 번을 쳐야 할 때가 있다. 그러한 법리를 모르고 주장자를 친다면 눈먼 주장자라 하는 것이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가 일체 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 보였다.

정맥선원 대원 문재현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25 ~ 12/3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인생수업 | 법륜 | 휴 | 6 | 닦는 마음 밝은 마음 | 김재웅 | 용화 |
| 2 | 알고 보면 괜찮은 | 마가 | 불광출판사 | 7 | 치유하는 유식 읽기 | 서광 | 공간 |
| 3 | 스님의 주례사 | 법륜 | 휴 | 8 | 날마다 새롭게 | 일여 | 예담 |
| 4 | 비울수록 가득하네 | 정목 | 쌤앤파커스 | 9 | 괴로움 어디에서 오는가 | 정준영 외 4인 공저 | 운주사 |
| 5 |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 청전 | 한겨레출판사 | 10 | 생각의 끝에도 머물지 말라 | 성법 | 민족사 |




# 내 삶의 '진짜' 주인되려면 간화선 수행하라



**새처럼 자유롭게 사자처럼 거침없이**
**장휘옥 지음**
**이랑 펴냄**
**1만5천원**

이 책은 동경대 대학원서 화엄 사상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고 동국대서 불교를 가르치던 저자가 교리의 실천을 위한 삶을 위해 교수직을 사임하고 10여 년 전 남해안 외딴 섬 오곡도에 들어가 간화선 수행에 매진하며 사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다.

저자는 간화선 수행을 하면 자신도 진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간화선 수행이란 불교의 선(禪) 수행법 중 하나로, 스승과 독참을 통해 화두를 들고 참선 하며 이와 함께 몸을 움직이는 수행인 울력을 병행해 깨달음을 얻는 수행법이다. 수행하면 점점 대상을 차별화해서 보는 일도 적어지고 삶에 대한 회의도 없어진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뿐이다. 그럼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 저자는 선 수행을 통해 일상생활서 선적으로 살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한다.

첫째,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남과 자꾸 비교한다. 그런데 비교에서 나온 우월은 생겨남과 동시에 열등의 멍에를 진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나' 는 비교할 대상 자체가 없는 소중하고 유일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간화선 수행을 통해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본래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면 우리의 하루는 그 자체로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둘째로는 화두는 머리로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늘 눈과 귀로 쉴 틈 없이 무언가를 보고 듣기 때문에 머릿속은 늘 생각으로 복잡하다. 화두는 이론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온몸과 마음이 화두 그 자체가 되어야 비로소 그 화두는 살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야 한다. 이에 익숙해지면 일상생활에서도 쓸데없는 생각도 들지 않아 더욱더 현재에 집중하는 선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셋째로 저자는 순간을 잘 살라고 조언한다.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는 지금 당장 그만두기만 해도 종적을 감추어 버리는 불필요한 걱정이 많다는 것이다. 쓸데없는 걱정과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데, 바로 선 수행이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저자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과 소유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 순간을 100퍼센트 살 수 있게 하는 '무' 자 화두를 들라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처럼 화두를 통해 간화선 수행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간화선 수행의 근본이자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무' 자 화두 드는 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무' 자 화두란 '없다(無)' 의 '무' 가 아니라 불행과 행복의 흔적도 없고 죽고 사는 것도 초월했으며,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대자유의 '절대무(絕對無)' 라는 것이다. '무' 자 화두를 제대로 들게 되면 일상 생활을 할 때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등 그 어떤 잡념도 끼어들 틈이 없으며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는 본인이 쥐고 있으므로 삶의 고비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힘 역시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람

**간화선 수행 근본은 '무' 자 화두**
**대자유 얻기 위한 삶의 과정 소개**
**변화받아들이는 내면의 힘 강조**

은 위기가 없으면 발전도 없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의 승패가 갈립니다. 삶의 고비에서 꼭 해야 할 것은 잊을 것은 미련 없이 잊고, 버릴 것은 미련 없이 버리는 일입니다"고 조언한다.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눈앞에 마주친 파도치는 바다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이번에 파도치는 바다를 잘 건넜으면 다음번 비바람 치는 바다도 마음의 동요 없이 지혜롭게 잘 건널 수 있다. 즉, 저자는 원하지 않는 변화를 불행으로 여기지 않으려면 그 변화를 다양한 삶의 모습 중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변화를 단지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여 지혜롭게 응하는 것, 이것이 진리대로 사는 첫 걸음이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책에는 삶의 마지막 마무리이자 또 다른 삶의 시작인 죽음에 대한 저자의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저자는 죽음은 삶의 또 다른 모습이며, 죽음이 있기에 삶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화합종단' 이끈 벽안 스님의 길을 본다

## 청백가풍의 표상 벽안 스님의 수행과 가르침

**김광식 엮음 | 벽안문도회 펴냄**



"종단이 당면한 과제로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3대 사업, 그중에서도 특히 도제 양성이지요. 그래서 종단의 최고 의결 기관인 종회의 의결을 거쳐 총림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불교정화 분규의 종식을 위해 진력했던 벽안 스님 〈사진〉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한 〈청백가풍의 표상…〉이 벽안문도회에 의해 출간됐다.

벽안 스님은 불교정화 분규가 한창이던 1957년 중앙종회 부의장에 피선되어 분규의 종식을 위해 진력했고 1962년 비구 대처 통합종단이 구성되었을 때 초대 중앙종회 의장을 맡아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 후 1974년까지 2대, 3대 종회 의장을 맡아오면서 화합된 종단상 구현을 위해 매진했다.

이번 문집은 벽안 대종사 25주기를 맞아 발간된 것으로, 1부 '우리가 만난 벽안 스님' 과 2부 '서간문, 기고문, 보도기사에 나타난 벽안 스님' 으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벽안 스님과 인연을 맺었던 스



**불교정화 분규 종식에 진력한**
**벽안 스님의 행적과 가르침 엮어**
**25주기 맞아 문도회 발간**

님들과 통도사 문중 스님, 벽안 스님의 문도 스님들이 벽안 스님과 함께 했던 지난 시간을 회고하고 있다. 2부에서는 은사 경봉 스님이 벽안 스님에게 보낸 편지를 비롯해 벽안 스님의 생전 송년 특별법어, 벽안 스님에 대한 추도사 등이 실려 있다.

책은 벽안 스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자 했다. 벽안 스님의 입산, 출가, 수행, 고뇌, 지향, 가르침, 사상 등 벽안 스님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책은 현대기의 통도사의 역사, 문화, 전통 및 가풍 등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벽안의 스님이 통도사에서 활동했던 그 기간은 파란만장의 격동기였다. 그런 기간에 통도사의 전통을 확립하고, 후학을 양성하면서, 통도사의 산중 화합을 기하였던 현장의 역사가 담겨 있으며, 특히 경봉 스님, 월하 스님 등 고승 간의 추억, 화합 절차탁마, 원융살림 등을 보여준다.

책은 스님의 개인적 기록과 더불어 조계종단사의 빈곳을 메워준다. 스님이 10여 년간 종회의장직을 맡는 동안의 역사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종단사를 새롭게 들을 수 있다.

책은 스님에 대한 연구를 가속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스님의 연구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동원되고 있거니와 책자가 그 사례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스님에 대해 좀 더 알게 될 것이다. 요컨대 스님의 글쓰기에 대한 폭, 깊이, 문화 등에 대한 지평을 넓혀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 모든 진리 명상으로 한다

## 고전에서 명상을 만나다

**손기원 지음 | 새로운 제안 펴냄 | 1만4천원**



지혜경영연구소 대표인 저자는 하루에 두 번씩 감사 명상을 한다. 그냥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전 내가 이대로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명상을 시작한다. 그러고 나서 자고 일어나면 다시 주어진 새로운 인생을 감사해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또 눈을 뜨자마자 다시 명상을 시작한다. 손기원 대표는 감사명상의 효과가 탁월하다고 설명한다. 10년 전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그의 직업은 회계사였다. 인솔회계법인 대표를 맡았던 그는 명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우기 시작했고, 삶의 본질적인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 17년 회계사 생활을 접었다. 수입은 3분의 1로 줄었지만, 명상을 하고 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였다고 했다.

자신이 얻은 것을 나누고 싶어 '지혜경영연구소' 를 설립하고 지혜경영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한다. 저자는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어 있을 때 우연히 명상 동영상을 접하고, 한국사상과 유학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 그가 최근 명상에 관한 책을 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지혜인 명상은 '나 자신에게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는 것' 으로 명상을 얘기한다. 명상을 통해 일념으로 집중해 '집중력' 을 얻고, 마음이 밝아지니 '신명' 으로 이어지며, 하늘같은 마음이 되니 저절로 '창조성' 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한류의 바탕에 한국인의 집중과 신명과 창조의 마음이 깔려 있으며, 그것은 한국인의 집중 명상법에 기인한 것이다.

저자는 한국사상과 유학을 공부하며, 우리 조상들이 유사 이래 해온 집중 명상과 본인이 직접 실천한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직접 개발한 명상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해 명상을 전파하게 됐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사상에서부터 유 · 불 · 도 및 퇴계 사상을 통해 진리학습과 명상을 소개한다. 특히 명상에 있어서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라고 저자는 조언한다. 한가지는 진리학습을 병행하자는 것이다. 여행에서 지도에 해당하는 것이 인생 여정에서 진리학습이다. 이 책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또하나는 명상의 결과를 실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과식하고, 걸핏하면 화내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배려하지 않으면서 명상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10여 년 전부터 서양에 일어난 명상 붐은 명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MBSR이라는 명상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 해소가 주된 목표이다. 스트레스가 심하고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임에 틀림없다.

이 책에서는 고대 한국인의 명상법부터 유학과 불교와 노장의 명상법을 살펴보고 있다. 진리를 향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공통적인 수단으로 명상법이 제시되고 있다.

**김주일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 상식을 부수고 자신을 '回光返照' 하라

**회광반조: 빛을 돌이켜 정신을 비추다**

불교로 읽는 古典 - ① 장자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은 곤(鯤)이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나 되는지 모른다. 그 물고기가 변하여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은 붕(鵬)이다. 붕의 크기도 몇 천리나 되는지 모른다."**

〈장자(莊子)〉의 첫 편인 '소요유(逍遙遊)'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이 붕새는 구만리를 날아서 남쪽 바다로 옮겨간다. 그것을 보고 뱁새가 비웃는다. "난 여기서 저기까지 날아가기도 힘든데 무슨 저런…. " 여기서 "대붕의 뜻을 뱁새가 어찌 알랴!"하는 말이 나온다.

이 대목을 읽고 "에이, 무슨 황당한 이야기야!"하고 책을 덮는 사람은 〈장자〉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 무언가 끌려서 〈장자〉를 계속 읽어가는 사람은 분명 이 소시민적인 일상을 넘어서려는, 개미 쳇바퀴 도는 듯한 이 윤회의 세계를 넘어서려는 꿈을 지닌 사람이리라.

〈장자〉를 읽고자 하는 사람은 무언가 이 현실에 안주하는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 〈장자〉는 목마른 사람에 시원할 물처럼 시원하게 막힌 속을 틔워주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그 느낌에 너무 빠져서는 안된다. "아! 〈장자〉는 진정 뱁새의 세계를 뛰어 넘는 대붕의 세계를 가르쳐 주는 구나. 나는 〈장자〉에서 대붕의 길을 발견했노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라면 〈장자〉를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닐지 모른다. 무슨 말인가? 장자가 대붕을 찬양한 것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 장자의 철학이 그렇게 간단히 대붕의 세계를 찬양한 것으로 끝난다면 너무 싱거운 일이다. 단지 너무 싱거울 뿐이 아니라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더 크게 더 높게'를 외치는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고,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면 어찌될 것인가? 우리의 일상적인 나날은 정말 뱁새의 삶처럼 가치 없는 것일까? 언제나 일등만이 대접받고 나머지는 전부 '루저'라 불리는, 수직으로 줄 세우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불교가 좋은 업을 지어 보다 월등한 신분과 지위, 재산을 가지기 위한 종교라고 생각해 보자. 거기에 무슨 해탈이 있는가? 진정한 대자유가 있는가? 해탈이란 신분과 빈부 지식을 넘어서서 누구에게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백정이 도살의 칼을 놓은 그 순간에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은 바로 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대붕만을 높이고 뱁새를 천하게 보는 관점에 빠지면 우리는 "더 크게, 너 높게, 더 강하게!"을 외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위태로운 길을 달려가게 될 것이다. 물론 〈장자〉에는 이러한 데로 나가지 않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반전이 있다. '학 다리를 잘라 오리 다리에 붙이지 말라', 각각 자신의 자연에 충실한 것이 각각의 행복이다.

대붕이 그렇게 구만리를 날고 싶어서 날겠는가? 그만큼 멀리 날지 않으면 자기의 큰 몸을 담을 바다를 찾을 길이 없어서이다. 또 뱁새처럼 아무데서나 폴짝 날아오를 수가 있는가? 그렇게 보면 크기 때문에 겪는 부자유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장자가 뱁새가 좋다고 한 것일까? 물론 그것은 더더욱 아니다. 대붕이 장자의 이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장자의 세계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은 한다고 한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추구가 장자의 세계에 동참하는 동기는 된다는 점에서, 장자가 대붕을 낮추고 뱁새를 높일 리는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 정답은 뭐야? 뭐가 그리 복잡해?" 이렇게 묻는다면, 우선은 그렇게 쉽게 정답 찾으려는 태도부터 버리는 것이 또 장자의 세계에 동참하는 조건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 밖에 없다. '장자'는 사람들이 각각 제 입장에 서서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철저히 쳐부수려 했던 위인이었기 때문이다.

장자는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인간의 미녀가 물고기 눈에도 미녀로 보일까? 물고기는 그런 여자가 가까이 가면 물속 깊이 숨어버린다. 또 인간은 습한데서 자면 허리에 병이 나지만 미꾸라지도 그러한가?

인간과 동물 각각이 각각의 입장에서 제일 편한 것이 있듯이, 사람 사람도 각각의 입장에서 각각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면 서로의 불행일 뿐이다. 또 제가 있는 위치에서 보는 것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도 정말 우스운 일이다.

**붕새도 뱁새도 제 입장 있어**
**자신의 주장만 강요는 안돼**
**다양한 비유로 새 안목 열어**

**〈장자〉, 中 선불교에 영향끼쳐**
**원효 스님 '화쟁' 제물론과 유사**





장자의 모습을 예상하고 그린 초상화〈사진 위〉와 탄허 스님이 쓴 〈장자〉 어구 8폭 병풍〈사진 아래, 제공=탄허 스님 홈페이지〉. 도교 철학의 한 축인 〈장자〉는 중국과 한국불교에 영향을 미쳤다. 상식을 넘어 새로운 안목을 주는 〈장자〉는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날카로운 성찰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삶고 죽음의 문제를 보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살아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죽는 것은 끔찍이 싫어한다. 그런데 장자는 이렇게 묻는다. 죽음의 세계가 어떤지 알기나 하고 그렇게 삶을 고집하느냐고. 죽음의 세계가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세계일 수도 있지 않냐고….

이렇게 〈장자〉에는 우리의 상식을 철저히 부수고 새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활발발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 직접 읽어보지 않고 개론서를 통하여, 아니면 논문을 읽는 것으로 〈장자〉를 알려 한다는 것은 〈장자〉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 되는 책, 그것이 바로 〈장자〉이다.

그렇기에 여기서도 〈장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단편적으로나마 전하여 〈장자〉읽기에 동참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다. 다른 우화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자.

**장석이라는 빼어난 목수가 있었다. 어느날 제자와 함께 여행하다 엄청나게 토지신 사당 나무인 느티나무를 보았다. 나무 그늘 밑에서 수천마리의 소가 머물 수 있고 백 아름이나 되는 듯 싶었다. 〈중략〉구경하는 사람 시장처럼 모였는데 장석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다. 제자는 너무나 감탄하여 그 나무를 구경하는가 장석을 종종걸음으로 따라가 "목수가 어떻게 저런 나무를 그냥 지나치십니까?"하고 물었다. 장석은 "그건 쓸데없는 나무(散木)다"라고 말하였다.**

왜 쓸데없는 나무라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쓸데가 있었으면 벌써 베어져서 그렇게 온전하게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쓸모 없는 것은 큰 쓸모(無用之大用)'이라는 말이 나온다.

무언가 쓸모있게 되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삶을 한꺼번에 뒤집는, 큰 스승의 방이나 할과 같은 말이 아닌가? 나는 과연 나 자신의 삶 자체를 훌륭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의 삶을 어떤 것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도구와 수단이 되는 것에 급급하여 정작 나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돌아보게 되면 정말로 너무나 슬픈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잊고, 나 자신을 도구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한참 주가가 오르고 있는 듯한 인문학을 더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까지 인문학을 강조하면서, 여기저기서 인문학 강좌가 열리고, 인문학이 매우 쓸모가 있다는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학문과 연계하면 어떤 효용이 나온다는 식을 이야기가 가장 많다. 그런데 과연 인문학을 그렇게 부각시키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인문학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를 훌륭하게 살도록 만드는 학문이다. 그러하기에 자잘한 쓸모를 말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다.

다른 비유로 말하자면 바로 쓸모가 드러나고 보이는 학문을 수도꼭지라 한다면, 인문학은 수원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원지가 갑자기 수도꼭지와 같은 쓸모를 보일 수 있다고 나선다면 가당키나 한 일이겠는가? 수원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여 무시하고 지나온 세월이 너무도 길어, 그렇게 무시당한 설움에 겨워서 당장의 쓸모를 주장하고 나서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당당하게 '쓸모 없음의 큰 쓸모'를 내세워야 한다. 또한 세상도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근원적 학문인 인문학의 위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당장의 쓸모를 인문학에 요구함으로써 인문학이 겉보기의 화려함 속에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쓸모없음'과 '큰 쓸모'라는 모순적인 말을 묶어 놓으니 이렇게 우리의 삶과 세계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활구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장자〉의 관점과 논리는 불교와 매우 친근성이 있다. 실제로 불교의 역사에 〈장자〉는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익숙하지 않은 불교의 개념을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매개로 이해하려 했던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중국적인 불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선불교는 〈장자〉의 사상을 토양으로 하여 일어난 것이라고도 말해진다. 특히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면 통발이 어떤 것인가는 상관없고, 뜻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전달 수단인 말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는 〈장자〉의 사상은 불립문자(不立文字), 이심전심(以心傳心)을 내세우는 선종 사상의 뿌리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불교 뿐만이 아니다. 한국 불교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원효 스님의 사상에도 장자의 사상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원효 스님의 대표적인 사상은 불교안의 여러 다툼을 화해시키려 한 화쟁 사상이다. 이 화쟁 사상의 논리와 〈장자〉의 제물론(齊物論)의 논리는 매우 유사하다. 이전의 교판(敎判)은 수직적으로 여러 경전의 가르침을 순위매김함으로서 불교를 통일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원효 스님의 시도는 모든 가르침을 수평적으로 놓고, 그것들이 각각 부처님을 가르침이라는 '한 맛(一味)'으로 귀일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시각과 방식이 중요하다. 가르침이 수직적 서열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질에 따라 중생도 수직적 서열이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은 결국 중생들을 서열화하는 '줄 세우기'를 부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효스님의 글을 읽으면 곳곳에서 장자 그리고 장자의 선배라 할 수 있는 노자 사상의 영향을 발견하게 된다.

부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좋은 말씀은 부처님 말씀이다. 불교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가진 종교이다. 그리고 그러한 넉넉한 품을 가진 불교의 선현들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부처님 말씀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혜명을 잇는 우리들도 계속 좋은 말씀을 부처님 말씀으로 만들어 불교를 더더욱 빛나게 해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장자〉는 가장 먼저 들어 보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책이다. 그 사상이 비록 적극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힘을 주는 것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명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는 날카로운 성찰을 준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기만 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피고, 푸른 하늘의 기운을 마음 한 가운데 품게 하는 책, 그것이 〈장자〉가 아닐까 싶다.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묘즙연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행 지음 / 신국판 / 318페이지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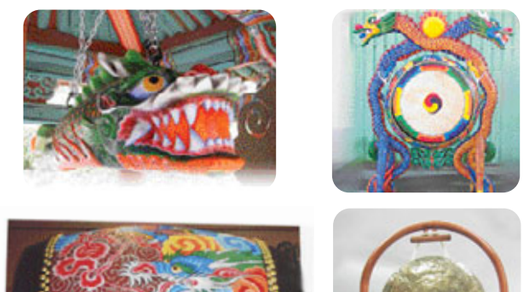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저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 입금계좌 : 농협 553-01-047918 대한불교비봉정사

저자 직접 상담. 개인지도

1. 최면요법, 빙의퇴마 과정
(우울, 불안, 공포증 치유 및 전생과 미래를 본다)
2.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3. 기문둔갑, 성명학 과정
4. 2명이상 지방출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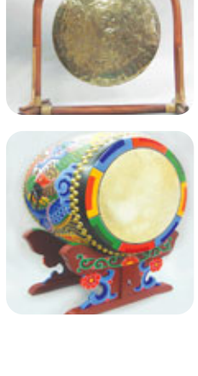
예약상담 사주, 작명, 빙의퇴마, 심리상담
빙의(신병) 출장 퇴마합니다.
전화 011-772-4606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불결한 것을 미관이 수려한 규격품으로
■ 미관이 아름답습니다.
■ 청소하기가 간편합니다.
■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 양초판매가 증가합니다.
■ 보시용으로 적합합니다.

| 크 기 | 가 로 | 세 로 | 높 이 | 재 질 |
|---|---|---|---|---|
| 50개꽂이 | 90cm | 60cm | 150cm | 스테인레스 |
| 100개꽂이 | 150cm | 90cm | 150cm | 폴리카보네이트 |
| 대초기준 | ※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문제작 가능 | | | |

사찰시설물 제작 전문업체
세 영 금 속
TEL 031)466-3356
H·P 011-269-3356

삶의 힌트

이츠키 히로유키 (일본 소설가)

〈1〉 기뻐하다

# ‘기뻐하는 데 능숙한 것’…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삶의 힌트〉(지식여행 刊)는 장르를 뛰어넘는 다양한 문예활동을 해온 일본 문학계의 거장 이츠키 히로유키가 인생의 통찰과 혜안을 전하는 첫 번째 에세이다. 저자는 숨 막히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인생의 ‘힌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의 대수롭지 않은 일, 기뻐하고 슬퍼하고 떠들고 망설이고 선택하고 그리워하고 꿈꾸고 잠드는 일, 그런 사소한 것에서 인생의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본지는 이 책의 내용을 4회 발췌 ·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주〉



**매일 한 번 기뻤던 일 수첩에 적자**
**어느새 좋은 일이 자꾸 보이게 돼**
**기쁨을 기다기리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는 데 익숙해져야**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츠키 씨가 제일 싫어하는 여성은 어떤 타입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술궂은 여성. 허영심이 강한 여성. 게으른 여성. 질투의 화신 같은 여성. 입만 열면 거짓말인 여성. 단정하지 못한 여성.

여러 유형을 생각해봤지만, 결론은 내릴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쟁이나 낭비벽이 심한 여성, 독선적이거나 투기를 부리는 여성이라도 매력적인 점을 하나라도 갖고 있다면 그 광채가 모든 것을 지워버릴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악녀에게 쉽게 마음을 빼앗겨 소설이나 영화의 좋은 소재가 되는 남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점이 거의 없는 여성을 상상하면, 이는 오히려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란 정말 제멋대로인 존재입니다. 어쨌든 질문에 대답을 해야 했던 저는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을 말했습니다. “저는 ‘기뻐하는 데 서툰’ 여성을 싫어합니다.”

‘기뻐하는 데 서툴다’ 혹은 ‘기뻐하는 데 능숙하다’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느낌만은 전해질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막내딸이 크리스마스에 에르메스 숄을 선물했다고 합시다. 어머니는 가슴이 설렐 정도로 기쁘면서도 어찌 된 일인지 다른 말을 합니다. “난 에르메스보다 평범한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제 생각에 이런 모습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면 이미 어머니의 그런 성격을 잘 알고 있을 테니 “엄마가 또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어”라고 뒤에서 웃으면 그만입니다. 그래도 역시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뻐하는 데 서툰 여성은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남들이 보기에는 ‘기뻐하는 데 서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게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천진난만하게 들뜬 모습을 보이고, 다양한 말로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도쿄나 교토같은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런 표현에 비교적 능숙하지만, 지방 출신은 사교적인 면이 좀처럼 세련되지 못한 법입니다.

‘의지가 굳세고 욕심이 없으며 꾸밈이 없는 모습은 곧 도덕의 이상인 인(仁)에 가깝다.’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무리 기뻐도 소란을 떠는 건 남자의 수치라는 생각입니다. 입을 꾹 다문 채 ‘음’하고 고개를 끄덕이면 뭐든지 마음이 통한다는 식이죠. 입에 발린 인사말보다 정이 담긴 눈인사 한 번이 훨씬 기쁠 때도 있습니다. 아내가 무릎을 확 꼬집는데도 눈꼬리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몹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아저씨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기쁠 때 그 기쁨을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보다 기뻐하는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요. 진심으로 기뻐한다면 이는 저절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진심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는 데 서툰 사람.’

이는 감정을 표현하는 테크닉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뻐한다는 행위 자체에 능숙한가, 아니면 서툰가의 문제입니다.

수심에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을 격려해주는 것은 일상의 기쁨입니다. 나이가 들어 실버타운에서 고독한 생활을 하고 있어도 과거의 수많은 기쁨을 추억으로 모아둔 사람은 행복합니다. 반복해서 떠올려도 추억은 닳아 없어지기는커녕 세월이 흐르면서 틀림없이 점점 더 눈부시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전에 하루에 한 번, 기뻐하자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남자의 ‘갱년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접어든 때라 일상이 너무나도 고단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기뻤던 일을 수첩에 적어두기 위해 날짜가 적힌 새 수첩까지 샀습니다.

그런데 새삼 하루 중에서 마음이 반짝거릴 듯한 기쁨의 순간을 적으려고 하니 좀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가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너무 큰 기쁨만 찾으려고 해서 당황했다는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수첩에 써둔 기쁨 컬렉션을 지금 다시 읽어보면 정말 쓸데없는 것 투성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신칸센 열차 창가 자리에 앉게 되어서 후지 산이 정면으로 잘 보였다. 기뻤다.’라고 휘갈긴 메모가 눈에 띕니다.

‘백화점에서 산 볼펜의 필기감이 매우 좋다. 정말 기쁘다.’ ‘평소와 달리 넥타이가 한 번에 예쁘게 매졌다. 이렇게 잘되다니 드문 일이다.’

이런 식의 메모인데 부끄럽지만 음식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많습니다. 싸고 맛있는 음식을 만날 때면 거듭 감격한 것입니다. 인간은 집어넣고 배출하는 존재라는 말도 있을 정도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작심하고 기뻐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나니 기쁨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을 바라는 마음의 촉수를 크게 펼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수첩에 다 적지 못할 만큼 좋은 일이 자꾸 보이게 되었습니다. 먹는 것이나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고상하고 문화적인 기쁨도 차츰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저는 일을 잠시 쉬고 교토의 한 대학교에 청강생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교실에서 들은 강의나 읽은 책에 대해서도 기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 대학생이었을 때는 교수님이 휴강을 하면 기뻐했지만, 나이가 들어 다시 학교에 나가니 수업을 꼬박꼬박하는 것이 더 기쁘더군요. 공부가 이렇게 기쁜 일이라는 것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의 변화 역시 흥미롭고 기뻤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어느새 미혹의 계절을 통과해버린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뻐하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지 않을까요. 거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써 기뻐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차츰 뭐든지 기쁘게 느껴집니다. ‘바보 아니야?’라고 다른 사람이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기뻐하는 인생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고마운 법이니까요.

자랑 같지만, 저는 이 나이에도 싸구려 크로켓을 토스터에 구워 먹으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초일류 요정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아도 맛없는 건 역시 맛이 없는 법입니다. 반면 가격에 비해 맛있는 음식을 만나면 하루 종일 기쁩니다. 바겐세일에서 싸고 좋은 물건을 사는 것도 한 가지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입에 발린 소리를 듣는 것 역시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싫지 않습니다. 정말일까 싶으면서도 기분은 좋습니다.

물론 ‘기뻐하는 데 능숙한’ 것은 타고난 소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가풍도 중요하고, 본인의 성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쁜 일이 많고, 기뻐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느새 ‘기뻐하는 데 능숙한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적극적으로 기뻐하려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데 능숙한 사람’과 달리 ‘기쁘게 하는 데 능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여성 작가와 대담을 했을 때, 그분에게 재미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거울을 보고 제 몸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칭찬해줍니다. 손가락이면 손가락, 어깨면 어깨, 배면 배, 부드럽게 매만지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진짜 대단해, 라고 칭찬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몸 이곳저곳의 세포가 피부 아래서 ‘뽁뽁’ 소리를 내며 기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샤먼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라 그런지, 묘하게도 실감 나게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피부 아래의 세포가 ‘뽁뽁’ 소리를 내며 기뻐한다는 비과학적인 표현도 그다지 부자연스럽지 않더군요. 어쩌면 정말 세포가 기뻐하며 생기를 되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과학은 천천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적인 정신에서 고대의 자연과학의 관련성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변화하고 있는 듯합니다. 과거에는 종교와 의학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승되었다는 사실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몸과 마음의 새로운 연결 방식에 대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칭찬에 의해 육체가 변화한다는 생각은 지금까지는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항체의 면역 작용이 변화한다는 것도 사실인 듯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병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할 줄 알아야 자신의 몸과 영혼을 기쁘게 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나 이외의 외부 세계, 타인, 그리고 다른 생명체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기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끝에서부터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말을 걸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육체도 있는 힘껏 보답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사랑은 나르시시즘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자기애로 번역되는 나르시시즘은 어쩐지 찜찜한 느낌이 따라다니는 말입니다. 나만 좋으면 다른 사람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자기 본위의 감정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는 인간은 다른 것도 긍정하지 못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인간은 타인도 미워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긍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자신을 긍정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야나기타 구니오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사람에게 말없이 들꽃 한 송이를 내미는 마음이 일본 문예의 전통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위로하는 문예’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지,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충분히 알기 때문에 나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쁘게 살고 싶어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쁨을 기다기리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는 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어도 좋으니 그것을 오늘 하루의 수확으로 삼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기뻐하는 데 능숙한 것’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이츠키 히로유키가 쓴 〈삶의 힌트〉(지식여행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츠키 히로유키**는



1932년 후쿠오카 현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한반도로 넘어와 논산에서 유아기를 보내고 서울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1952년에 와세다대학교에 입학했지만, 학비를 내지 못해 중퇴했다. 그 후 르포라이터, 방송작가, 편집자 등 많은 직업을 거쳐, 〈안녕히, 모스크바 불량배〉로 1966년 ‘소설현대신인상’, 〈창백해진 말을 보라〉로 1967년 ‘나오키상’을 받으며 파격적인 데뷔를 했다. 집필한 작품으로는 〈바람의 왕국〉 〈계엄령의 밤〉 〈렌뇨〉 〈따오기의 무덤〉 등이 있다. 작품집으로는 〈이츠키 히로유키 소설전집〉(전 36권) 〈이츠키 히로유키 클래식 소설집〉(전 6권) 〈이츠키 히로유키 전기행〉(전 6권)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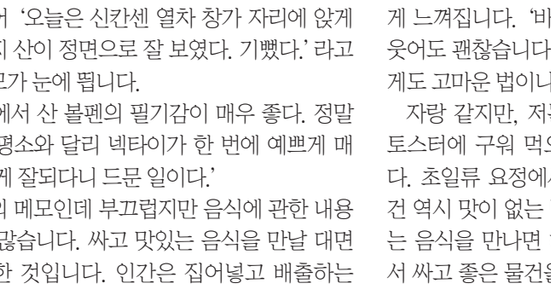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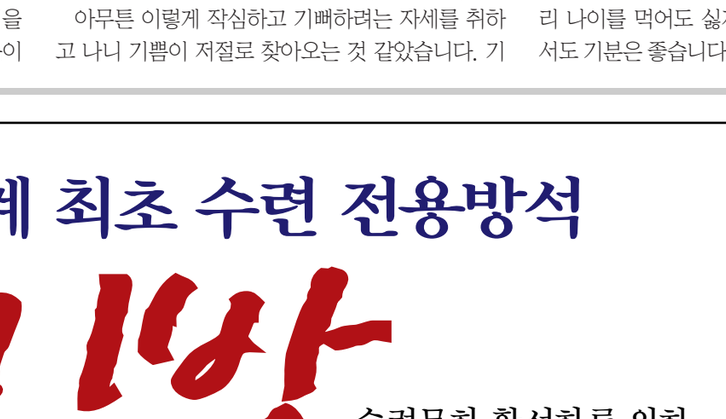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94년도 보이차茶

**본초강목습우**(本草綱目拾遺)
“보이차고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보이차는 장을 원활하게 하여 그 움직임에 걸림이 없게 한다. 보이차는 까만 옷 빛깔과 같은데 술을 깨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 보이차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담을 풀어주며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그 즙을 잘 생기게 하는 바, 그 효능은 참으로 크다. 입안에 목에 상처나 염증이 있으면, 차고를 5분정도 머금으면 다음날이면 낫는다. 데었을 때도 상처에 바르면 치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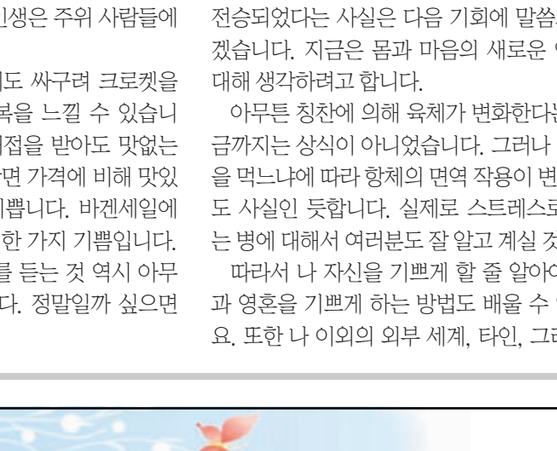
**사모채방**(思茅採訪)
“소화를 도와주며 한랭한 기운을 몰아내고 해독작용을 한다.”

**백초경**(白草經)
“풍이 생기거나 음식이 잘 다스려지지 않거나 화기가 일때.....보이차 두잔을 끓여서 복용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운이 모두 밖으로 나온다.”

**청나라 오대운**(吳大勳)의 전남견문록
“보이차의 효능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를 다스린다. 막힌 것을 뚫고, 풍한(風漢)을 치료한다. 사람에게 가장 유용한 물건이다.” 라고 극찬.

**물리소지식**(物理蘇知識)
“보이차는 쪄서 덩어리로 만드는데, 서번에서 사 갔으며, 모든 물건을 잘 소화한다.”

**수식거음식보**(隨息居飮食譜)
“차는 약하게 쓰고 달며, 찬기운이 있다. 보이차는 맛과 기운이 강하고 세며 구토, 풍, 가래에 좋고 고기를 잘 소화시키고 장염이나 이질, 콜레라도 치료한다.




94년도 산차 120g
차통(자사) 크기 : 높이 9㎝ × 지름 7㎝
◆ 가액 : 11만원 (택배비 무료)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하는 것이 도리어 막히는 것이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저 장애 가운데서 보리도를 얻으셨느니라. 요즘 세상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만일 저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면 장애에 부딪칠 때 능히 이겨내지 못해서 법왕의 큰 보배를 잃어버리게 되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랴.
(보왕삼매론)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신심깊은 독신자 공양주 구합니다**
(50대)
054)782-0659
011-9571-6559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달마도와 소나무 그림**
원하시는 규격으로
그려 드립니다
(반야심경 금니사경, 용, 호랑이,
말, 다묵화, 선묵화 등)
010-8718-6262

**초중생 한문학당**
1차 : 12월 30일 ~1월 4일
2차 : 1월 6일 ~ 1월 11일
새로운 나를 발견하자
안면암 홈페이지 템플스테이
'일정안내란' 참조
대한불교조계종 안면암
041)673-2333
010-9407-0108

**획기적인 생약개발**
관절염 비염 각종통증
옻 안타는 사람
(옻나무+장수버섯)
옻 타는 사람 (함초,우슬 환)
35~40일분 8만원
황보건강 amesil.kr
010-5556-1526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법당화주 겸 종무보살 모십니다**
-불심이 돈독한 법당 일천불 분양
권선할 유능한 화주보살을 모십니다
-불심으로 귀의할 줄가 여행자
모집합니다
꼭 필요한 분만 전화주세요
(부산 금정구 소재 사찰)
010-6390-1899

**자비 미륵암 (청학동)**
미륵암 자비도량에서
삼신봉의 원력과 氣를 온 육신으로
받으시고 참선기도 하십시오
(1일 만원)
미륵암에서 함께 수행하며
지내실 분 모십니다
010-2828-7113
055)883-7385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관음춤·지전춤·살풀이·오행춤
반야용선춤·길배춤 외 기타 의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산청, 대원사)
기도하면서 자원봉사
하실 분 모십니다
055)972-8068

**공양주 일자리 구합니다**
010-3787-0108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특수한 기도법**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가족세우기 지도자과정 모집**
대 상 : 가족세우기, 조직세우기, 지도자 원하신 분
자신의 가족관계 치유를 원하신 분 (조상,부모, 부부, 자녀)
성공, 번영, 풍요, 건강 관계치유를 원하신 분
명 상 : 깨어남코스와 인도명상 여행안내
네이버 카페 - 원네스 행복한 가족세우기 참조하세요
신청 및 문의 :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삼보양초**
삼보양초의 장점
1) 심지가 견고하며, 최고급의 파라핀으로 제작되며 그을음이 적으며 오래 탑니다.
2) 냄새는 맑고 향기로우며, 촛물이 깨끗하고 투명하다. (최상품의 삼보향초)
3) 신상품 금초는 모양이 아름답고 불빛이 찬란합니다.
삼보양초의 종류
1) 원기둥 홈초 (대) 1박스 20개 ..... 9만원
2) 돈타레 홈 (중대) 1박스 40개 ..... 9만원
3) 밀대 (중) 1박스 50개 ..... 8만원
4) 등신불 (소) 1박스 40개..... 9만원
5) 신상품 금초 1박스 40개..... 11만원
▣ 삼보양초는 종도사찰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종단차원에서 공급하여
▣ 품질은 우수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주문은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불교용품상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택배비 포함)
▣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주 문 전 화 : 010-9421-0772
사업부계좌 : 농협 301-0121-9593-41 소원사
(사)대한불교삼보종 소 원 사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향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영가 찾는법 강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다음카페 "연꽃마을 복지관" 검색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914번지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

**갑오년 새해 첫 무료보시 단행**
● 법당엠프 일절 설치주문시 ➡ 무선마이크 1셋트 추가 무료보시
● 법당전용스피커만 주문시 ➡ 고급 YD-675 마이크 무료보시
(무료 보시 기간 : 2014년 1월 29일 까지 주문분에 한함)
위 기간내 주문하실 경우 실제 설치는 2월 중에도 설치 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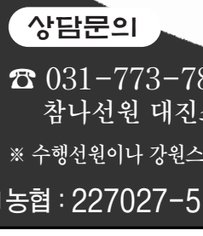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구즈넥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 문 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3년 10월 16일 수요일 - 오전 5시 50분 KBS 1TV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 마을 「마가목」 효능 방영
한방문헌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 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02)2004-8215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겉모습이 그럴듯하다 해서 모두가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 뜻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하느니, 공연히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도 말고 또한 겉모습만 치장하지도 말라. - 대반열반경 -

## 삼 보 사 찰 안 내

상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부산
- 법당 : 25
- 요사 : 35×2동
- 총부지 10,000
- 대지 650평
- 가액 : 12억

- 위치 : 의령
- 대지 : 목조25
- 법당 : 30방4개
- 대지 : 200
- 가액 : 4억

- 위치 : 포항시내
- 대지 : 55평
- 법당 : 25평
- 요사 : 방2개
- 가액 : 1억 3천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 홍천
- 목조법당50㎡요사채85㎡
- 토지2,100m2
- 접근성좋은사찰임
- 마을부근 위치좋음
- 양도금액2억9천만원

010-7347-1010(사찰전문)

##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4층 5층
- 보증금 : 2000만원
  시설비 : 2000만원
  월세 : 50만원
- 온천장 요지, 시설완비, 주인직

010-3836-6566

##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팔공산 지장도량
- 종교용지 227평 3층건물
  1층(50평) 후원 및 요사
  2층(30평) 법당, 3층(20평)선방
- 목조산신각 1평
- 영옥 봉안 납골당
- 원불, 석등, 영구위패단
- 가액: 7억 5천만원

053-983-0152

## 암 자 안 내

- 위치:창원시 마산합포구진동면 태봉리 349-13번지 마산에서 10분거리
- 삼존불 및 시설 일체 구비
- 촌집, 법당, 주지실, 공양간 창고
- 1년세 120만원

010-3386-1662

##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 대지 : 3000평
- 전각 : 6채
- 요사 : 120평
- 가액 : 33억5천
- 위치 : 서울
- 부지 : 5ㅋ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6억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 사 찰 ( 급 ) 안 내

### 아름다운 토굴 안내

- 총부지 970평 (칠보 삼존불 봉안)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50년역사와 정원수 다량, 나비형 큰호수
- 양도가액 : 1억 8천만원

### 양산(급)사찰

- 위치 : 양산 신도시 10분거리
- 대지 : 1350평
- 법당 : 33평 산신각 및 용왕각 기타 등등
- 버스주차장, 산세수려, 계곡물 철철
- 은행 안고 3억 인수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 주소 http://cafe.daum.net/temple0
직통 011-560-8522, 051-863-6622

##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큰도로변
- 2층건물에 2층 평수 60평
- 법당 30평, 공양간, 친견실, 침실 3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 8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절충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 즉시법회가능

010-9396-7133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감만동
- 2층 건물 중 2층 (30평)
- 주택밀집지역
- 삼존불, 신중전, 칠성전
- 산신전은 별도로 모심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010-2503-3899

## 사찰(급)안내

- 도심속에 산사의 맛을 풍기는 사찰
- 위치 : 부산 사하구 관내
- 대지 215평
- 가액 : 6억 5천만원
- 은행융자 3억원 (절충가능)

010-6237-5964

## 사 찰 안 내

- 위치: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899-68번지
- 농가주택, 빌라 24평 양도
- 가액: 4천 3백만원(저렴한 가격)
- 법당방, 방2개, 거실, 욕실, 베란다
- 내부 리모델링 깨끗,
- 확장 이전관계로, 혼자 계실분
- 오실 분만 연락

010-9787-5505

## 사찰부지 터 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 360번지
- 평수: 3,500평(오래된 금강송 소나무가 많음)
- 특징: 노적봉이 있는 좌청룡 우백호에 앞은 저수지요, 좌우는 큰 계곡물이 흐르는 백두대간 혈자리가 맺힌 곳
- 교통 : 동해바다 및 고속도로 I/C 5분거리
- 가액 : 1억 5천만원 (소나무 가격만 수억이 넘는 가치있는 땅)

010-3531-5562

##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010-3426-9393 (사찰전문)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팔공산 지장도량
- 종교용지 227평 3층건물
  1층(50평) 후원 및 요사
  2층(30평) 법당, 3층(20평)선방
- 목조산신각 1평
- 영옥 봉안 납골당
- 원불, 석등, 영구위패단
- 가액: 7억 5천만원

053-983-0152

## 포교원(급)안내

- 울산 남구 신정 시장 입구
- 2층건물에 2층 평수 45평
- 법당 20평
- 공양간, 큰방, 작은방, 옷방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전세도 가능
- 시설비 상담후 결정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9767-4119

## 신축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 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 + 토지 3천여평
- 전세 3천만원 5년 장기 임대 가능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추가법당 불사비 협의 인정해 드림

010-9647-0723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동고성 IC 5분거리)
- 벽방산 인근 • 산세 수려한 부지
- 면적 : 5,500평
- 시설 : 미륵불상(전라도 화강암, 7M, 20톤)좌대(자연바위 약20평), 유실주 약 150그루 주택1동(약30평),창고1동(약40평)
- 양도가격 : 4억5천만원 (미륵불상포함), 융자 1억6천만원
- 건강상 급 안내

010-9056-2451

## 사 찰 안 내

- 전망및도로 사정 좋은 바닷가 사찰
- 대지 약 500㎡, 건물300㎡(4동)
- 관세음보살상, 약사여래상
- 후불탱화 108위, 소불 500불
- 주차 10대가능, 대출 2억
- 가액:8억 3천만원(중개업자사절)

010-2372-7681
055)761-9646

##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소재(남김천 대로변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건물 : 기와형 32평, 개인등기 법정보장
- 대지 : 도지료 연 35만원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남향 법당 넓고, 현대식 시설, 생활 편리함
- 가액 : 5천 5백만원(시설비 포함)

010-7295-1259

## 사 찰 안 내

- 위치: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899-68번지
- 농가주택, 빌라 24평 양도
- 가액: 4천 3백만원(저렴한 가격)
- 법당방, 방2개, 거실, 욕실, 베란다
- 내부 리모델링 깨끗,
- 확장 이전관계로, 혼자 계실분
- 오실 분만 연락

010-9787-5505

## 별장같은 사찰(급)안내

- 위치 : 충청도청 10분 도립공원 등산로
- 총평수 1020평 (대지 : 190평, 전 830평)
- 황토건물 50평(1,2층)
- 마당에는 450년된 큰나무. 오래된 돌담. 연못조경
- 옆 큰저수지, 자연경관최고,8대명당
- 가액: 답사 후 결정

010-9805-5528

##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학장동
- 독채건물, 인법당, 석가, 관음, 지장, 산신각, 거실, 주방, 창고, 마당, 세면장, 화장실2개
- 육십년 된 암자
- 버스정류소 40m 아파트 밀집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

011-768-1355

##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북구
- 약 90평
- 시설완벽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010-8606-7918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재래시장 앞 버스정류장
- 2층 25평. 공양간 방 1
- 3층 25평, 법당(삼존불), 방 1,
- 옥상, 옥탑방 1
- 가액 : 보증금 1천원, 월 40만원
- 시설비 2300만원

010-7139-5566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
- 대지 800평, 대웅전 20평,
- 산신각 3평, 요사채 20평
- 주차장 100평,
- 산세수려하고 기도도량
- 가액: 2억 3천만원

054-782-0659
011-9571-6559

##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종교용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가액: 8억 8천만원

직)010-3858-8335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사진 열람)
※ 주소 http://cafe.daum.net/temple0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2층 건물
- 1층 요사채 35평, 2층 대법당 30평, 산신각 5평
- 법당, 산신각, 인등, 산신불, 관음불, 지장불, 영단 후불탱화(입체금탱화)
- 황토방 2, 주방 15평
- 조경시설, 과실수, 텃밭, 우물, 용궁
- 즉시법회가능, 집기 일절
- 가액: 4억 5천만원

010-4561-2149

## 포교원안내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45평
- 4층 건물 내 2층
- 최고요지 위치
-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0-9036-2131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3층 중 2층
- 약 60평
- 위치, 시설, 환경 특 A급 (넓은 법당, 넓은 공양간, 방3, 샤워실)
- 보증금 : 1천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 2700만원(조절불가)

010-5560-1733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중심부
- 대지 2013㎡
- 법당. 요사채 : 약 100평
- 후원, 창고 약 15평
- 주차공간 넓고, 경관 수려함
- 가액 : 답사 후 결정
- 직거래-부동산 사절

010-7582-0098

##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 접 해발 700m)
- 대지: 1815평 부지조성 완료 , 정동향
- 법당 목조 30평, 산신각 목조 7평
- 요사채 25평, 창고 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 사용
- 노인복지, 요양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임
- 가액: 13억

010-3403-3355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오금동
- 평수 : 45평(5층 중 4층)
- 삼존불, 칠성, 산신
- 방2, 학업상 급 안내 (꼭 방문후 결정)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88만원
- 시설비 : 4,000만원



문의 010-4138-5523

##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 (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 강 식 : 2014년 4월 6일 (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곡성9길 28(곡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fax 054)674-26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 新 영성 향상법

제 1기 수련회원 모집 (스님, 재가자 환영)

- 회원대상 영성의 수준을 높여 활기차게 살면서 더욱 높은 과학적 포교에 힘쓰려는 분.
- 수련기간 2014년 1월 21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3개월간 (하루 2시간씩, 18시 ~ 20시)
  선착순 10명 / 수련비 30만원(10만원*3개월)
- 수련내용 브라이언 박스이 스트레스 힐링(듣기명상) 실습.
  영성의 중심기둥 세우기 실습 등.
- 학습내용
  프랭크 킨슬러 박사의 순수자각과 유필링론
  캔 윌버의 영성과 초월적 성장론
  코스몰로지(우주생명관)의 확립을 위하여
  唯識과 카르마의 법칙.
  연기론과 6바라밀의 실천론
  구르지에프의 다중 아이덴티론과 셀프 리멤버링론
  화이트 이글의 힐링과 실버버치의 가르침
  운명을 개척하는 유전자 활성화법
  뇌에서 스트레스를 지우는 종합기법
  아리타 히데호 교수의 세로토닌 신경 활성화법
  감동뇌, 공감뇌를 활성화하는 매일매일의 생활법

레이키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정통성 있는 레이키연구회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010-8392-2557
www.reiki.co.kr / e-mail : reiki@reiki.co.kr



대행 스님



# 자기 소견으로 안된다 하더라도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내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죠. 그 뜨물 한 그릇 얻어먹고 나뭇짐을 해다 주려고 그랬는데, 은사가 그냥 한 번 때려 제껴서는 쓰러뜨려 놓고 "이놈아! 나무 한 짐으로써 무주상 보시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난 뒤에는 "아차, 무주상 보시가 이렇게 광대무변한 걸 몰랐구나. 그 핵심적인 여기에서의 한생각이면 무주상 보시의 행을 할 거를 내가 이 나뭇짐을 하느라고 이렇게 끄달렸구나." 하곤 그냥 무르팍을 탁 치고, 무르팍 깨진 거를 어루만지면서 "고맙다, 고마워." 했다는 얘기 말이에요. 이렇게 자비하고 평등하고 묘하고 이런 법을, 우리가 이렇게 모두 재료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른대서야 어떻게 앞으로 실천해 나가며 어떻게 이 혼란한 세상을 헤쳐 나가렵니까. 포교 좀 하고, 다니면서 설법하고, 다니면서 뭐 하나 집어 주고 이러는 게 무주상 보시가 아닙니다. 그거는 새 발의 피예요. 우리가 쌀 수억 가마니를 갖다가 고아원에 줬다고 해도 그건 새 발의 피예요. 물론 물질로도, 물질 아닌 무주상 보시로도 함께 겸용을 해야 이것이 중용이 되죠. 그러나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다.' 이런다면 벌써 그 중용은 그냥 해체가 돼 버리고, 진짜 핵심적인 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이름해서.

지금 쿠웨이트나 이란 문제, 세계적인 문제, 이북 문제 등 뭐 이런 문제들이 허다하지만 그것을 사람이 사량으로 얘기하면 온갖 이론이 그냥 쫙 붙어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완화될 수도 없다."고 하죠. 논리적으로 교수들이 얘기할 때, "강대국에서 이럭하니까 이북은 고립될 것이다. 고립이 됨으로써 정책을 완화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한국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북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붙죠. 그런데 부처님 법에서는 안 그래요. 내가 한다면 하고 만다면 말지, 부처님 법에는 이유가 붙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날더러 이제 미쳤다고 하겠죠. 허허허. 어휴, 그러다 보니까 더운데요.

그러나 곰곰이 잘 생각해 보고 실험하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은 내 속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기 속 알면 내 속 알고, 내 속 알면 일체제불의 속을 알 텐데 뭐가 걱정입니까? 일체제불의 속을 안다. 그렇죠! 저 꽃 한 송이의 속도 알 테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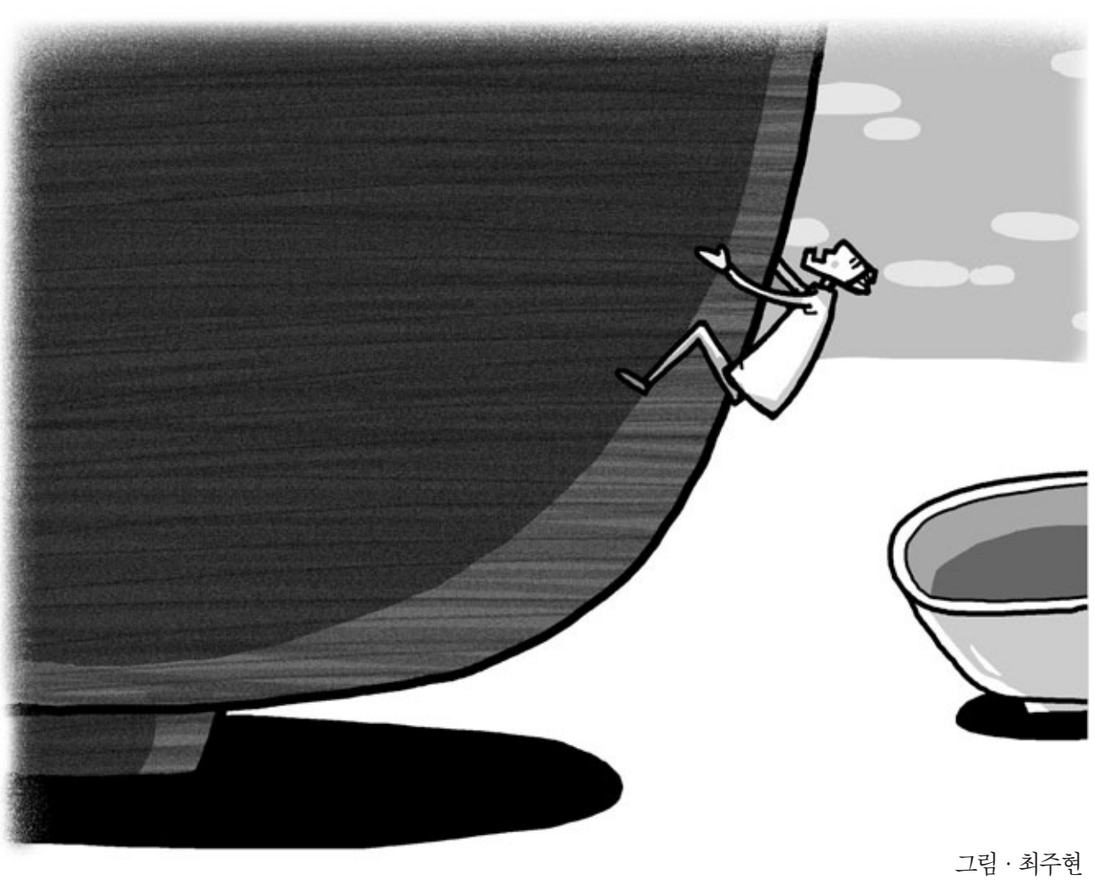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 전에 외국에 갔을 때입니다. 누가 꽃을 아주 색색가지로 한 아름 꽂아다 놨어요. 그런데 나도 무의식중에 그냥 "아휴, 꽃도 참, 누가 꽂아 놨는지 고상하게 한 종류만 꽂아 놓으면 됐지, 이걸 그냥 색색가지로 갖다가 놔서 어지럽구나." 그러고선 목마르니까 무의식중에 그냥 냉장고를 열고선 물을 마시는데 그 꽃이 말하는 거 있죠? "내가 이 파란 옷을 입고 나왔지만 당신을 도울 수 있어."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하니까, 그것도 말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허허허.

바로 전에 다리를 뱀한테 물린 사람이 왔었는데 영 낫지를 않아서 구멍이 이만큼 뚫렸으니까 병원에서 가제를, 전부 약을 넣어서 소독을 해서 거기 넣어 줬는데 그게 새 살이 안 나오니깐 엉덩해져서 그냥 그걸 붙들고 아주 쩔쩔매더라고요. 그런데 걔가 그러는 겁니다. 자기를 짓찧어서 그 가제에다 묻혀서 넣으라는 거죠. 자기가 준다 이거죠. 이게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반면에 말 없이 말을 듣는다. 말 없이 말을 듣고 말 없이 말을 받아들이고 행하고….' 이것이 또 가까운 데서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고 여기 있어도 같이 말을 할 수가 있고 그걸 들을 수가 있다. 그리고 볼 수가 있다. 뼈가 몇 개가 달린 거까지도 볼 수가 있고 사마귀가 붙은 거까지도 알 수 있다. 또 과거에 죽은 사람의 형태도 그냥 낱낱이 나온다 이겁니다, 모두가. 이렇게 좋은 공부를 안 하시렵니까? 허허허….

그러니 부처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이자 중생입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이다.' 그런 소리를 가만히 듣고 생각을 하니까, 그전 일입니다. '아하, 몸뚱이 속에 중생들이 우글우글하구나. 몸뚱이 속에 중생들이 우글우글한가 하면, 이 상반신 하반신이 전부 중생들이요, 부처구나.'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왔고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왔지 딴 데서 온 게 하나도 없더라고.

제가 그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숙명통(컴퓨터), 타심통(탐지기), 신족통(팩스), 천안통(천체 망원경), 천이통(무전 통신기), 누진통(레이더망)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이게 말로 이름을 지어 놨다 뿐이지, "물이 넘치면 안 돼!" 할 때 거기 전체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물 넘치면 안 돼!" 하는 그 순간에 전체가 돌아가는 게 그냥 딱 집중되는 겁니다. 그게 따로따로 벌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눈 따로 있고 귀 따로 있고 이름도 다르죠? 코 따로 있고 혀 따로 있고 몸뚱이 따로 있고. 그렇게 따로 있고 이름이 전부 각각이면서도 한 몸뚱이에 붙었죠. 그래서 눈 · 귀 · 코 · 혀 · 몸 · 뜻, 육식(六識), 이것이 바로 한꺼번에 주어져서 한꺼번에 나가는 이치죠. 손가락이 열 개다 하면 새끼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뭘 쥐는 데 꼭 쥐어지지 않죠. 그렇게 일을 못 하듯이, 그 나사가 하나가 빠져도 안 되듯이…. 인간에게는 그렇게 시스템이 다 아주 굳건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수화풍의 재료를 바탕을 삼아서 광력 · 전력 · 자력 · 통신력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기가 적으면 맘대로 끌어서 기를 넣을 수 있는 운전사가 될 수 있고…. 자기가 본인이니까, 핵심이니까 기를 넣을 수도 있고, 병이 났으면 한생각에 그 파업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니까. 여기 공장 하는 공장장들, 직원들이 다 자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가난이든지 뭐든지 전부예요. 그래서 자기부터 알고 자기 중생부터 제도해야 그 중생들이 털구멍을 통해서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고, 말함이 없이 말하면서 모든 걸 정돈시키고, 보이는 몸뚱이를 턱 봐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인간에게 아주 편리하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부처라는 것이 주어져 있다 이거죠.

그러면 나만 말했으니까 이제 질문 좀 하세요. 여기 배꼽시계가 조금 갔으니까. 허허허…. 전에 저는 산에 다닐 때요, '몇시나 됐나?' 이러면 '이쯤 됐겠구나.' 또 '동쪽이 어딘가?' 하고 보면 '여기쯤 되겠구나.' 이렇게 알았죠. 그냥 그냥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지 어떻게 그 눈 속에 다닙니까? 사방에서 무엇이 나타나서 해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전부 친구예요. 전부 친구이기 때문에, 새들

☞ 22면으로 계속


##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해원사

• 주 지 : 봉화(류수원)

•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4동 3003-27

위 사찰과 위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8일

미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 영남범패학인 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3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진주교육원〉

* 입교일시 : **2014년 1월 13일 〈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 수 강 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① 상용의식 및 재의식
② 사물 다루는 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문의전화 : ☎ 055)747-8419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

##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 스님 신발 및 불자용 신발

스님, 불자여러분 신발 고르기 힘드셨죠?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마음으로 좋은 품질과
편안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시중의 거품은 빼고, 우수한 품질로
직접 생산해서 판매합니다.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공장이라 믿을 수 있습니다
15년 신발 산업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발이 편안합니다.

법복과 더욱 어울려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연출 할 것입니다.



<여명>

※ 제품의 사이즈 교환,
A/S까지 가능합니다.



<자비>



<온누리>

판매가격 : ₩ 35,000원
(※ 5만원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 입금계좌 : 부산은행 061-01-040795-8(예금주 : 박선영)
♣ 판매문의 : 경도상사 051)338-5408 / 018-556-8911

# 자기부터 알고 자기 중생부터 제도해야 합니다

☞ 21면에서 계속

이나 나무들이나 전부 친구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벌써 "야, 이 친구야! 이리로 가지 그리로 가?" 그러고 인사를 하죠. 여러분은 인사하는 걸 못 보죠? 그래서 이리로 가도 저기로 가도 모두 친구요 벗이요, 외로울 게 하나도 없고 고독할 게 하나도 없고…. 내가 공부하려고 해 볼 거는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남한테 기대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다 극복했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자2(남):** 큰스님같이 고행을 하지 않고도 마음을 깨칠 수 있습니까?

**큰스님:** 그렇죠.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왜 예전에는 종이 하나 만들려고 해도 나무껍질을 삶아서 온통 고생을 해 가면서 손으로 했지만, 지금은 그냥 탁 하면 잘라지고, 탁 하면 그냥 나오고, 아주 차곡차곡 나와요, 그렇게. 지금 그런 세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도 그만큼 빨라요. 한생각에 그만큼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몸뚱이로 고행을 했다 하는데 예전에 부처님 말씀처럼 몸뚱이 떨어지면 말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무슨 몸뚱이로 고행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저 이 마음공부를 할 때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네놈이 하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고난이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고난이 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친구야,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지 않아도 알아, 네가 하는 걸.' 이런다면 그게 금방 바뀌지죠. 금방 바뀌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안다면, 각자 자기 핵심을 안다면 내가 고행한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전체 역대의 부처님 역사도 알 수 있으며 병풍 둘러친 듯한 이 세상도 알 수 있는 건데 그까짓 게 뭐가 문제입니까? 모두 나 아님이 없는데…. 연구하는 박사들 머리 속에 들어가 주려면 그만큼…, 그러면 그 박사 머리 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 박사가 고생한 것만치 다 자기, 자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데 뭘 "똑같습니까? 그것을 알게 됩니까?" 그러면서 여러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한 발짝도 떼 놓지 않고 자기 앉아 있는 자리에 자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변소간에 앉았어도요. 허허허….

**질문자3(남):** 어느 스님이 예수도 공자도 또 석가모니도 다 큰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큰스님:** 그런데 큰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역설적인 말을 할 필요도 없죠. 그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위대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도둑놈이라고 하기 이전에, 능력이 없어서 도둑질을 못하지 뭐, 도둑질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도둑질을? 그러니까 내 말이 그겁니다. 요만한 거 하나도, 내 몸뚱이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말고 다 내놔라 이겁니다. 다 내놓게 돼서 다 나 아님이 없을 때에 비로소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얘깁니다.

예수가 삼십이 좀 넘어서 그렇게 됐다던가 그러는데, 둘이 아닌 도리를 알고 있었지만 둘이 아니게 나툴 줄을 몰랐어요, 부처님처럼. 그래서 그분이 몸뚱이, 말로 전파하다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처님처럼 나툴 줄 알았다면 그때 몸뚱이는 그냥 앉혀 놓고도 모든 것을 행해 나갔을 텐데요.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 도둑놈도 조금 설익은 도둑놈이 돼 버린 거죠. 허허허. 도둑놈이 되려면 아주 그냥 몽땅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말고 집어삼키든지요. 그래, 또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내 몸뚱이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말고 다 내놔라.**
**다 내놓게 돼서 다 나 아님이 없을 때에**
**비로소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질문자4(남):** 일전에 영국의 우주 학자가, 그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기계를 조작해서 하는데 노벨물리학상을 탔죠.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양반이…, 호킹 박사! 그분이 블랙홀이란 얘기를 했는데, 우주가 생성되는 원리를 제일 비슷하게 얘기했다는 것 같습니다. 우주가 생성된 과정을 아무 물체가 없이, 불덩어리가 돌아가고 그 속에는 무(無), 없는 무, 불교에서 말하는 없는 무, 그냥 하나의 그 구멍에서…. 그래서 그 검은 구멍을 블랙홀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님은 늘 우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큰스님:** 그런데 나는 그 생성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생성 과정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연구해서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돌아가는 이 자체, 일체를 늘이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자재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지구도 그냥 삽시간에 부숴 버리려면 부숴 버릴 수 있고, 수명을 길게 하려면 길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몸뚱이에 비유합시다.

지금 우리 중생들이 지구 안에서 살듯이, 이 몸뚱이 내 집 안에서 생명들이 살고 있는데, 그 생명들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 즉 영원한 친구들로서 자재력으로써 이끌어 간다면,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굳어 가다가도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 없으니까 다시 생산이 되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이 몸뚱이도 수명을 더 길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다가 그냥 '아, 이대로 그냥 갔으면….' 하거나 '이제는 옷 좀 다시 입고 나와서….' 하든지, 또는 그런 생각도 없이 '아, 이젠 이만하면 됐지.' 할 때 그냥 옷 벗고 가게끔 돼 있잖아요. 이 별성도 그렇게 돼야만 되겠죠. 수명이 우리보다 길지마는 우리 생명 그 자체의 핵심이 바로 별성이니까요. 별성과 전부 직결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수명이 짧은데 이 짧은 거를 길게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어린애들을 놔두고서 죽으면 그 애들이 글쎄 얼마나 평지풍파를 겪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적인 문제를 연구할 때는 반드시 이 핵심적인 문제, 즉 중용이 필요하고 그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공부를 한다면, 수명을 길게 할 수도 있는가 하면, 그 몸뚱이를 둘 아니게 이끌어 감으로써 우리가, 하여튼 한 반 이상만 넘으면 그렇게 불국토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묘한 법입니다. 내가 '지구도 빨리 죽게 할 수도 있다.' 이러는 건, 이 인간의 몸으로 비유해 볼 때 의식만 빼면 안락사입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생성 과정을 다 얘길 할 수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건 무효입니다. 자재할 수 없다면 무효예요, 알아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다 본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다 듣는다 해도 도가 아니니라. 또 과거를 다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남의 마음을 다 지켜볼 수 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몸이 보이지 않게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간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다섯 가지 다 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 이 속에서 벗어나야만이 누진(漏盡), 즉 자유권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다 알아야 생성 과정을 아는데 그 생성 과정을 다 알아도 누진으로써 내가 "이거 물 넘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철통같은 대권(大權)이 없으면 안 되죠. 그건 무효죠. 모든 거를 통달하고, 그것도 이름해서…, 통달했을 때에 거기는 아무것도 붙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것이 옳기 때문에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이렇게 말한다."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옳다 했기 때문에 그만 거기에 걸린 거죠. 그거는 두루뭉수리가 되고 아무 쓸모가 없는, 한데 떨어지는 말이 돼 버리고 말았죠, 법이 아니라.

**질문자5(남):** 큰스님, 체험담 비슷하게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어 가지고 진짜 마음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업도 실질적으로 부처님이 시키는 일일 뿐이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생각을 했어도 도저히 그 어려운 일이 잘 해결이 안됐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도저히 묘안이 나오지를 않아 자연히 차를 몰고 그냥 큰스님한테 오게 됐습니다. 지혜를 좀 주시기를 간청하였더니 말씀을 딱 한마디만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가서 부처님의 일꾼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행을 했더니 그 일이 성사가 잘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일이 또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제 자신의 뜻이 경솔해지지 않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한마음선원의 큰스님이 사실 부처님의 인연으로 맺어졌는데, 큰스님이기 전에 부처님의 인연으로 해서 어머니와 자식간의 그 인연으로 생각하고 법문을 들었습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도 읊는다는데 8년을 다녔는데도 사실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질문을 하거나 누가 옆에만 와도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공부가 안되나 하면서도 3년이 넘어 6년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까 말씀하신 그 '일체제불의 마음' 노래가 참 가슴 깊게 와 닿았습니다. 그랬는데 듣는 순간에 제 자신이 정말 아주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한마음 주인공 공부를 거기에서 조금 힌트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꼭 한 번 말씀드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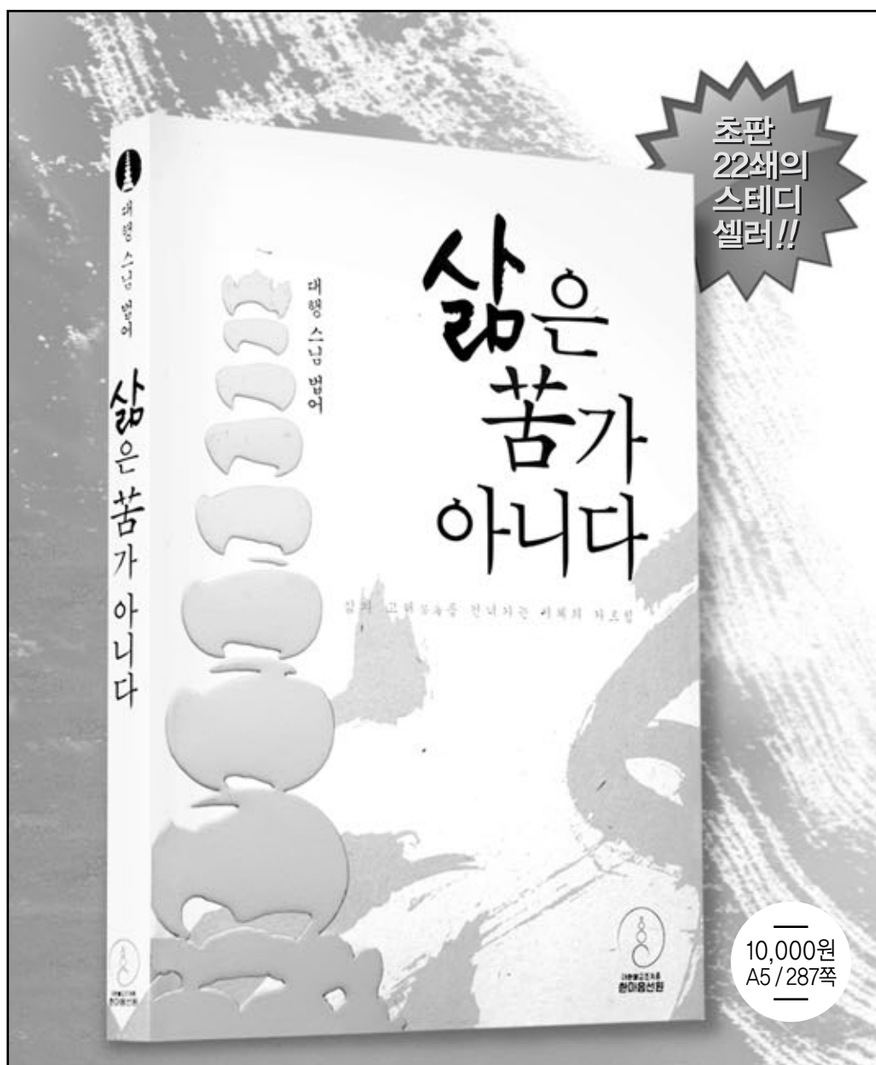
**큰스님:**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한 찰나가요, 지금 정치라든가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떤 땐 자기 소견으로 잘못 생각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 하더라도 '아이구, 내가 이렇게 실험해도 안되는구나.' 이러고 물러서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대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후퇴를 해 가지고 다시 이기는 점도 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멀고 가깝고가 없이, 생활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도울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의심을 하지 않고 무엇을 했다면…, 의심을 하지 않고 한 게 지금 이런 일입니다. 소련이나 미국이나 이런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거요. 그렇게 한다면 그냥 그냥 하는 거지, 거기에 뭐가 붙습니까? 네가 나 아님이 없고 내 나라가 이렇게 반동강이로 잘려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아니, 내가 그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붙습니까? 예?

누가 잘못했다고 하며 누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겠습니까? 그냥입니다, 그냥. 그냥 내가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사니까 그냥 했을 뿐이죠. 거기에 무슨 이유가 붙어요? 거기 부처님 법이다 사람의 법이다 뭐, 이런 것도 붙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닌 까닭에 그냥 내가 보기에 내가 고생스럽죠. 그 고생을 하는 거, 아픈 거, 모든 거를 지켜보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6·25도 겪어 봤고요. 그랬을 때, 내가 '참 이건 안됐다.' 하고선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뿐이지 거기에 뭐가 붙습니까? 붙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여러분의 법이고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든가 세계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문제, 내 가정, 내 몸부터 모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부터 알아라.'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죠. 그리고 나를 알기 이전에 꾸준히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나가 보시라 이겁니다. '내가 모르니까. 내 거기까지 못 갔으니까.' 뭐, 이유가 그냥 짜드리짜드리 붙거든요, 여러분은. 실험을 해 보기 이전에 벌써 이유부터 붙어요. 그러니 뭐가 됩니까, 그게? 실험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건 무심으로 해야 하는 건데 이게 이유가 붙어, 그냥. 벌써 요만한 거 하나, 애들하고 어디 가는 거까지도 이유가 붙어요. 아이고, 그러니 글쎄 그게 온전해요?

※위 법문은 91년 1월 6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10,000원
A5 / 287쪽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 철도파업을 보는 소시민들의 눈



송재운
실버타임즈 편집인
前 동국대 명예교수

지난 12월 9일부터 30일까지 22일 동안의 장기적인 철도노조 파업을 지켜보면서 우리 같은 평범한 소시민들은 많은 것을 느꼈다.

우선은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와 더불어 공익사업 중의 공익사업인 철도사업 종사들이 계속되는 불안한 안보상황 속에서 연중 가장 바쁜 연말연시에 이처럼 전면 파업으로 국가의 대동맥을 마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아무리 6.7%의 임금인상과 철도민영화(수서발 KTX 운영사)반대가 시급하다 할지라도 꼭 이런 방식으로 바로 이때에 국민을 볼모로 잡고 국가 산업과 기강을 이처럼 흔들어서야 되겠는가? 그들의 행동은 철도노조를 애국심이라곤 손톱만치도 없이 오직 광기어린 집단이기주의만 존재하는 집단처럼 보이게 했고, 그 저의마저 의심케 했다. 철도노조의 이 같은 파업은 단순한 노동쟁의로만 보기엔 너무나 정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파업엔 민노총, 통합진보당원(의원포함), 좌파시민 단체들이 합세하여 더욱 기승을 부리며 앞장서서 현 정권을 매도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구호를 난발했다. 이런 사실을 두고 철도파업을 어떻게 노조법 1장 1조가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쟁의 행위로 볼 수 있겠는가!

누가 봐도 이번 철도 노조의 파업은 정치 투쟁의 성격이 강했다. 그 파업이 국회에 '철도노조발전 소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종결된 것 자체가 이를 입증하는 결론이 아닐 수 없다.

설혹 정치투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더욱 충격을 준 것은 철도노조의 무한대한 탐욕(貪慾)과 집단이기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평등원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받고 있는 임금과 대우가 전체 국민들의 보편적인 임금수준을 훨씬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전면 파업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평등의 정의를 배반하는 것이다. 돈 많은 부자도 가난한 이웃의 눈치를 보며 산다. 그렇다면 그 부자는 마음속에 최소한의 평등적 정의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른 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국영기업 종사들이 열악한 임금에 생계를 잇기 어려운 이웃들의 가난한 월급쟁이 생각도 해가면서 자기들 봉창을 불려야, 이것이 타인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될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빚(負債)이 17조 6천억, 이에 대한 하루 이자만도 12억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들 직원이 받는 연봉 6천 3백만 원은 순전히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처지에 국민들 생각은 안하고 자기들의 배만 불릴 이익 챙기기만 주장한다면 누가 그들의 주장에 공감 하겠는가!

한국철도공사(KORAIL) 직원들이 받는 대우를 보자.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전술한대로 6천 3백만 원, 그리고 다음은 그들이 받는 일종의 특혜.

1) 7급에 입사하여 3급까지는 자동 진급. 2) 직원자녀 전액 유학비 지원. 3) 직원 자녀 우선 채용. 4) 가족 해외 경비 지원 5) 가족포함 직원, 철도 병원 무료. 이런 혜택을 받는 직장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

또 한국철도공사의 운영 실태 자료를 보자.

서울-부산 간 고속버스 요금은 23.000원, 운행 시간은 4시간이다. 그러나 새마을호는 요금이 47.000원, 운행시간은 4시간 30분이다. 고속버스 보다 요금은 두 배이고, 운행 시간도 더 걸린다. 서울-부산 간 KTX 요금은 57.000원(일반실), 특실 요금은 항공료와 비슷한 80.000원이다. 그리고 서울역 부산역 등의 창구에서 근무하는 매표원의 연봉은 6.300만 원이다. 비행기 조종사는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철도 기관사는 하루 근무시간이 3시간이라고 한다. 철도 기관사가 서울역에서 KTX 운전대를 잡으면 동대구역에서 기관사가 교체된다. 이렇게 보면 철도 기관사는 하루 근무 시간이 3시간에 불과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청년 실업자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은 매표원 같은 것은 연봉 3.000만 원만 준다 해도 우수한 청년 실업자들이 줄을 설 것이다. 매표원이 6,0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각종 특혜를 받는 철도노조원들이 일부 종교계나 청치인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연 사회적 약자들인가? 묻고 싶다. 그렇다면 하루 몇 만원씩 받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어떤 계층에 드나. 힘 있는 노조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탕발림 수작도 결국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철도를 비롯한 우리의 국영기업들이 진 빚은 무려 500조 원이라 한다. 그냥 두면 IMF 사태를 또 불러올지도 모른다. 고속버스는 민영이라도 서울-부산 간의 요금이 철도의 반밖에 안 된다.

공공기업의 대 노조들이여! 새해부터는 제발 탐욕을 버려라!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부대중 칼럼

# 나눔 문화가 각박한 사회를 따뜻하게



정관 스님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요즈음 14년째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야기는 이렇다.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1시 15분경 전북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는 중년 남성으로 추정되는 목소리로 "'얼굴 없는 천사 비석' 뒤에 박스를 두고 가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라는 짧은 말을 남기며 전화를 끊었다.

이 '얼굴 없는 천사 비석'이란 노송동 주민센터가 2000년부터 기부를 해온 이 인물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비석이라고 한다. 전화가 온 당일 직원들이 천사비석 아래를 확인했을 때, 그 곳에는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 어렵더라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글과 함께 4924만 6640원이 놓여있었다고 한다. 이 '14년 째 얼굴 없는 천사'가 기부한 돈은 지금까지 총 3억 4699만 7460원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매년 이맘때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거액을 내놓는 몇 년째의 그의 행동이 세간에 이목을 탄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에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한다. 하지만 그 기부천사가 넉넉해서 해마다 기부했으리라는 생각은 전혀 안한다. 기부를 조금만 하고서도 사진 찍고 알리고 하는 세상에 본인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무주상보시를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말로는 쉽게 이야기하겠지만 선뜻 큰 금액을 내어놓기는 정말 쉽지가 않다. 소외된 이웃을 조금이나마 훈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얼굴 없는 기부천사 같은 분이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세상이 맑고 깨끗해지기를 기원해본다.

혹시 '노노(老老)케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말 그대로 '노인이 노인을 돕는다'는 뜻을 지닌 이 단어는 더 이상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만 인식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이와 뜻을 함께하는 '노인이 노인을 위해 펼치는 다양한 사회 나눔 활동'들이 진행되며 훈훈한 겨울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복지관은 5년 이상 꾸준히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임인 '종로마니아' 회원들에게 우리가 사회에서 받은 아주 작은 일부분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돼지저금통 하나씩을 드렸다. 연말행사에 하나 둘씩 모인 저금통 전액은 겨울을 나기가 힘든 어르신의 난방비로 사용됐다. 지원을 받은 어르신과 저금통을 모은 어르신들이 모여 훈훈함을 느끼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밖에 어르신들은 직접 만두를 빚어서 쪽방에 계신 어르신께 전달하기도 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하나 둘 씩 손을 놓았던 취미들을 복지관에 오셔서 되살리기도 한다. 모자와 목도리를 떠서 힘겹게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건네주는가 하면, 다문화 시어머니와 남편, 자녀들의 몫까지 챙긴 선물을 꾸러미에 넣어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 역시 복지관과 지역사회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 환원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인 조O수 어르신은 종로마니아 활동을 계기로 2011년부터 정부에서 보조받는 수급비 중 일부를 매월 복지관에 정기후원 해 우리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각박한 현실에 얼굴 찌푸릴 일도 많지만,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情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 문화에 동참하고,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社說

# 종교방송 뉴스 보도 막아서는 안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전문편성방송사업자의 유사보도 실태조사를 두고 각계 반발이 거세다.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를 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는 현재 방송중인 프로그램 목록이 포함됐으며, 실태조사 기간 중 사업자 스스로 편성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종료했다는 표현도 담겼다.

한국PD연합회는 1월 2일 즉각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노골적으로 방송 길들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보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유사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해 송출한 방송사는 BBS 불교방송 등 지상파 종교방송 4곳과 케이블 경제 · 종교 방송사 13곳 등 총17곳이다.

방송심의를 통한 사후 규제도 하면서, 비판 기능을 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분명 구태의연한 일이다. 정부의 허가라는 제도에 따라 정권의 입맛을 맞추는 보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 제도가 가진 미비점을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특정 방송사나 프로그램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불교방송과 같은 경우 지금까지 25년동안 용인하다가 방통위가 이제 와서 제재를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안가는 처사기 때문이다.

방송의 역사성과 법제도의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방통위 입장이라면 이를 계기로 종교방송 등이 뉴스채널 방송을 제도적으로 확고히 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방통위는 무엇이 공기인 방송을 위한 길인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이다.

# 물신 사회 치유는 종교의 의무

한국 사회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으로 종교가 가지는 중요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구랍 18일 발표한 '2013년 한국인의 의식 · 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인들은 행복을 위한 기대 조건 가운데 종교를 가장 하위에 두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건강으로 10점 만점에 9.4점이었고 종교생활에 대한 중요도는 10점 만점에 5.7점에 불과했다.

한국인들은 이제 종교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실제 2012년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의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종교가 사회 치유 역할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42.7%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10% 달했다. 종교 단체에 대한 신뢰도 5.4% 정도였으며, 종교 단체 재정 투명성에 대해서는 다수인 76.6%가 '투명하지 않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는 물신화로 가고 있는 사회에서 범계행위, 교회 세습 등 종교도 세속과 다르지 않음을 종교인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종교의 기대치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지적의 요지다.

물신화 시대에 대한 치유는 종교의 몫이다. 하지만 종교가 가지는 본연의 역할에 대해 대중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종교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 종교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도덕성과 청렴성 등으로 조사된 만큼 종교 본연의 자세를 지켜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종교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대중을 이끌 수 있어야 하며, 바른 믿음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명당발복의 이천년 신비를 과학이 밝혀냈다
명당발복의 신비

★대통령과 재벌을 원한다면 대명당인 천조명당天造明堂을 구求하라!
★가문의 영광과 부귀영화를 바란다면 지조명당地造明堂을 구求하라!
★소문난 맛집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면 인조명당人造明堂을 구求하라!



● 풍수지리(風水地理) 이천년 역사상 최초로 명당(明堂)의 땅 속 형상(形象)이 과학기술(科學技術)에 의해 밝혀짐에 따라 명당의 실체(實體)와 명당의 크고 작음(명당자리의 大小)을 판단(判斷)할 수 있는 방법(方法)을 처음으로 이 책을 통해서 만천하(滿天下)에 공개한다.
● 명당이 명당을 불러들이는 신비한 현상(現象) 즉, 음택명당(陰宅明堂)이 양택명당(陽宅明堂)을 불러들여 명당발복(明堂發福)의 시너지 효과(效果)를 만들어 내는 명당발복의 신비(神秘)한 베일이 드디어 이 책을 통해서 적나라(赤裸裸)하게 벗겨지게 되었다.

전국 서점 판매중!
■ 동선호 지음 / 신국판 / 516쪽 / 정가 25,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법수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사주를 보는 안목이 한순간 확트일 것이다.
수십년 공부하여 포기하고 싶었던 고민이 한순간 해결된다.
명리학의 핵심은 용신이며 희신과 기신의 작용이다.
용신이란 부,귀,빈,천과 운세를 보는 열쇠사 된다.
가장쉬운 용신을 모르고 사주의 병과 약을 모르고 있다.
자평명리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준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 우리는 가피 받을 일(행동)을 하고 있는가?

**오래전 토론장에서 "구원은 있는 것인가?" 라는 청중의 질문에 ..... 어느 성직자가 하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그는 좌중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일들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다.

그럼 **우리들은 가피 받을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불교는 나, 주인공을 찾고 있는데..... 주인공아, 성불하셨나요?

당신의 목표는 성불입니까? 성불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함인지.....
우리의 목표는 성불이 아니고, **성불을 통해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이익 되게 하지 못하는 성불은 성불이 아닙니다.

성불이란 것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는 [무상정등각]이라는 어려운 표현 쓰지 마시고 그냥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격체를 완성하신 분]이라고 –인격체를 완성하신 분이기에 기꺼이 중생이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행원보살로써 나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절집에서는 비불교적인 행위가 도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이미 변질이 되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천도재 지내고, 철야기도 한다고 밤새 불보살 명호 불러대고, 인등 밝혀 놓고, 방생, 성지순례 등 무리지어 밖으로 치닫고 있으며, 삼재풀이, 삼재기도, 그에 따른 부적 등 이것 말고는 내놓을 만한 행사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천도재 지내고, 밤새 명호 불러보고, 부적 지니니 세상 근심사가 다 해결됐나요?

또 백중때는 법사 모시고 백중법문 하면서 입춘 전후해서 삼재에 따른 부적은 지니게 하면서도 **왜 부처님 삼재 법문은 하지 않는가?**
몰라서 그렇다면 불교사전 보고 하면 될 것을..... 왜 못하는가?

불교를 누가 어렵다고 얘기하는가?
각종 경전에 어려운 언어.문자가 있다고 어렵다고 하는가? 정보화 시대에 보기 편하고 읽기 편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는데.....

불교는 어려운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했던 도덕 바른생활과 다른 것이 없다.

예로 어른을 공경하라면 공경하면 되고, 술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인데..... 실천하지 않으니 어렵다고 얘기한다.

우리 인간이 제일 힘든게 자기 버릇 – 습기 고치는 것이다.
이것을 고치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특히 지식인들로부터 멸시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 하며, 자업자득이요. 자작자수라 했다.
그래서 금생에 농사를 잘 지으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 있나? 유치원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것이 모든 성인의 가르침이다.

**성인의 출현하심은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지, 조상이 어떻고..... 삼재가 들고, 날고 하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다.**

1) 2011년 5월 초에 잘 아는 스님이 부탁을 해 왔다. 부친이 서울 삼성 의료원에서 위암 말기로 2달 시한부라는 것이다. 그럼 바로 데려오라고 하니 속가 형제들이 전부 기독교인이라 쓸데없는 짓이라고 전부 사기이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 달여 시간이 흐르자, 그때서야 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절에 환자를 데리고 왔길래 두 번 기도로 그는 소생을 했고, 약 한 달 절에 머물면서 그냥 가면 안 된다며 그 당시 사찰을 건립 중에 있으므로 현장에 나가 청소라도 해서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부지런히 일 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삼척)

2) 본 사찰에 다니는 신도가 하는 말이, 동생이 오래전에 목에 갑상선이 있었는데, 세월을 두고 수술하기를 여러 번 했었고, 이번에는 갑상선암이 크게 전이가 되어 마산 큰 병원에서 수술 예약 날짜를 잡아 놓았다고 했다. 수술을 앞두고 미리 스님께 기도를 받고 수술 일자에 맞추어 병원에 갔더니 암이 없어졌다고 했다. 지금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와 가정생활을 겸하고 있다. (거제)

3)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어머니가 자궁에서 시작된 암세포가 입원, 퇴원을 2년 넘게 반복하면서 결국엔 4군데(자궁, 간, 폐, 유방)로 전이되자 병원은 급기야 이제는 힘들다고 하니 그 형제들이 스님한테 부탁해서 기도는 3일 받고, 21일 만에 병원에 가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더라고 함. 의사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길래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함. 왜 병원가면 "절대 얘기하지도 말고 소문내지 말라."고 스님께서 일렀기 때문에..... (양평 양수리)

4) 스님으로부터 부탁이 왔다.
목사 아들을 둔 68세 되신 분이 귀신이 보인다며 부엌칼을 마구 휘드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들이 무서워서 생활을 못하겠다고 하길래 부탁한 스님과 같이 새벽 5시에 그 집에 가기로 하고, 대신 가족들이 그 자리에 와야 된다고 일러주고 그 집을 갔다. 가서 보니 생활가구가 온통 칼자국으로 엉망이었다. 가족들 눈을 보고 상담해 보니 굿을 비롯해 안해 본 것이 없었고, 베개 밑에 부적까지 넣어둔 걸 보고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었다. 자세히 얘기를 해 주고 기도를 하고는 아침 찬바람을 맞으며 그 집을 나왔다. 그 때 환자의 키 큰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인천)

5) 정비공장을 하시는 신도가 부탁을 해 왔다.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이 한 달이 멀다 하고, 사고를 쳐서 수리를 하러 오는 고객인데, 본인 스스로 조심하는데도 자꾸 사고가 난다는 것이다. 그런 연유로 절에 찾아 왔길래 앉기도 전에 그 사람의 눈을 보고는 5살 때 죽은 남자아이 (몸은 어떻게 생겼고..... 피부 색깔은 어떻고.....)를 찾아오라 하니 자기는 본가나 처가 할 것 없이 절대 5살때 죽은 남자아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 돌아가세요." 하니 돌아가는 표정이 좋지 않은 기색이었다. 그가 돌아가고 삼일이 지나자 미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하는 말이 87년도에 본인 차에 5살 남자아이가 길에서 갑자기 뛰쳐나와 본인 차에 받혀 죽었다고 했다. 그때 보험 및 합의로 잘 해결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 스님이 고함을 지르면서 "불자 맞습니까? 돈이면 인명을 얼마든지 죽여도 되느냐..... 당장 이 절에서 나가라."고...
그 후 천도재를 지내고 나서 거사는 사고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다. (서울 홍은동)

6)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학교가기를 싫어하는 학생이 있다며 상담을 청해 왔다.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으면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아이는 하루종일 혼자 지내면서도 누군가와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호자와 함께 절에 데리고 와서 우선 그 아이의 엄마와 상담을 했는데, 엄마부터 문제가 많길래 바른 수행자를 찾아 경전과 조사 어록을 통한 바른 신행생활 할 것을 철저히 당부하고 나서 딸을 스님 상담실로 데려오게 했다. 문을 여는 순간 그 아이의 눈을 보시고는 "너, 학교가기 싫지."하니 "네" 하는 겁니다. 다시 스님께서 "너 아이들 하고 같이 공부하는게 시시해 보이지."하자 "네" 하니, 그때 스님께서 "이리와. 고개를 내밀어라."하자, 아이는 순간 뒷걸음 치길래 뒤에 서있던 본 도량 학장 스님이 뒷머리를 쥐고는 스님 앞으로 쑥 내밀자, 스님이 손가락으로 머리를 톡치면서 "이젠, 됐다. 가도 된다."하니 갑자기 그 아이가 하는 말 "엄마, 나 학교에 가고 싶어."라고 하는 겁니다. 드문 예이지만 그 아이한테는 할아버지가 접신되었던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제발 바른 신행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거제)

7) 일이 있어 아는 스님 절에 점심공양이나 할 요량으로 들렀다.
그 날은 신도들이 많이 와 있었다. 스님 방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 보니 키가 크고 건장한 스님이 누워 있는 것이었다. 낯선 스님이 둘이나 들어오는데도 앓는 소리만 내고 있길래 물어보니 아침에 일찍 왔는데 지금도 계속 아프다는 것이다.
주지스님 안내로 공양이 방으로 들어왔는데도 그는 미동도 않고 누워만 있었다. 공양을 마치고 같이 온 스님보고 자구책으로 민간요법을 썼으나, 아무 반응이 없자, 그때 같이 온 스님이 아무래도 기도를 해 주라고 세 번씩이나 간청도 하고, 누워 있는 스님이 안됐기도 해서 알았다고 하고선 남의 절이니 아무도 보지 못하게 방문을 다 닫으라고 하고는 5분 정도 기도를 끝내자 그 스님은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서는 그날 그 절의 일을 보고 갔다. (창원)

8) 오래전 알만한 대선사 지도하에 선 수련을 오래하였던 83세된 노보살님이 교통사고와 계단에서 뒤로 떨어져 대퇴부를 크게 다쳐 팔, 다리를 못 쓸 뿐만 아니라 아예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 부탁을 받고 그날 석, 박 사과정을 모두 마친 나의 도반과 또 다른 동행인이 같이 집을 찾아 누워있는 상태에서 병문안을 여쭙고는 일행들에게는 각각 주문과 경을 독송케 하고, 노보살님한테는 입은 다물고 일념으로 무엇을 하라 하고, 기도를 시작하자 5분도 채 되기 전에 환자 스스로 팔을 들어 올려 큰 원을 그리면서 합장을 하고는 그 손으로 대퇴부를 주무르는 것이다. 그러기를 십 여분 하고는 기도를 마치자, 도반이 묻는다.
"아니 꼼짝도 못하시는 분이 왜 갑자기 팔을 들어 원을 그리고 합장 후에 그 손으로 아픈 부위를 만졌느냐?"고 묻자, 보살 왈 "스님이 기도하자, 갑자기 전기가 온 몸에 흐르듯이 찌릿함을 느끼면서 자신도 모르게 손이 그 쪽으로 가서 주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바른 수행을 하셨던 분들은 능례.소례자 간에 쉽게 교감이 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노보살님의 자녀중에 대학원까지 마친 조계종 스님이 한 분 있었고, 그 인연으로 지금 본 도량에서 학장 소임을 맡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접신으로 인한 신병 같은 경우는 그 자의 눈을 보고 몸에 접신된 자가 꼭 몇 살 때 죽은 남자, 여자, 몇 명인지 까지를 직관을 통해 단번에 정확히 알아낼 수 있어야 상대를 퇴치할 수 있다. 상대의 눈을 보는 것은 1초면 충분하다.
그러고 난 후, 그를 보내기 위해 가까이 있는 이들은 되도록 돈이 들지 않는 기도를 시키고 있고, 멀리서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직접 음식을 하게 하여 천도재를 지내주고 있다.

**법력에서 생기는 직관 능력이 없으면 절대 천도시킬 수 없다.**

이외에도 이미 오래 전에 인연이 되어 백혈병, 희귀병 등을 앓던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잘 살고 있으며, 단 병원에서 1%의 소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받아준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

본 도량에서는 경전과 조사어록을 통한 –– 건축불사는 관심 없고, 교육불사만 고집하여 일체의 정법만을 실천하고 있으며, 부처님과 조사께서 극구 만류하신 비불교적 행위인 사주, 관상, 철학, 삼재풀이, 삼재기도, 부적, 방생(어류, 조류), 성지순례, 수험생 합격기도, 사업번창 기도, 돈 액수에 따른 큰등, 작은 등, 인등, 산신기도, 용왕기도 등은 일체 사절 하고 있으며, 방생도 물고기, 조류가 아닌 인간방생을 장려하고 있고, 성지순례 등은 철저히 배제하며, 다만 그 비용으로 수술비가 없어 삶의 희망을 잃은 이들을 위해 쓰라고 가르치고 있다.

부적 쓸 일, 삼재풀이 할 돈 있으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면 좋은 일 생길꺼라고.....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복이 될 수도 있고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

기도는 불보살님의 가르침대로 공부하고 실천할 때 분명히 가피는 있습니다. 수행과 기도는 불보살님의 힘을 입기 보다는 주인공이 권능을 갖기 위해 꼭 경전의 말씀대로 바른 실천할 때 출, 재가자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 권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불자 여러분!
무슨 영험 도량, 신통 도량 등에서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사례를 보고 직접 확인코자 하시는 분은 누구든 연락주시거나 왕림하시면 당사자의 연락처와 그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부를 꼭 병원까지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장난전화와 호기심에 하는 전화는 일체 사양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러한 사례들이 방송국에 제보가 되어 TV 출연할 수도 있었으나, 소승이 수행에만 몰두코자 사양하였음.
(소승은 술, 담배, 커피, 음료수 등은 일체 먹지도 않음.)

불.법.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불교대학) 여명 도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519–3 (충해공원내)
T 055)633–6555

* 많은 글을 쓰고 싶으나, 재정 관계상 이 지면밖에 허락이 안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이러한 글을 쓸 날이 있겠지요.